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 ‘-어라’ 연구

A study on Exclamatory Ending
‘-ara/-era’ in Contemporary Korean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송유빈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 ‘-어라’ 연구

지도교수 유필재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송유빈



송유빈의 문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은섭 

심사위원 이 승희 

심사위원 안 소진 

심사위원 소 래섭 

심사위원 유 필재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년 8월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 연구

송 유 빈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구명하는 데에 있다. 감탄형 '-어라'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 다루어진 바가 적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어라'가 자주 사용되지만 쓰임이 한정되어 용례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들도 작례(作例)를 중심으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본고는 준구어 말뭉치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현실 언어에서 사용되는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 선행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구나', '-네' 비교 연구에 '-어라'를 포함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2장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와 '-구나', '-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어라'를 중심으로 구명되어야 하는 쟁점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추출한 '-어라'의 용례를 활용하여 감탄형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감탄형 '-어라'의 문법적 특징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선행 어간 제약이지만 '-어라'가 결합하여 감탄형을 만드는 형용사 목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다. 이에 본고는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감탄형 '-어라'가 결합하는 형용사 목록을 확인하였다. 이 목록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은 서술의 편의상 줄여서 임의로 '감탄형 형용사'로 명명한다. 본고의 감탄형 형용사는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여 실제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고 사용 가능성이 높은 형용사이다.

현대 한국어의 감탄형 형용사에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가 속한다. 감탄형 '-어라'가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를 선행 어간으로 취하면 주어 자리에는 1인칭만 온다. 이는 심리 형용사와 감각 형용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상 형용사를 선행 어간으로 취하면 주어 자리에는 1인칭이 오지 못한다. 이는 '-어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상 형용사의 하위 부류에는 사람 명사의 성질을 평가하는 성격 형용사가 있는데 성격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어라'와의 사용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탄형 '-어라'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 외에 구(句)와도 결합한다. 구(句)에는 관용구, '-고 싶-', 형용사와 결합하는 '-기도 하-'가 속한다. '-어라'와 관용구가 결합하는 것은 인간의 어휘부에는 별개의 어휘소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구도 등재되어 있다는 이론적 가정을 증명한다. 감탄형 '-어라'가 관용구를 선행 어간으로 취하면 주어 자리에는 2, 3인칭이 온다. '싶다'는 보조 형용사로 여러 구성을 가지는데 이 중 감탄형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고 싶-' 뿐이다. '-고 싶-'는 심리 형용사와 동일한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공유한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고 싶-'를 취하면 주어 자리에는 1인칭이 온다. '-기도 하-'는 선행 어간으로 동사를 취하면 동사 활용을 하고 형용사를 취하면 형용사 활용을 하는 문법 구성이다. 감탄형 '-어라'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기도 하-'와만 결합한다. 이때 '하-'는 보조 형용사이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기도 하-'를 취하면 주어 자리에는 2, 3인칭이 온다.

감탄형 ‘-어라’는 선어말 어미 ‘-시-’, ‘-었-’, ‘-겠-’ 중 ‘-시-’와만 결합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면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 2, 3인칭이 가능한 정상 형용사, 관용구, ‘-기도 하-’가 ‘-어라’의 선행 어간으로 오는 경우에만 ‘-시-’가 결합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감탄형 ‘-어라’는 명령형 ‘-어라’와 형태가 동일하다. ‘-어라’와 결합하여 명령형을 만드는 형용사를 의지 형용사라고 한다. 형용사 중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외모를 평가하는 형용사는 감탄형 형용사와 의지 형용사 모두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탄형 ‘-어라’는 서술어 단독으로 실현되는 문형을 기본으로 한다. ‘-어라’ 문형에서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관련이 없는 독립어만 나타날 수 있는데 독립어 중에서도 감탄사, 호격어만 출현할 수 있다.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감탄사만이 결합하며 주로 ‘-어라’ 문형의 문두에 나타난다. 호격어는 호격 조사가 생략된 명사 단독형으로 ‘우리’, ‘내’가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위치는 자유롭다. 감탄사와 호격어의 실현은 필수적이지 않다. ‘-어라’는 발화 현장에서의 화자의 주관적 감정 또는 판단을 표현한다. 어떤 감탄형 어미보다 즉각적이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라’와 ‘-구나, -네’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여러 제약을 가지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는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지지 않고 주어 제약도 가지지 않는다. 단 ‘-구나, -네’가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를 선행 어간으로 취하면 이들 형용사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여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구나’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를 선행 어간으로 취할 때도 주어 자리에 2, 3인칭이 올 수 있다. 이는 ‘-구나’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심리 형용사와 감각 형용사의 주어 제약은 추론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해소되는데 ‘-구나’는 추론으로 알게 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구나’는 선어말 어미 제약도 가지지 않는다. ‘-네’는 ‘-시-’, ‘-었-’, ‘-겠-’과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더-’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단독적 장면과 상관적 장면 중 단독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는 모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어라’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발화가 이루어지므로 화자가 가지거나 추측하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하는 유사 의문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구나’, ‘-네’는 유사 의문문 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청자가 높여야 할 대상일 때 ‘-네’만 보조사 ‘-요’와 결합한다. ‘-어라’는 ‘-요’와 결합하지 못하고 ‘-구나’는 준말인 ‘-군’에 ‘-요’를 결합할 수 있다. ‘-어라, -구나, -네’는 ‘하-’와 결합하여 ‘-어라 하-, -구나 하-, -네 하-’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라 하-’는 주로 ‘나물라라 하-, 좋아라 하-’로 사용된다. ‘-어라 하-, -구나 하-, -네 하-’는 사람 명사나 ‘느낌, 모습, 생각, 심정, 얼굴’ 등이 후행하여 인물의 표정이나 심리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감정 감탄사와만 나타나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는 감정 감탄사뿐만 아니라 의지 감탄사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어라’가 의지 감탄사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발화하는 ‘-어라’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라’는 화자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구나’, ‘-네’에서 표현되는 화자의 느낌이나 감정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동반한 것이다. ‘-어라’는 직접 지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한다. ‘-구나’는 직접 지각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 ‘-네’는 주로 직접 지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하지만 직접 지각한 내용이 확실한 증거라고 판단되면 추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었-, -겠-’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라’로 표현되는 정보는 즉각적이다. ‘-구나’는 긴 사유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네’는 즉각적이거나 짧은 사유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 하였다.

주요어: 감탄형,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 문법적 특징, 의미적 특징

목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
1.3. 논의의 구성	7
2. 연구사 검토	8
3.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의 특징	12
3.1. 문법적 특징	12
3.1.1. 선행 어간 및 주어 제약	12
3.1.1.1. 용언 어간	13
3.1.1.2. 구(句) 구성	31
3.1.2. 선어말 어미 결합 제약	38
3.1.3. 감탄형 형용사와 의지 형용사	41
3.1.4. 문형	45
3.2. 의미적 특징	49
4.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네’와의 비교	56
4.1. 문법적 특징 비교	56
4.1.1. 선행 어간 및 주어 제약	56
4.1.2. 선어말 어미 결합 제약	65
4.1.3. 문장 기능	70
4.1.4. 감탄사 결합	76
4.2. 의미적 특징 비교	79
5. 결론	84
<참고문헌>	87
<부록>	92
<Abstract>	115

표 목차

<표 1> 선행 연구에서 다룬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	4
<표 2> 감탄형 종결 어미 상대 경어법 분류	5
<표 3>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용언(이민 준구어 말뭉치)	14
<표 4>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자동사 목록	17
<표 5>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용언(이민 준구어 말뭉치, 네이버 기사문, 사전) ...	20
<표 6>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 유형 분류	23
<표 7>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심리 형용사 목록	26
<표 8>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감각 형용사 목록	27
<표 9>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성상 형용사 목록	29
<표 10>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성격 형용사 목록	31
<표 11>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관용구 목록	32
<표 12>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구 목록	32
<표 13> 기타노 유카(2012)의 의지 형용사 목록	42
<표 14>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 나타난 ‘-어라’의 의미	49
<표 15>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구나’의 의미	79
<표 16>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 나타난 ‘-네’의 의미	80
<표 17> ‘-어라’, ‘-구나’, ‘-네’의 의미적 특징	83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구명(究明)하는 데에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종결 어미는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문장의 종류를 구분짓는다. 종결 어미 ‘-어라’는 선행 어간의 품사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와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

(1)

-어라

「어미」

「1」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표준국어대사전』)

‘-어라’는 선행 어간이 동사인 경우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선행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동사가 ‘-어라’ 명령형을 만들 수 없듯이¹⁾ 모든 형용사가 ‘-어라’ 감탄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가. 아우 좋아라.

(박영숙, 헬로! 애기씨 4회, KBS2, 2007)

나. (형보다 동생이 인물이) *나아라!

(2)는 형용사 ‘좋다’, ‘낫다’와 감탄형 ‘-어라’가 결합한 문장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2)는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어야 하지만 (2나)는 자연스럽지 않다. 감탄형 ‘-어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중에서도 특정 부류의 형용사가 ‘-어라’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라’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 다루어진 바가 적고 선행 어간 제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논의된 바가 없다. 그것은 ‘-어라’에 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라’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결 어미로 문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은 작례(作例)를 중심으로

1) ‘치이다, 갇히다’ 등 피동사의 경우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또한 ‘(해가)돋다, (비가)오다’ 등의 무의지동사도 명령형을 가질 수 없다. 이들 동사가 명령형 ‘-아/어라’와 결합하게 되면 명령의 발화수반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원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성환 2003: 90).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본고는 구어 텍스트가 주 내용인 ‘준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하여 ‘-어라’가 가지는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를 추출하여 정리할 것이다. 작례(作例)를 논의 근거로 삼는 기존 연구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본고는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말뭉치의 예문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런데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 어미에는 ‘-어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2나)의 내용을 발화하고 싶다면 선행 어간 제약이 없는 다른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3)

가. 니가 나보다 낮구나.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53회, KBS2, 2009)

나. 어이구, 우리 석현이가 형들보다 낮네!

(이흥구, 김가이가 10회, MBC, 1993-1994)

(3)은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지 못하는 형용사 ‘낮다’를 선행 어간으로 취하고 있다. (3가)는 감탄형 ‘-구나’이고 (3나)는 감탄형 ‘-네’로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본고는 감탄형 종결 어미 중 ‘-구나’와 ‘-네’를 채택하여 ‘-어라’와의 공통점, 차이점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탄형 ‘-어라’의 성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이다.²⁾ 앞서 기술했듯이 ‘-어라’는 구어에서 잘 사용되지만 용례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지(2014)의 연구를 참고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미지(2014: 243)는 21세기 세종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감탄 표현을 유형화하였는데 ‘-어라’의 경우 실제 자주 사용하는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말뭉치의 빈도가 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본고는 실제 구어 자료는 아니지만 현실을 재연하여 우리의 실제 언어 사용 모습을 담고 있는(이민 2012: 4) ‘이민 준구어 말뭉치’를 주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민 준구어 말뭉치’는 총 7,454회에 해당하는 영화 및 드라마 대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상 생활에서의 각종 상황이나 장면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세종 말뭉치와는 달리 감탄형 ‘-어라’ 용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검색되는 기사문도 활용하였다. 네이버 기사문은 뉴스나 라디오와 같은 자연 발화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준구어 말뭉치라는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2) 본고의 연구 대상인 감탄형 ‘-어라’는 감탄형 ‘-아라, -여라’를 대표하는 형태로 따로 감탄형임을 밝혀 적지 않고자 한다. 따라서 감탄형 ‘-어라’는 이하 ‘-어라’로 표기한다. 명령형 ‘-어라’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명령형임을 밝혀 적는다. 명령형 ‘-어라’도 명령형 ‘-아라, -여라’를 대표하는 형태이다.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 어미에는 ‘-어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고는 감탄형에 속하는 종결 어미 중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어라’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체계 내에서 ‘-어라’가 가지는 지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에서 다룬 감탄형 종결 어미 중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감탄’이 기술되어 있는 종결 어미로 대상을 한정된 뒤 ‘-어라’와 같거나 비슷한 상대 경어법을 가진 어미를 선정하였다. 그 중 말뭉치의 빈도가 높은 어미를 최종으로 채택하였다. <표 1>은 본고가 살펴본 선행 연구 중 감탄형 종결 어미를 다룬 연구와 연구에서 논의된 어미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선행 연구에서 다룬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

	선행 연구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			개수
1	최현배 (1978)	-구나	-구려	-도다	3개
2	노대규 (1997)	-구나 -구먼요 -누나	-구려 -군 -도다	-구먼 -군요 -아라	9개
3	윤석민 (2000)	-구나 -군 -르걸 -로구먼 -어/아라	-구려 -노라 -로구나 -로군	-구먼 -누나 -로구려 -어/아	13개
4	국립국어원 (2005)	-구나 -네(요) -어라	-구먼(요) /구만(요) -는걸(요)	-군(요) -는데(요)	7개
5	정선주 (2007)	-구나 -군(요) -아라	-구려 -누나	-구먼(요) -도다	7개
6	고영근·구본관 (2008)	-구나 -군	-구려 -네	-구먼	5개
7	이미지 (2014)	-구나 -는데(요) -더라 -데(요)	-군(요) -다 -더라고(요) -어	-네(요) -더군(요) -던데(요) -어라	12개
8	남기심·고영근 (2015)	-구나 -군 -어	-구려 -군요 -어라	-구먼 -더구나 -는데	9개
9	하지희·조용준 (2016)	-구나 -군 -네요 -어라	-구만 -군요 -는데	-구먼 -네 -는데요	10개

<표 1>의 감탄형 어미를 논의된 빈도 순으로 나열하면 ‘-구나(9), -군(8), -구먼(7), -어라(7), -구려(6), -네(4), -는데(4), -도다(3), -어(3) …’ 순이다.³⁾ 이들 어미 중 ‘-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감탄’이 의미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표 2>는 ‘-어’를 제외한 나머지 어미를 상대 경어법 등급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2> 감탄형 종결 어미 상대 경어법 분류

	상대 경어법	감탄형 종결 어미			개수
1	해체	-구먼 -는데	-군	-네	4개
2	해라체	-구나	-도다	-어라	3개
3	하오체	-구려			1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감탄형 종결 어미 중 ‘-어라’와 같은 상대 경어법 등급을 가지는 어미에는 ‘-구나’와 ‘-도다’가 있다.

(4)

-구나

「어미」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도다

「어미」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장중한 어조를 띤다.

(『표준국어대사전』)

(4)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구나’와 ‘-도다’의 정의이다. 이 중 ‘-도다’는 (4)의 기술처럼 현대 한국어 화자들에게 예스러운 표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종결 어미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 빈도도 ‘-어라’, ‘-구나’에 비해 ‘-도다’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도다’를 ‘-어라’와의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어라’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대 경어법 등급을 가지는 어미에는 ‘-구먼’, ‘-군’, ‘-네’, ‘-어’가 있다.

3) 이형태나 선어말 어미 결합형, 보조사 결합형은 대표형으로 취급했다. 예를 들면 ‘-아라’, ‘-어라’는 모두 ‘-어라’로 처리했다. ‘-더구나’는 ‘-구나’로 처리하고, ‘-군요’, ‘-네요’는 ‘-군’과 ‘-네’로 처리했다.

(5)

-구먼

「어미」 ‘-군’의 본말.

-군

「어미」

「1」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뒤에는 보조사 ‘요’가 오기도 한다.

「2」 ‘-구나’의 준말.

-네

「어미」

「1」 하계할 자리에 쓰여,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드러난다.

-는데

「어미」

❶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❷

「1」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2」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표준국어대사전』)

(5)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구먼’, ‘-군’, ‘-네’, ‘-는데’의 정의이다. 이 중 ‘-는데’는 ‘-어라’와의 비교 대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른 해체 종결 어미와 달리 연결 어미가 종결 어미화된 것이기도 하고, 연구 자료에서 감탄의 뜻으로 검색된 예문도 적었기 때문이다.

‘-구먼’은 ‘-군’의 본말이고 ‘-군’은 ‘-구나’의 준말로 세 어미는 모종의 관계를 맺는다. 박재연(2004: 128)도 ‘-구나, -군, -구먼’이 기원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형식적, 의미적 면에서는 공통되는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구나’, ‘-군’, ‘-구먼’ 중 예문 빈도가 가장 높고 ‘-어라’와 상대 경어법의 등급이 동일한 ‘-구나’를 비교 대상으로 채택하였다.⁴⁾

‘-네’에는 하계체 어미와 해체 어미가 있다.⁵⁾

4) 필요에 따라 ‘-군’, ‘-구먼’을 언급한다.

(6)

가. 난 자네 집안이 싫네.

(현고운, 1%의 어떤 것 10회, 드라맥스, 2016)

나. 누워서 방바닥도 긁고 코도 후비고, 너무 편해 나가기 싫네.

(소현경, 얼마나 좋길래 103회, MBC, 2006)

(6가)에서 ‘싫네’는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하계체 어미 ‘-네’이다. 하계체 어미는 ‘자네’라는 호칭과 짝이 맞는 말투로 격식성이 강하다(이익섭·이상역·채완 1997: 266). (6나)에서 ‘싫네’는 해체 어미 ‘-네’이다. 해체 어미 ‘-네’는 전통적으로 감탄형 어미로 다루어졌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감탄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도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어라’와의 비교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어라’와 비교 대상인 ‘-구나’는 해라체이지만 ‘-네’는 해체로 세 어미의 상대 경어법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체는 해라체와 거의 아무런 구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이익섭·이상역·채완 1997: 264) 세 어미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1.3. 논의의 구성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 ‘-구나’, ‘-네’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어라’를 중심으로 구명되어야 하는 쟁점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말뭉치 용례를 활용하여 감탄형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살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어라’와 결합하여 실제로 분명하게 사용되는 형용사를 정리하였으며 그 목록은 예문과 함께 부록에 실는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라’와 ‘-구나’, ‘-네’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본문의 예문은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검색된 것을 주(主)로 삼지만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사문에서 조사된 예문도 함께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 등 사전에서의 예문,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예문, 이 논문을 위해 만든 작례(作例)도 보충해서 사용한다. 예문에 문장 부호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띄어쓰기를 잘못된 경우, 오타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고쳐 실고 부록에는 본문에 실지 못한 예문을 실는다.

5) 하계체 어미 ‘-네’와 해체 어미 ‘-네’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익섭·채완(2000: 256-257)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계체 어미 ‘-네’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을 때만 쓰는 어미인데도 존대의 보조사 ‘요’가 결합할 수 없다. 해체 어미 ‘-네’는 혼잣말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미이지만 빈 간접 화행으로 쓰이면 반말의 특성에 따라 ‘요’가 붙을 수 있다. 임채훈(2008: 227)은 하계체 어미 ‘-네’와 해체 어미 ‘-네’는 실제 억양의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2. 연구사 검토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이승희(1996: 41), 정재영(2001: 319)은 ‘-어라’가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고 그 쓰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든다. 이미지(2014: 243)에서 지적된 것처럼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감탄형 ‘-어라’가 사용되지만 특수한 사용 맥락 탓에 말뭉치 자료로서 구축되기가 어려워 실증적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고창운(1995), 노대규(1997), 윤석민(2000), 정선주(2007), 박재연(2004, 2013), 박진호(2011), 임동훈(2011), 남기심·고영근(2015), 하지희·조용준(2016), 이소흔(2019)도 ‘-어라’를 언급하고 있지만 감탄이라는 문법 범주 내에서 또는 다른 감탄형 종결 어미와의 비교를 위해서 간략하게 논의되는 정도에 그친다. 이 중 박재연(2013: 88-89)은 현대 한국어에서 순수히 ‘표현’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형식인 ‘-어라’가 존재하므로 한국어 문장 유형으로서 감탄문의 존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어라’가 가지는 감탄의 기능이 고유하고 독특하고 특수하다는 점은 정선주(2007: 118), 이소흔(2019: 46), 이미지(2014: 243)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선행 연구 중 감탄형 ‘-어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조용준(2017)이 유일하다. 조용준은 ‘-어라’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논의로 주어 제약과 선어말 어미 제약 등 선행 연구 오류의 많은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조용준(2017)은 ‘-어라’의 선행 어간 제약에 대해서 ‘-어라’가 굳이 형용사에만 국한하여 그 결합이 성립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조용준(2017: 124-126)은 ‘-어라’가 화자의 감각, 지각, 감정, 느낌을 나타낸다면 동사도 그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며 ‘심리 자동사’라는 범주를 제시하였지만 모든 심리 자동사가 ‘-어라’와의 결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의 보완이 필요하다.⁶⁾

이승희(1996), 장윤희(2002)에서는 감탄형 ‘-어라’의 중세국어형 ‘-애/에라’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희(1996)는 중세국어의 감동법에 대한 연구이다. 중세국어의 ‘-애/에라’는 상대 높임의 ‘-에이다’가 있었고 ‘-애/에라, -에이다’가 사용되는 상황이 독백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애/에라, -에이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형용사 외에도 동사와 통합하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덧붙였다. ‘-애/에라, -에이다’와 통합하는 동사는 거의 대부분 형용사와 통하는 면이 있는 상태동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에라, -에이다’는 ‘화자가 어떠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자신의 느낌을 담아 표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대국어 ‘-어라’와 공통되는 면을 가진다고 기술하였다. 장윤희(2002)는 중세국어에서 15세기 국어의 종결 어미가 지닌 형태상, 의미 기능상의 특성을 살펴 본 연구이다. 15세기에 화자의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어미 중에는 ‘-애/에라’가 있었고 ‘-애/에라’는 ‘찬탄, 탄식’ 등을 표현한다고 한다. ‘-애/에라’의 높임 등급인 ‘-에이다’에 대해서는 ‘-애/에라’가 다른 어미보다 어떤 사실이나 그에 대한 화자의 심리 상태, 인식 상태를 청자에게 표시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진 어미이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애/에라’가 청자를 직접 상대한 장면에서는 평서문적인 성격이 강할 때가 많지만 독백적 상황에서는 화자의 정감성을 표현한다며 ‘-애/에라’의 기본적인

6) 이에 대해서는 3.1.1.에서 상술한다.

쓰임을 감탄법 어미로 파악하였다.

이소훈(2019)은 20세기 전반기의 감탄법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하며 ‘-어라’의 쓰임을 언급하였다. ‘-어라’는 20세기 전반기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되고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형용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생겼는데 이는 ‘-어라’가 아이에게 쓰는 말투로 바뀌었음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김건희(2010)는 명령형 ‘-어라’와 형용사가 결합하는 환경에 대해 고찰하며 명령형 ‘-어라’와 감탄형 ‘-어라’를 비교한 연구이다. 김건희(2010: 139, 150)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형용사와 결합하는 감탄형 어미 ‘-어라’를 동일한 어미로 간주한다. 화자 중심의 명령형과 감탄형의 ‘-어라’는 주관적인 평가라는 형용사 본래의 성격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특정한 의미 자질에 상관없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희(1996: 40)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세국어 시기에도 감탄의 ‘-어라’와 명령의 ‘-어라’는 서로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그 기원이 다른 어미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건희(2010)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나’와 ‘-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어미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다.⁷⁾ 장경희(1985)가 전통적으로 감탄형 종결 어미로 다루어진 ‘-구나’, ‘-네’의 핵심 의미를 ‘새로 앎’으로 지적한 이후⁸⁾ 이들 어미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식 양태, 증거성, 의외성 등의 새로운 범주들이 도입되었다.

‘-구나’, ‘-네’를 인식 양태로 논의한 연구는 장경희(1985), 손현선(1996), 박재연(1999, 2004), 신선경(2001), 권익수(2013, 2015), 정순화(2021)가 있다.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는 양태(modality)의 하위 범주로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에 관련된 ‘확신의 정도’를 표현한다. ‘추측, 가능성, 지각’ 등의 의미 범주가 인식 양태에 속할 수 있다(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2018: 324). 한국어에서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어미로는 선어말 어미 ‘-더-’, ‘-겠-’, 종결 어미 ‘-네’, ‘-구나/균’, ‘-지’, ‘-거든’ 등이 있다.⁹⁾ 장경희(1985)는 ‘-구나’의 의미는 [처음 앎], ‘-네’의 의미는 [현재 지각]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지각]은 [처음 앎]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은 사태를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하며 ‘-구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네’와 차이를 가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박재연(1999)은 인식 양태를 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박재연(1999)이 체계화한 양태 범주의 의미 영역은 증거성과 의외성을 모두 포함한다.¹⁰⁾ 박재연(1999.

7) ‘-구나’ 개별 어미에 대한 연구는 구현정(1996), 김유정(2008), 박재연(2014) 등이 있으며 ‘-네’ 개별 어미에 대한 연구는 정경숙(2012, 2014), 권익수(2013, 2015), 박지은·최선지(2021) 등이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구나’, ‘-네’의 개별 어미 탐구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나’와 ‘-네’를 같이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 어미를 다룬 연구를 소개한다.

8) 장경희(1985: 89-93)는 ‘-구나’로 발화되는 문장에서 ‘놀람’, ‘기쁨’의 느낌이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을 근거로 들며 ‘-구나’의 핵심 의미는 ‘처음 앎’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나’가 ‘기쁨, 놀람’등을 드러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9) 이 어미들을 설명할 때 ‘서법(mood)’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서법’이란 양태가 일정한 문법 범주로 실현된 형식 체계로 한국어의 양태 어미는 대부분 서법에 속하지 않으므로(임동훈 2011) 본고에서는 ‘양태’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10) 박재연(1999, 2004)에서 정리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은 아래와 같다.

가. 정보의 확실성 정도: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나. 정보의 출처: [지각], [추론], [인용]

2004)에 따르면 ‘-네’의 의미 기능은 [지각]을 통한 [새로 앎]이고 ‘-구나’의 의미 기능은 [지각] 또는 [추론]을 통한 [새로 앎]이다. 증거성과 의외성을 양태 범주에서 설명하는 다른 논의로는 정순화(2021)도 들 수 있다. 정순화(2021)는 양태를 넓은 범주로 파악하여 ‘-네’와 ‘-구나’의 핵심 의미로 ‘의외성’을 든다. 신선경(2001)은 ‘새로운 지각’이라는 양태 의미를 중심으로 ‘-군(요)’와 ‘-네(요)’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구나’와 ‘-네’를 모두 인식 양태의 범위에서 논의했다면 권익수(2013, 2015)는 개별 어미 ‘-네’에 의미 기능에 집중한 연구이다. ‘-네’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가 아님을 주장하는 정경숙(2012, 2014)를 반박하며 ‘-네’가 인식 양태 표지로서 주로 기능함을 설명한다.

‘-구나’, ‘-네’를 증거성의 범주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정인아(2010), 송재목(2014, 2015)이 있다. 증거성(evidentiality)은 ‘증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진술이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법 범주이다(정인아 2010: 18).¹¹⁾ 한국어에서 증거성 표지로 연구되는 어미로는 선어말 어미 ‘-더-’, ‘-겠-’, 종결 어미 ‘-구나’, ‘-네’, ‘-길래’, 문법 구성 ‘-(으)ㄴ가/았나/나 보-’, ‘-(으)ㄴ/는/(으)ㄴ 모양이-’ 등이 있다. 증거성은 연구자에 따라 인식 양태의 하위 범주로 인식되기도 하고(Palmer 1986) 인식 양태와 별개의 범주로 취급하기도 한다(Aikhenvald 2012).¹²⁾ 증거성을 인식 양태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연구에는 박재연(2014)이 있다. 박재연(2014)에 따르면 ‘-구나’, ‘-네’는 증거성을 포함하는 인식양태이다. 박재연(2014)은 ‘-구나’가 ‘-네’와 변별되는 지점이 ‘추론’의 속성임을 든다. ‘-구나’는 ‘새로 앎’의 속성을 가지고 증거의 관점에서 ‘지각’ 혹은 ‘추론’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는데 ‘지각’은 직접 지식의 하위 항목이고 ‘추론’은 간접 지식의 하위 항목이다. 증거성을 인식 양태와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보는 연구에는 정인아(2010)가 있다. 정인아(2010)에 의하면 ‘-구나’는 직접·간접 증거를 나타내고 ‘-네’는 직접 증거를 표현하는 증거성 표지이다. 송재목(2007)도 증거성과 인식 양태를 독립된 범주로 인식하는 쪽에 가깝다. 인식 양태에서 ‘지각, 직접 지식’으로 불리는 하위 범주는 전형적인 증거성 범주이므로 ‘-네’는 ‘현재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내는 직접 증거 표지라고 주장한다.

‘-구나’, ‘-네’의 의미를 의외성으로 파악한 연구로는 박진호(2011), 정경숙(2012) 조용준·하지희(2016), 정순화(2021)가 있다. 의외성(mirativity)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박진호 2011: 7)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새로 알게 된 것임을 나타낸다.¹³⁾ 한국어에서 의외성 표지로 언급되는 어미로는 선어말 어미 ‘-더-’와 종결 어미 ‘-네’, ‘-구나’, 문법 구성 ‘-(으)ㄴ가 보-’, ‘-(으)ㄴ/(으)ㄴ 것 같-’ 등이 있다. 박진호(2011)는 ‘-구나, ‘-네’는 새로 알게 된 사실

다.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라.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기지가정], [미지가정]

11) ‘evidentiality’는 ‘증거(박재연 2006)’, ‘확인법(구현정 1995)’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12) 장경희(1985)는 증거성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식 양태의 하위 범주로 취급한다. 박재연(1999, 2004)에서 다루어진 인식 양태는 증거성과 의외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송재목(2009: 49)은 인식 양태와 증거성을 별개의 범주로 구분해야 함을 주장한다.
13) 박진호(2011)는 ‘mirativity’가 ‘동화/내면화된 지식, 동화/내면화되지 않은 지식’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mirativity’를 ‘의외성’이라고 번역하면 ‘놀람’과 관련한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예측 신정보성(정인아 2010)’, ‘내면화(박재연 2013)’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외성을 핵심 성분으로 가지는 어미라고 한다. 조용준·하지희(2016)는 ‘-구나’, ‘-네’를 의외성 표지로 파악하여 이들 어미의 사회언어적 변이 현상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라’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정의되지만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고 쓰임이 한정되어 용례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라’는 다른 감탄형 종결 어미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어라’만을 단독으로 논의한 연구도 조용준(2017)이 유일하다. 특히 ‘-어라’가 결합하여 감탄형을 만드는 형용사에 대해서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확정한 논의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연구자들이 작례를 통해 언급한 형용사 중에는 적격성이 의심되는 용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조용준(2017) 역시 의미 자질을 제시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본고는 준구어 말뭉치에서 ‘-어라’가 결합하여 감탄형을 만드는 형용사를 확인하고 그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가 제시한 목록은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 중 사용 빈도가 높고 이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어간들의 목록이다.

본고가 ‘-어라’와의 비교 대상으로 채택한 ‘-구나’와 ‘-네’도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인식 양태, 증거성, 의외성의 의미 범주가 도입되며 두 어미의 본질적 의미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구나’, ‘-네’의 의미 기능을 어느 것으로 파악하든지 간에 대부분의 연구가 ‘-구나’, ‘-네’가 ‘감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구나’, ‘-네’를 ‘감탄’을 수반하는 어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구나’, ‘-네’를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로 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감탄형 어미에 대한 연구는 ‘-구나’와 ‘-네’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나’, ‘-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구나’, ‘-네’의 비교 대상에 ‘-어라’를 넣어 이들 어미가 실제 언어에서 가지는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본고가 밝힌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과 ‘-구나’, ‘-네’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비교한다면 ‘-어라’의 여러 특징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의 특징

이 장에서는 감탄형 ‘-어라’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고찰한다. 본격적 고찰에 앞서 본고는 감탄문을 한국어의 독립된 문장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최현배(1978: 256-6), 허용(1983: 225-7), 남기심(1971: 233, 2001: 387), 임동훈(2011: 333-338)에서 지적된 것처럼 평서문과 감탄문의 차이는 크지 않다. 무엇보다 간접 인용절에서 중화되는 해라체 종결 어미의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넷으로 감탄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종래에 감탄문 종결 어미로 논의된 어미를 감탄의 화행을 담당하는 종결형으로 받아 들여 평서문의 하위 부류인 감탄형 종결 어미로 다룬다.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의 특징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선행 어간 제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3.1.1.에서는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를 제시하고 그 부류의 문법적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 목록은 실제로 분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 형용사들로 그 목록에 없는 형용사라고 해서 ‘-어라’와의 결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¹⁴⁾ 다만 작례(作例)나 직관에 가능할 것 같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어라’의 특성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추출된 용례에 한해서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근거로 사용하는 예문이 준구어 말뭉치의 예문이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사용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작례(作例)보다 다양한 모습을 조명할 수 있고 예문의 조작성과 인위성 또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문법적 특징

3.1.1. 선행 어간 및 주어 제약

감탄형 ‘-어라’는 선행 어간 결합에 제약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실제 사용되는 목록을 확인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고는 ‘-어라’ 감탄형을 만들 수 있는 형용사를 조사하였다. ‘-어라’는 문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종결 어미이고 준구어 말뭉치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준구어 말뭉치를 주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고 부차적 자료로는 네이버에서 검색된 기사문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말뭉치에서 ‘-어라, -아라, -여라’의 검색식을 입력하면 형태가 동일한 명령형도 함께 조사된다. 선행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는 명령형과 감탄형의 구별이 쉬우나 선행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명령형과 감탄형의 형태가 같아 구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간접 인용 형태와 문형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탄형 ‘-어라’를 수작업으로 골라 내었다. 과정은 아래와 같다.

14) ‘-어라’와 결합하는 소수의 자동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진다.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는 조사되지 않아서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사가 있을 수 있다.

(1)에서 감탄형 ‘-어라’와 명령형 ‘-어라’는 선행 어간으로 형용사 ‘똑똑하다’를 취한다.

(1)

가. 아휴 똑똑해라!

(스포츠 경향, [남정미·김성신의 북톡카톡] ‘이상화된 가족’ 환상을 걷어내다, 2015년 8월 2일)

나. 당신이 여성이라면 무조건 똑똑해라.

(아시아 경제, 佛 대통령 사르코지는 만인의 연인, 2007년 11월 13일)

(1)의 ‘똑똑해라’를 간접 인용하면 ‘-어라’ 감탄형인지 ‘-어라’ 명령형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1')

가. A는 B에게 똑똑하다고 했다.

나. A는 당신이 여성이라면 무조건 똑똑하라고 했다.

(1')는 (1)을 간접 인용한 것이다. (1가)와 (1나)에서 화자는 모두 A로 설정하였다. (1가)의 ‘똑똑해라’는 (1'가)에서 해라체 평서형 종결 어미 ‘-다’로 바뀌었으므로 ‘-어라’ 감탄형이다. (1나)의 ‘똑똑해라’는 (1'나)에서 해라체 명령형 종결 어미 ‘-(으)라’로 바뀌었으므로 ‘-어라’ 명령형이다. 감탄형 ‘-어라’와 명령형 ‘-어라’를 가려내는 작업에서는 문형과 선어말 어미 ‘-시-’ 결합을 고려할 수 있다.¹⁵⁾ 일반적으로 감탄형 ‘-어라’는 (1가)와 같이 서술어 단독으로 나타나 감탄사, 호격어와 함께 나타나는 문형을 가진다. 본고는 (1가)의 ‘-어라’ 문형을 일반 문형이라 부른다.

3.1.1.1. 용언 어간

<표 3>은 본고의 주된 연구 자료인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언이다. 감탄형 ‘-어라’의 일반 문형에서 나타나는 용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용언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품사를 기준으로 동사 7개, 형용사 98개로 집계되었고 빈도순으로 나열하였다. []안의 수는 해당 단어의 빈도수이다.

15) 감탄형 ‘-어라’와 명령형 ‘-어라’의 차이에 대해서는 3.1.3.에서 상술하고 감탄형 ‘-어라’의 문형에 대해서는 3.1.4.에서 상술한다.

<표 3>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용언(이민 준구어 말뭉치)

품사	단어			개수
형용사	예쁘다(이쁘다)[121]	무섭다[51]	뜨겁다[49]	98개
	좋다[47]	고맙다[43]	아깝다[39]	
	불쌍하다[24]	따뜻하다[21]	착하다[20]	
	기특하다[19]	아프다[15]	귀엽다[13]	
	딱하다[12]	덥다[10]	미안하다[10]	
	반갑다[10]	신기하다[10]	끔찍하다[9]	
	망측하다[8]	기막히다[6]	당황스럽다[6]	
	부럽다[6]	가엾다(가엾다)[5]	놀랍다[5]	
	더럽다[5]	민망하다[5]	장하다[5]	
	감사하다[4]	곱다[4]	부끄럽다[4]	
	아름답다[4]	창피하다[4]	춡다[4]	
	답답하다[3]	분하다[3]	속상하다[3]	
	싫다[3]	자상하다[3]	재밋다[3]	
	죄송하다[3]	고소하다[2]	대견하다[2]	
	독하다[2]	똑똑하다[2]	멋지다[2]	
	무안하다[2]	시원하다[2]	심란하다[2]	
	어지럽다[2]	용감하다[2]	졸리다[2]	
	차갑다[2]	촌스럽다[2]	친절하다[2]	
	황송하다[2]	힘들다[2]	힘들다[2]	
	감격스럽다[1]	개운하다[1]	공손하다[1]	
	궁금하다[1]	깜찍하다[1]	남사스럽다[1]	
	다정하다[1]	달다[1]	맛나다[1]	
	맛있다[1]	미련스럽다[1]	보드럽다[1]	
	사납다[1]	사랑스럽다[1]	상쾌하다[1]	
	서럽다[1]	서운하다[1]	솔직하다[1]	
	순진하다[1]	싱싱하다[1]	쑥스럽다[1]	
	쓸쓸하다[1]	안쓰럽다[1]	알뜰하다[1]	
	야하다[1]	얄밧다[1]	억울하다[1]	
	영큼하다[1]	용하다[1]	원통하다[1]	
	위험하다[1]	이상하다[1]	재미없다[1]	
	즐겁다[1]	지겹다[1]	찬찬하다[1]	
치사하다[1]	편하다[1]	피곤하다[1]		
후끈하다[1]	흥측하다[1]	흥미진진하다[1]		
동사	놀라다[4]	신나라[3]	웃기다[3]	7개
	겁나라[1]	김새다[1]	떨리다[1]	
	설레다[1]			
합계				105개

<표 3>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감탄형 ‘-어라’와 일부 자동사가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어라’와 자동사의 결합에 대해서는 윤석민(2000: 138), 조용준(2017: 116)도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본고도 감탄형 ‘-어라’가 자동사에도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표 3>의 동사 목록 중 ‘웃기다’는 제외되어야 한다.

(2) 별 것도 아닌 일에 사내 자신이 눈물까지 그렁해가지곤, 아이고 웃겨라 정말.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22회, KBS2, 2004)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웃기다’가 자동사와 타동사로의 쓰임을 모두 가지는 동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 언어에서 ‘웃기다’는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해당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단어의 활용으로 알 수 있다. 해라체 종결형에서 동사는 ‘-ㄴ/는다’를 취하고 형용사는 ‘-다’를 취한다. 관형형에서 동사는 현재를 의미할 때는 ‘-는’, 과거를 의미할 때는 ‘-는’을 취하지만 형용사는 ‘-(으)ㄴ’만 취한다.

(3)

가. 하하하. 너무 웃기다. 원장님 배꼽도독이예요.

(박민정 외, 몽땅 내사랑 5회, MBC, 2010)

나. 지금 두 분 되게 웃긴 거 알아요?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11회, SBS, 2007)

(3)에서 ‘웃기다’는 형용사로 활용하므로 본고는 (2)의 ‘웃겨라’를 형용사 ‘웃기다’에 ‘-어라’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웃기다’가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윤석민(2000: 138)에서 제시된 ‘놀라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

가. 아이구, 놀라라. 왜 그렇게 문을 광 달니?

(윤석민 2000: 138)

나. 아이고 놀라라~

(이숙진, 단팔빵 4회, MBC, 2004)

윤석민(2000: 138)은 (4가) ‘놀라라’를 동사 ‘놀라다’에 반말어미 ‘-아’가 붙어 형성된 ‘놀라’에서 마지막 음절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것이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해석하며 ‘아이고 놀라라’에서 ‘아이고 놀라’로 말하여도 의미가 통한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필자에게 ‘아이고 놀라’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다.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도 ‘놀라’의 용례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윤석민의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4)의 ‘놀라라’가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어라’ 감탄형에는 ‘놀라라’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놀래라’도 있었다.

(5) 와! 놀래라.

(여지나, 결혼 못하는 남자 3회, KBS2, 2009)

(5)는 ‘놀래다’에 ‘-어라’가 결합한 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인데 (5)의 ‘놀래라’는 (5)의 ‘놀라라’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다른 단어인 ‘놀라다’와 ‘놀래다’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현실 언어에서 ‘놀래다’의 사용이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과 다르기 때문이다. 유필재(미간행: 60-61)에 따르면 표준어의 ‘놀라다’는 현실 언어에서 ‘놀래다’로 사용된다.¹⁶⁾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도 ‘놀라라’의 빈도수는 4회에 불과했으나 ‘놀래다’의 빈도수는 162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용준(2017: 123-125)은 윤석민(2000: 138)에서 제시된 ‘놀라다’ 외에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류의 일부를 더 제시하였다.

(6)

가. 졸리다, 거슬리다, (어깨) 결리다, (손/심장/가슴/살) 떨리다, 헛갈리다

나. 감질나다, 겁나다, 땀나다, 맛나다, 싫증나다, 욕심나다, 재미나다, 질리다, 탐나다
화나다

다. 근질거리다, 두근거리다, 따끔거리다, (심장)벌렁거리다, 욱신거리다,
(심장/가슴) 울렁거리다.

라. 긴장되다, 흥분되다

마. 설레다, (어깨/허리) 쭈시다

(조용준 2017: 124)

조용준(2017)에 의하면 (6)은 한송화(2000)의 분류를 기준으로 ‘심리 자동사’에 속하는 예들로서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나 감각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어라’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6)에는 ‘거슬리다, 결리다, 쭈시다’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형용사’로 분류하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다.¹⁷⁾ 또한 조용준(2017)은 맥락에 따라 동사와 부사 ‘잘’이 결합하면 정도성을 지니게 되어 ‘-어라’와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며 (7)을 제시하였다.

16) 표준어의 ‘놀래다’는 현실 언어에서 ‘놀래키다’로 사용된다(유필재 미간행: 60-61).

17) 유현경(1998: 109-113, 318-319)은 ‘결리다’, ‘쭈시다’가 종결형 ‘-나다’, 관형사형 ‘-는’을 취한다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감각 형용사와 너무나 흡사하다며 ‘결리다’, ‘쭈시다’를 감각 형용사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거슬리다’도 부사와의 서법 형태와의 어울림에서 형용사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형용사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7)

가. 아이구, 잘 보여라.

나. 아이구, 잘 들려라.

(조용준 2017: 126)

(7)에서 ‘보이다’와 ‘들리다’는 근본적으로 정도성을 지닐 수 없는 동사이다. 그러나 부사 ‘잘’과 결합하여 화자의 감각적 정보를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고 그래서 ‘-어라’와의 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조용준(2017)의 설명이다. 한송화(2000: 201)를 보면 ‘보이다’, ‘들리다’와 같은 부류의 형용사로 ‘느껴지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용준(2017)의 설명대로라면 ‘느껴지다’도 화자의 감각적 정보를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잘 느껴져라’가 가능해야 하지만 필자에게 ‘잘 느껴져라’는 어색하다. 이는 조용준(2017)의 주장이 항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 부차적 자료인 네이버 기사문을 활용하여 (6), (7) 중 실제 사용된 예가 있는지를 다시 조사하였다.

<표 4>는 본고가 수집한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자동사 어간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네이버 기사문, 사전에서 용례가 확인되어 새로 추가된 단어는 앞에 ‘+’를 표시하였다.

<표 4>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자동사 목록

단어			개수
겁나다	김새다	놀라다	9개
+땀나다	떨리다	+붐비다	
설레다	신나다	+헛갈리다(헛갈리다)	

조용준(2017)이 지적한 바와 같이 <표 4>의 자동사들은 한송화(2000)의 분류를 기준으로 ‘심리 자동사’에 속한다. 심리 자동사란 경험주가 주어인 동사로 ‘어떠한 느낌이나 감각을 경험함’을 서술하는 의미를 가진다. 심리 자동사는 제2명사구와 격틀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뉘는데 이들 중 대상 심리 자동사Ⅱ는 그 격틀과 의미에 있어서 형용사와 매우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 <표 4>에서 대상 심리 자동사Ⅱ에 속하는 자동사로는 ‘신나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심리 자동사가 ‘-어라’ 감탄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겁먹어라, *내켜라, *맞아라, *미쳐라, *믿겨라, *틀려라

(8)에서 ‘-어라’의 선행 어간은 모두 한송화(2000)에서 심리 자동사로 분류되는 예이다. 특히 ‘내키다, 맞다, 틀리다’는 대상 심리 자동사Ⅱ로 분류되는 자동사이지만 ‘-어라’와의

결합이 어색하다. (8)의 예 중 ‘맞다’와 ‘틀리다’가 비문인 것은 조용준(2017)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¹⁸⁾ ‘겁먹다, 내키다, 믿기다, 미치다’가 비문인 것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어라’는 모든 심리 자동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본고의 조사 자료에서 ‘-어라’와 결합이 확인된 자동사의 예는 8개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심리 자동사’가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는 조용준의 논의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표 4>의 자동사가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를 취하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를 취한다는 점, ‘-어 하-’ 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설레다, 놀라다, 붐비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합어라는 점, ‘겁나다, 땀나다, 신나다’와 같이 후부 요소가 ‘나다’인 것과 대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승희(1996: 37)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세국어의 ‘-애/에라’는 자동사나 타동사와도 결합한다.

(9)

가. 大王스말쓰미사 올커신마른 내 뜨데 몬 마재이다

(월인석보 8: 97a)

나. 陵室에 뵈스오물 붓그레라 헝시고

(내훈 2上: 55b)

다. 늘근 어미 이세라 헝야

(번역소학 9: 20b)

장윤희(2002: 259)에서 제시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10)

가. 目連이 날오디 몰라보애라

(월인석보 23: 86b)

나. 그 가히 날오디 내 긴 劫에 가히 모미 두외야 사르미 쏘을 머구문 헝려니와
地獄 소리 드로물 두레라

(월인석보 23: 91a)

다. 슬피 울어 날오디 늘근 어미 이세라

(삼강행실도 효자도: 6a)

(9), (10)는 ‘-어라’의 중세국어형 ‘-애/에라’가 동사와 결합한 예이다. (9가)는 ‘맞다’를 의미하는 ‘맞-’에 ‘-에이다’가 결합하였다, (9나)는 ‘부끄러워하다’를 의미하는 ‘붓그리-’, (10가)는 ‘몰라보-’를 의미하는 ‘몰라보-’, (10나)는 ‘두려워하-’를 의미하는 ‘두리-’에 ‘-

18) 조용준(2017)도 ‘맞아라’와 ‘틀러라’를 비문으로 보았다. 우선 조용준(2017: 125-126)은 ‘맞다’와 ‘틀리다’를 형용사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의미적 개념인 정도성(gradability)과 관련하여 정도성을 지니지 못한, 의미상으로 범주적 구분을 하는 용언이기 때문에 ‘-어라’와 결합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애/에라'가 결합한 예이다. (9다), (10다)는 '있다'를 의미하는 '이시-'에 '-애/에라'가 결합한 예이다.

<표 5>는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고 네이버 기사문, 사전에서 추출된 형용사를 포함한 것이다. 네이버 기사문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전수 조사할 수 없으므로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였다. 네이버 기사문, 사전에서 용례를 발견하여 새로 추가된 단어는 앞에 '+'를 표시하였다.¹⁹⁾ 『표준국어대사전』의 품사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였으나 '웃기다'는 앞선 논의에 따라 형용사에 포함하였다.

19) 본고의 연구 대상은 구어에서 사용되는 감탄형 '-어라'이므로 사용역(register)을 고려하여 시나 노래가사에서 나타나는 감탄형 '-어라'는 주된 논의 자료로 삼지 않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5>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용언(이민 준구어 말뭉치, 네이버 기사문, 사전)

품사	단어			개수
형용사	가엾다(가엾다)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108개
	개운하다	고맙다	고소하다	
	곱다	공손하다	궁금하다	
	귀엽다	기막히다	기특하다	
	깜찍하다	끔찍하다	+날씬하다	
	남사스럽다	놀랍다	다정하다	
	달다	답답하다	당황스럽다	
	대견하다	더럽다	덥다	
	독하다	따뜻하다	딱하다	
	똑똑하다	뜨겁다	맛나다	
	맛있다	망측하다	+맵다	
	멋지다	무섭다	무안하다	
	미런스럽다	미안하다	민망하다	
	반갑다	보드럽다	부끄럽다	
	부럽다	분하다	불쌍하다	
	+뻘뻘하다	사납다	사랑스럽다	
	상쾌하다	서럽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솔직하다	순진하다	
	시원하다	신기하다	싫다	
	심란하다	싱싱하다	쑥스럽다	
	쓸쓸하다	아깝다	아름답다	
	아프다	안스럽다	알뜰하다	
	야하다	얄밋다	어지럽다	
	억울하다	영큼하다	+야무지다	
	예쁘다(이쁘다)	용감하다	용하다	
	+우습다	웃기다	원통하다	
	위험하다	이상하다	자상하다	
	장하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밌다	졸리다	좋다	
	죄송하다	즐겁다	지겹다	
	+짓궂다	차갑다	착하다	
	찬찬하다	창피하다	촌스럽다	
	춡다	치사하다	친절하다	
편하다	피곤하다	+행복하다		
황송하다	후끈하다	흉측하다		
흥미진진하다	+희한하다	힘들다		
동사	겁나다	김새다	놀라다	9개
	+땀나다	떨리다	+붐비다	
	설레다	신나다	+헛갈리다(헛갈리다)	
	합계			117개

그런데 <표 5>의 108개의 어간 목록이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의 총 목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표 5>의 형용사는 감탄형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배타적인 목록이 아니라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여 실제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가능성이 높은 형용사 목록이다. 본고의 논의 관점에서 <표 5>를 해석한다면 ‘예쁘다’는 감탄형 ‘-어라’와 잘 사용되는 형용사이고 ‘크다’는 감탄형 ‘-어라’와 잘 사용되지 않는 형용사이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13,394개의 형용사 중 ‘걱정스럽다’와 같이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가 있는가 하면 ‘거페스럽다’와 같이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가 있는 것과 같다.

‘좋다, 바람직하다’처럼 ‘-지 못하-’와 결합하여 {不及}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른바 ‘긍정 형용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그 결과 이들의 공통된 의미 자질도 ‘긍정’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는 그 수가 많으므로 <표 5>에 드러나지 않은 어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가 스스로 만든 작례(作例) 중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용례가 있었다. 이들의 차이는 현재로써는 사용가능성 또는 빈도의 차이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형용사 목록은 감탄형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 중 사용 빈도가 높고 이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간들의 목록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본고는 <표 5>에 제시된 감탄형 ‘-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를 서술의 편의를 위해 ‘감탄형 형용사’로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지 못하-’가 결합하여 ‘불급’의 의미를 표시하는 ‘긍정 형용사’나 ‘-어라’가 결합하여 명령형을 만드는 형용사를 ‘의지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 다루는 형용사 부류 역시 공통된 의미나 문법 특징을 포착하여 명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조사 방법 또한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임의로 ‘감탄형 형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정교한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논문에서 다루는 ‘감탄형 형용사’ 부류도 더 커지고 보다 섬세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계가 되면 이 부류의 형용사들이 가지는 공통의 의미 자질도 드러날 수 있고 정식 명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감탄형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표 5>의 형용사를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²⁰⁾ 본고의 형용사 분류는 유현경(1998, 2000)의 목록을 참고하였고 유현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형용사는 김정남(2001, 2005)의 목록을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따라 형용사를 분류한 뒤에는 형용사의 부류를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였다. 2차 분류 기준인 김정남(2005) 유형 목록에서 ‘감각, 감각적 평가’는 ‘감각 형용사’, ‘정서, 정서적 평가’는 ‘심리 형용사’, ‘성질, 태도, 형상’은 ‘성상 형용사’로 포함하였다. 유현경(1998, 2000), 김정남(2001, 2005)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류하지 못한 26개의 단어는 유현경(1998)의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²¹⁾

20) 지금까지 형용사 분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형용사 전반의 분류를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최현배(1978), 유현경(1998, 2000), 김건희(2005), 김정남(2005)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등 특정 형용사 부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이다. 이익섭(1978), 김창섭(1985), 남지순(1993), 김세중(1994) 등이 있다. 초기의 논의는 형용사의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반해 최근의 논의들은 격투과 문법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11), (12), (13)은 유현경(1998)을 참고하여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11)은 심리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이다. 대표적인 심리 형용사에는 ‘부럽다’가 있다.

(11)

가. ‘NP₁-가 NP₂-가 Adj’ 또는 ‘NP₁-가 (NP₂-가) Adj’의 구문을 취한다.

나. NP₁은 [+human]의 자질을 가지는 경험주이다.

다.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 사용되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 사용된다.

라. NP₂는 생략될 수 있으며 명사구나 일반 명사가 온다.

마. 보조 동사 ‘-어 하다’와 결합하여 대응된다.

바.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한다.

(12)는 감각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이다. 대표적인 감각 형용사에는 ‘아프다’가 있다.

(12)

가. ‘NP₁-가 (NP₂-가) Adj’의 구문을 취한다.

나. NP₁은 [+human]의 자질을 가지는 경험주이다.

다.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 사용되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 사용된다.

라. NP₂에는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오는데 보통 주어의 몸의 일부이다.

마. 보조 동사 ‘-어 하다’와 결합하여 대응된다.

바. 경험주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에 느끼는 감각 상태를 서술한다.

(13)은 성상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이다. 대표적인 성상 형용사에는 ‘곱다’가 있다.

(13)

가. ‘NP-가 Adj’의 구문을 취한다.

나. 서술어에 있는 속성 자질이 NP의 의미 자질에 없으면 NP₂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다. 주어의 속성이나 상태를 서술한다.

21) 본고는 형용사 분류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형용사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유현경(1998)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27개의 단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손하다, 깜찍하다, 놀라다, 당황스럽다, 맛나다, 망측하다, 맵다, 미련스럽다, 심란하다, 야무지다, 야하다, 알밋다, 영큼하다, 웃기다, 자상하다, 장하다, 졸리다, 짓궂다, 찬찬하다, 촌스럽다, 치사하다, 황송하다, 후끈하다, 흥측하다, 흥미진진하다, 희한하다, 힘들다

<표 6>은 선행 연구와 (11), (12), (13)을 참고하여 <표 5>의 형용사를 유형 분류한 것이다.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였다.

<표 6>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 유형 분류

	형용사	유형		형용사	유형
1	가엎다(가엎다)	심리	56	신기하다	심리
2	감격스럽다	심리	57	싫다	심리
3	감사하다	심리	58	심란하다	심리
4	개운하다	감각	59	싱싱하다	정상
5	고맙다	심리	60	쑥스럽다	심리
6	고소하다	심리, 정상	61	쉴쉴하다	심리
7	굽다	정상	62	아깝다	심리
8	공손하다	정상	63	아름답다	정상
9	궁금하다	심리	64	아프다	감각
10	귀엽다	심리, 정상	65	안쓰럽다	심리
11	기막히다	심리	66	알뜰하다	정상
12	기특하다	심리	67	야하다	정상
13	깜찍하다	심리, 정상	68	얕밟다	심리
14	끔찍하다	심리	69	어지럽다	감각
15	날씬하다	정상	70	억울하다	심리
16	남사스럽다	심리, 정상	71	영큼하다	정상
17	놀랍다	심리	72	야무지다	정상
18	다정하다	정상	73	예쁘다(이쁘다)	심리, 정상
19	달다	감각, 정상	74	용감하다	정상
20	답답하다	심리, 정상	75	용하다	정상
21	당황스럽다	심리	76	우습다	심리, 정상
22	대견하다	심리	77	웃기다	심리
23	더럽다	심리, 정상	78	원통하다	심리
24	덥다	감각	79	위험하다	정상
25	독하다	정상	80	이상하다	정상

26	따뜻하다	정상	81	자상하다	정상
27	딱하다	심리	82	장하다	심리, 정상
28	똑똑하다	정상	83	재미없다	심리
29	뜨겁다	감각, 정상	84	재미있다	심리
30	맛나다	감각, 정상	85	재밌다	심리
31	맛있다	감각, 정상	86	졸리다	심리, 감각
32	망측하다	심리	87	좋다	심리, 정상
33	맵다	감각, 정상	88	죄송하다	심리
34	멋지다	심리, 정상	89	즐겁다	심리
35	무섭다	심리, 정상	90	지겹다	심리
36	무안하다	심리	91	짓궂다	정상
37	미련스럽다	심리, 정상	92	차갑다	감각, 정상
38	미안하다	심리	93	착하다	정상
39	민망하다	심리	94	찬찬하다	정상
40	반갑다	심리	95	창피하다	심리
41	보드럽다	감각, 정상	96	촌스럽다	심리, 정상
42	부끄럽다	심리	97	춡다	감각, 정상
43	부럽다	심리	98	치사하다	심리, 정상
44	분하다	심리	99	친절하다	정상
45	불쌍하다	심리, 정상	100	편하다	감각
46	뻘뻘하다	정상	101	피곤하다	감각
47	사납다	정상	102	행복하다	심리
48	사랑스럽다	심리, 정상	103	황송하다	심리
49	상쾌하다	심리	104	후끈하다	감각, 정상
50	서럽다	심리	105	흥측하다	정상
51	서운하다	심리	106	흥미진진하다	정상
52	속상하다	심리	107	희한하다	정상
53	솔직하다	정상	108	힘들다	심리, 감각
54	순진하다	정상			
55	시원하다	감각, 정상			

유현경(1998)의 형용사 분류에 의하면 한국어의 형용사는 크게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 제약 형용사로 나뉜다. 주관 형용사는 다시 심리, 감각, 판단 형용사로 나뉘고 객관 형용사는 성상, 장소 교차, 대칭, 기준, 소유, 소재, 가능, 대응, 태도 형용사로 나뉜다. 제약 형용사는 보문, 불구 형용사로 나뉜다. 그런데 이 중 '-어라' 감탄형을 만들 수 있는 형용사는 심리, 감각, 성상 형용사 뿐이다.

(14)

*괜찮아라, *약자해라, *같아라, *다름없어라, *있어라, *유의해라, *알맞아라,
*당연해라

(14)의 형용사는 심리, 감각, 성상 형용사가 아닌 형용사의 예이다. 유현경(1998)에 따르면 '괜찮다'는 판단 형용사, '약자하다'는 장소 교차 형용사, '같다'는 대칭 형용사, '다름없다'는 기준 형용사, '있다'는 소유, 소재 형용사, '유의하다'는 가능 형용사, '알맞다'는 대응 형용사, '당연하다'는 태도 형용사이다.

그러나 하나의 형용사가 하나의 유형에만 속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판단, 장소 교차, 대칭, 기준, 소유, 소재, 가능, 대응, 태도 형용사라도 심리, 감각, 성상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어라' 감탄형이 가능하다. 감탄형 형용사 역시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에 따라 배타적 분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형용사가 여러 유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²²⁾ 선행 연구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고소하다, 귀엽다, 깜찍하다, 남사스럽다' 등은 심리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성상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달다, 뜨겁다, 맛나다, 맛있다' 등은 감각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성상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²³⁾

<표 7>은 <표 6>에서 심리 형용사에 속하는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심리 형용사를 취하는 경우 주어 자리에는 1인칭이 오는데 이는 심리 형용사가 (11다)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22) 이는 하나의 형태로 최대한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언어 경제성의 원리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유현경 1998: 38).

23) 이는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형용사도 여러 유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 7>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심리 형용사 목록

단어			개수
가엎다(가엎다)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63개
고맙다	고소하다	궁금하다	
귀엽다	기막히다	기특하다	
깜찍하다	끔찍하다	남사스럽다	
놀랍다	답답하다	당황스럽다	
대견하다	더럽다	딱하다	
망측하다	멋지다	무섭다	
무안하다	미련스럽다	미안하다	
민망하다	반갑다	부끄럽다	
부럽다	분하다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상쾌하다	서럽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신기하다	
싫다	심란하다	쑥스럽다	
쓸쓸하다	아깝다	안쓰럽다	
알밋다	억울하다	예쁘다(이쁘다)	
우습다	웃기다	원통하다	
장하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밌다	졸리다	좋다	
죄송하다	즐겁다	지겹다	
창피하다	촌스럽다	치사하다	
행복하다	황송하다	힘들다	

본고는 앞선 논의에서 형용사로 사용되는 ‘웃기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웃기다’는 심리 형용사이다. 심리 형용사는 평서문일 때 주어와 화자가 일치해야 하고 의문문일 때 주어와 청자가 일치해야 하는 인칭제약이 있다(유현경 1998: 69).

(15)

가. {나는, *너는, *그는} 니가 더 웃겨.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27회, KBS1, 2005-2006)

나. {*나는, 너는, *그는} 이게 웃기니?

(김진영, 영화 청담보살, 2009)

‘웃기다’도 심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평서문에서는 (15가)와 같이 1인칭 주어를 취하고

의문문에서는 (15나)와 같이 2인칭 주어를 취한다. 심리 형용사의 인칭 제약은 추측의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해소가 가능하다(유현경 1998: 43)

(16) {내가, 네가, 그가} 늙어서도 이려고 놀면 웃기겠다, 그쵸.

(김도우, 눈사람 3회, MBC, 2003)

(16)은 ‘웃기다’가 ‘-겠-’과 결합하여 주어 제약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웃기다’는 ‘-어 하-’ 대응을 가진다.

(17) 은근히 웃겨 하는 표정

(이재순 외, 궁 18회, MBC, 2007)

본고는 (15, 16, 17)을 근거로 하여 ‘웃기다’를 심리 형용사로 분류한다.

<표 8>은 <표 6>에서 감각 형용사에 속하는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감각 형용사를 취하는 경우 주어 자리에는 1인칭이 오는데 이는 감각 형용사가 (12다)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표 8>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감각 형용사 목록

단어			개수
개운하다	달다	덥다	18개
뜨겁다	맛나다	맛있다	
맵다	보드랍다	시원하다	
아프다	어지럽다	졸리다	
차갑다	춥다	편하다	
피곤하다	후끈하다	힘들다	

감각 형용사는 NP₁이 생략되어 NP₂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각 형용사의 NP₂는 주로 주어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략된 NP₁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덥다, 뜨겁다, 시원하다’ 등은 NP₂에 계절이나 날씨와 같은 일반 명사를 취하기도 한다.

(18)

가. 감기 초기 증상처럼 몸이 좀 춥고

(김인영, 결혼하고 싶은 여자 13회, MBC, 2004)

나. 날이 춥다.

(노희경, 화려한 시절 11-20회, SBS, 2002)

다. 몸이 항상 덥다.

(산업일보, [칼럼] 몸에 열이 많은 당뇨 증상 환자, 당뇨 원인은? 2020년 3월 11일)

라. 날씨가 벌써 덥다.

(여지나, 결혼 못하는 남자 1회, KBS2, 2009)

마. 나 감기 기운 있나봐. 얼굴이 뜨거워.

(박해영, 90일, 사랑할 시간 6회, MBC, 2006)

바. 방바닥이 뜨겁다.

(정유경,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회, MBC, 2006)

유현경(1998, 2000)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18가), (18다), (18마)는 NP₂에 ‘몸’, ‘얼굴’ 등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나타난 감각 형용사이고 (18나), (18라), (18바)는 ‘날’, ‘날씨’, ‘방바닥’이 NP₂에 나타난 성상 형용사이다. ‘날’, ‘날씨’, ‘방바닥’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

가. 아이 춥라.

(박진숙, 마당 깊은 집 5회, MBC, 1990)

나. 아이구 더워라. 시원한거 없니?

(송지나 외, 달팽이 5회, SBS, 1997)

다. 아 뜨거워라.

(노컷뉴스, 문유석 “전직 판사인 내가 ‘사적 복수극’ 쓴 이유”, 2023년 11월 14일)

그러나 (18)의 상황에 ‘-어라’를 발화하면 모두 (19)처럼 나타난다. ‘춥다, 덥다, 뜨겁다’가 감각 형용사이든 성상 형용사이든지 간에 모두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표 9>는 <표 6>에서 성상 형용사에 속하는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성상 형용사는 주어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20) {나는, 너는, 그는} 솔직하다.

(20)은 성상 형용사가 주어의 인칭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를 ‘솔직해라’로 발화하게 되면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지 못한다. 이는 ‘-어라’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표 9>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성상 형용사 목록

단어			개수
고소하다	곱다	공손하다	57개
귀엽다	깜찍하다	날씬하다	
남사스럽다	다정하다	달다	
답답하다	더럽다	독하다	
따뜻하다	똑똑하다	뜨겁다	
맛나다	맛있다	맵다	
멋지다	무섭다	미런스럽다	
보드랍다	불쌍하다	뻘뻘하다	
사납다	사랑스럽다	솔직하다	
순진하다	시원하다	싱싱하다	
아름답다	알뜰하다	야무지다	
야하다	영큼하다	예쁘다(이쁘다)	
용감하다	용하다	우습다	
위험하다	이상하다	자상하다	
장하다	좋다	짓궂다	
차갑다	착하다	찬찬하다	
촌스럽다	춥다	치사하다	
친절하다	후끈하다	흥측하다	
흥미진진하다	희한하다		

성상 형용사는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람 명사가 아닌 명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형용사가 다의어인 경우 의미에 따라 결합하는 주어가 달라질 수 있다.

(21)

가. 날씨가 참 따뜻해요.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93회, MBC, 2006-2007)

나. 꽃비가 워낙 애가 따뜻해요.

(박은령, 두 번째 프로포즈 1-16회, KBS2, 2004)

(21)에서 ‘따뜻하다’는 성상 형용사이다. (21가)처럼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의 의미로 쓰이면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가 올 수 없다. (21나)처럼 ‘감정, 태도, 분

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하다'의 의미로 쓰이면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가 올 수 있다. 다의어가 아닌 경우에도 선행하는 명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합하는 주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22)

가. 품질이 좋습니다.

(정성희, 국회 1-20회, MBC, 1999)

나. 우선 집안이 좋아요.

(김정수, 그대 그리고 나 6회, MBC, 1997)

(22)에서 '좋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를 의미하는 정상 형용사이다. (22가)의 주어에는 사람 명사가 올 수 없지만 (29나)의 주어에는 사람 명사가 올 수 있다. <표 9> 중 '고소하다, 달다, 맛나다, 맛있다, 보드랍다, 흥미진진하다'를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는 모두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를 취할 수 있다.

(23)

가. 아유 고와라.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은필이 마음을 녹였나 했더니 정말 곱네요.

(유현미, 즐거운 나의 집 2회, MBC, 2010)

나. 정말 연락 끊고 산 거야? 허유 독해라 독해라.

(이선희 외, 에어시티 2회, MBC, 2007)

(23)에서 '곱다', '독하다'는 '좋다'와 같이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 비 사람 명사를 취할 수도 있는 형용사이다. 그런데 '곱다', '독하다'가 (23)과 같이 주어로 사람 명사를 취하게 되면 화자는 (23가)처럼 주어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23나)처럼 주어의 성질을 평가할 수 있다. 김은영(2004), 박재남(2015)은 (23나)처럼 사람 명사의 성질을 평가하는 형용사를 성격 형용사라는 단어 부류로 분류하였다. 특히 박재남(2015: 136-137)에서는 성격 형용사의 추출을 위한 검증의 틀로 '그 사람의 성격이 Adj.'를 제시하였다. <표 10>은 성격 형용사의 틀에 적합한 형용사를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²⁴⁾ 정상 형용사 57개 중 17개가 성격 형용사에 속한다.

24) 박재남(2015)은 '좋다, 나쁘다, 평범하다, 유별나다' 등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만을 기술하여 구체적인 성격적 요소가 의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용사는 성격 형용사에서 제외하였다. 본고도 이에 따라 '좋다, 이상하다, 더럽다'를 성격 형용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10>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성격 형용사 목록

단어			개수
공손하다	답답하다	독하다	17개
따뜻하다	똑똑하다	사랑스럽다	
솔직하다	순진하다	알뜰하다	
야무지다	영큼하다	용감하다	
자상하다	차갑다	착하다	
찬찬하다	친절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감탄형 ‘-어라’는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진다. ‘-어라’와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에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가 있다.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가 ‘-어라’와 결합하면 주어 자리에 1인칭만 온다. 이는 심리 형용사와 감각 형용사의 특성 때문이다. 성상 형용사가 ‘-어라’와 결합하면 주어 자리에는 1인칭이 오지 못한다. 성상 형용사는 주어 자리에 1인칭을 취할 수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는 ‘-어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상 형용사의 하위 부류에는 사람 명사의 성질을 평가하는 ‘성격 형용사’가 있는데 성격 형용사는 대체로 ‘-어라’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3.1.1.2. 구(句) 구성

‘-어라’는 3.1.1.1.처럼 용언 어간에만 결합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구(句) 구성도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24)는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발견한 예이다.

(24) 어이구 오지랴도 넓으셔라.

(정지우, 내사랑 못난이 1-20회, SBS, 2006)

(24)의 ‘넓다’는 본고가 제시한 감탄형 형용사 목록에 없는 형용사이다. 그러나 ‘넓으셔라’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넓다’가 용언 어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24)에서 ‘-어라’의 선행 어간은 ‘넓다’가 아닌 ‘오지랴이 넓다’이기 때문에 구(句) 구성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어휘부(lexicon)의 개념에서 ‘넓다’와 ‘오지랴이 넓다’는 다른 어휘소(lexeme)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다. 관용구(idiom) ‘오지랴이 넓다’는 ‘넓다’가 가지는 {wide}의 의미와는 상당히 떨어져 {nosy}, 즉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도 두 어휘소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어휘부에는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구도 별개의 어휘소로 등재되어 있다고 가정되는데(David Crystal 2003: 265-266) (24)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실증적인 예인 것이다.

<표 11>은 ‘-어라’와 결합하는 관용구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관용구는 각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는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관용구를 취하는 경우 모두 ‘-시-’를 결합하고 있었다. 이는 감탄형 ‘-어라’가 관용구와 결합하면 주어 자리에는 2, 3인칭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1>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관용구 목록

	관용구	의미
1	오지랴(이) 넓다	「1」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 「2」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
2	눈치(가) 빠르다	남의 마음을 남다르게 빨리 알아채다.
3	꿈도 야무지다	희망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비꼬아 이르는 말.
4	간(이) 크다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

관용구는 선행 명사항이 고정되어 있어 다른 명사로 바꿀 수 없다. ‘오지랴가 넓다’에서 ‘오지랴’를 ‘마음’이나 ‘이해심’으로 바꾸면 의미의 특수성이 사라진다. 관용구처럼 의미의 특수성을 가지지 않지만 명사에 후행하는 성상 형용사의 의미가 기본 의미에서 멀어진 <표 12>의 형용사구도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표 12>는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구를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형용사구는 관용구와 달리 선행 명사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사용되는 명사도 함께 제시하였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형용사구를 취하는 경우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지 못한다.

<표 12>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구 목록

	형용사	명사
1	길다	기력지
2	깊다	속
3	넓다	마음, 이해심
4	많다	복, 욕심, 의심
5	바르다	예의
6	예쁘다(이쁘다)	마음, 목소리, 손, 손인사
7	좋다	금슬, 마음씨, 배짱, 손재주, 재주, 체격, 힘
8	지나치다	농담, 착각
9	크다	꿈, 통
10	험악하다	말씀

<표 12>의 형용사구도 명사와 성상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명사와 성상 형용사가 결합하는 모든 형용사구가 감탄형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방이 넓다’를 ‘방도 넓어라’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표 12>의 ‘마음이 넓다’는 ‘마음도 넓어라’로 말하는 것은 ‘방도 넓어라’ 보다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느껴진다. 이는 ‘마음이 넓다’가 ‘오지랴이 넓다’처럼 의미가 특수화되지는 않았지만 ‘방이 넓다’ 보다는 ‘오지랴이 넓다’에 가까운 부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12>의 형용사들은 ‘방이 넓다’처럼 명사와 형용사의 중심 의미가 살아 있는 일반 형용사구와 명사와 형용사의 중심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제3의 의미를 지니게 된 관용구의 중간 범주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표 11>, <표 12>의 형용사구 중 ‘좋다, 야무지다, 예쁘다’를 제외한 다른 형용사들은 형용사 단독으로 사용된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표 11>, <표 12>에서 명사에 후행하는 성상 형용사는 용언 단일 어간으로 사용되면 기본적 의미를 나타내어 주어에 부정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지만 형용사구로 사용되면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고 주어에 사람 명사가 온다.²⁵⁾

감탄형 ‘-어라’가 <표 11>의 관용구와 <표 12>의 형용사구를 선행 어간으로 취하는 경우 선행 명사에는 언제나 보조사 ‘도’가 결합한다.

(25)

가. 암튼 생각할수록 반감독이 간이 크다.

(정유경, 반달곰 내 사랑 10회, MBC, 2001)

나. 꿈이 참 크네.

(티브이데일리, 세계정복의 꿈? ‘단독 1만원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2012년 8월 20일)

(25가)는 관용구 ‘간(이) 크다’이고 (25나)는 형용사구 ‘꿈(이) 크다’이다. (25)에서 ‘간’과 ‘꿈’ 뒤에 나타나는 조사 ‘이’는 생략되어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용구, 형용사구에 ‘-어라’가 결합하면 ‘이’가 나타나는 자리에 ‘도’가 나타난다.

(26)

가. 간도 커라.

나. 꿈도 참 커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조사 ‘도’는 놀라움이나 감탄 등 감정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감탄을 나타내는 ‘도’를 고영근(1995)은 정감을 나타내는 양태로 보았고 함병호(2011)는 증거 양태로 보았다.

25) ‘마음이 넓다’, ‘오지랴이 넓다’가 ‘방이 넓다’보다 자연스러운 것은 ‘넓다’에 선행하는 명사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방’은 구체적 대상이지만 ‘마음’과 ‘오지랴’은 추상적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보조사 ‘도’는 감탄형 형용사 중 ‘하다’ 용언의 어근 분리에도 나타난다.

(27)

가. 자상도 해라.

(헤럴드 POP, 김성오 원빈 언급 “자상해서 동성애자 오해”, 2013년 10월 13일)

나. 어머~ 자상도 하셔라.

(임현경, 공주가 돌아왔다 6회, KBS2, 2009)

(27)은 ‘하다’ 용언인 ‘자상하다’에서 어근인 ‘자상’이 접사 ‘하다’와 분리되어 나타난 예이다. 분리된 어근과 접사 사이에는 보조사 ‘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 ‘도’는 다른 조사로 바뀌어 말할 수 없다.²⁶⁾

다음으로 논의할 구성은 ‘싶다’이다. ‘싶-’은 보조 형용사로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못한다.

(28)

가. 아, 차도경 보고 싶다!

(임현경, 공주가 돌아왔다 5회, KBS2, 2009)

나. 얼굴만이라두 한번 봤으면 싶다.

(최윤정,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30회, KBS2, 2002)

다. 인제야 그 결실을 보는가 싶네요.

(송지나 외, 달팽이 15회, SBS, 1997)

라. 괜히 나 때문에 저런 거 보나 싫어서.

(노희경, 고독 17회, KBS2, 2002)

마. 떠나는 윤영선배 뒷모습이라도 한번 더 볼까 싫어서.

(노희경, 그들이 사는 세상 6회, KBS2, 2008)

바. 안 그래도 커피 한 잔 하잖까 하다 이렇게 보겠다 싫어서.

(김은숙, 온에어 5회, SBS, 2008)

26) 어근이 분리되지 않는 ‘하다’ 용언은 ‘-기도 하다’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

가. 아이구, 어린 학생이 착하기도 해라.

(국민일보, 빛나는 공복의 섬김... 더 빛나는 사랑 실천, 2023년 5월 24일)

나. 용하기도 하셔라. 그 말씀 들으니 술이 땡기네요.

(스포츠한국, [방민준의 골프세상] 골프가 전부가 아닌 어느 날, 2016년 2월 17일)

‘싶-’는 (28)에서처럼 선행 요소로 연결 어미 또는 종결 어미를 취해야 한다. ‘싶-’에 선행하는 연결 어미에는 (28가)의 ‘-고’와 (28나)의 ‘-었으면’이 있다. ‘-고 싶-’과 ‘-었으면 싶-’은 ‘희망’의 의미를 나타낸다.²⁷⁾ ‘싶-’에 선행하는 종결 어미는 (28다, 28라, 28마)에 제시된 의문형 ‘-는가, -나, -까’, (28바)의 평서형 ‘-겠다’ 외에도 감탄형, 청유형, 명령형이 자유롭게 올 수 있다.²⁸⁾

(28)에서 살펴 본 ‘싶-’ 구성 중 ‘-고 싶-’ 만이 감탄형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김흥수(1983), 이은섭(2021)에서 논의되었듯이 ‘-고 싶-’이 가지는 의미가 심리 형용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고 싶-’은 심리 형용사와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 특징도 동일하다.

(29)

가. 아! 나도 상고재로 이사오고 싶어야!

(이새인 외, 개인의 취향 2회, MBC, 2010)

나. 아, 땡자 보구 싶어라.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1-80회, KBS2, 2006)

다. 아, 자장면 먹고 싶어라.

(데일리안, 팽이새끼, 2008년 2월 23일)

(30)

가. 너 내 인생 또 망치고 싶어?

(정지우, 가문의 영광 23회, SBS, 2009)

나. 너 엄마까지 죽는 꼴 보고 싶어?

(소현경, 검사 프린세스 13회, SBS, 2010)

다. 너 뭐 먹고 싶어?

(소현경, 찬란한 유산 18회, SBS, 2009)

(29, 30)은 ‘-고 싶-’의 주어 제약을 보여준다. ‘-고 싶-’은 평서문의 경우 (29)와 같이 1인칭 주어와 어울리고 의문문의 경우 (30)과 같이 2인칭 주어와 어울린다. 이 밖에도 추측의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어 하-’ 동사 대응을 취하면 ‘-고 싶-’이 가지는 인칭 제약이 해소되는데 이는 심리 형용사의 인칭 제약 양상과 동일하다.

2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고 싶-’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었으면 싶-’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거나 앞말의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막연하게 바람을 부드럽게 나타내는 말’이다. ‘-고 싶-’과 ‘-었으면 싶-’ 중 말뭉치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형태는 ‘-고 싶-’이다.

28) 말뭉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형태는 의문형이다. 남기심·고영근(2015: 119-120)에 따르면 의문형과 결합하는 ‘싶-’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31)

가. 미남이 정말 부럽겠다.

(홍정은 외, 미남이시네요 12회, SBS, 2009)

나. 사실 저희 엄마.. 고모부가 의산거 은근 부러워하셨거든요.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1회, KBS2, 2009)

(32)

가. 준세씨는 은성이 좋아하니까 은성이 말 믿고 싶겠쥬.

(소현경, 찬란한 유산 22회, SBS, 2009)

나. 언니가 휴가를 받고 싶어해요.

(오수연, 네 자매 이야기 11-20회, MBC, 2001)

(31)은 심리 형용사의 인칭 제약 해소를 보여준다. (31)의 ‘부럽다’는 주어로 1인칭을 취해야 하지만 ‘-겠-’과 함께 사용되어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아닌 사람 명사가 올 수 있는 것이다. (32)는 ‘-고 싶-’의 인칭 제약 해소를 보여주는데 (31)과 동일한 환경에서 인칭 제약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구성은 ‘-기도 하다’이다. ‘-기도 하다’는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한 단위로 작용한다.²⁹⁾ ‘-기도 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다’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때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기’ 앞에 어떤 용언이 오느냐에 따라 활용이 다르다. ‘-기’ 앞에 동사가 오면 동사 활용을 하고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활용을 한다.³⁰⁾

(33)

하다

[Ⅱ] 「보조 동사」

「5」 ((동사 뒤에서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나 하다’ 따위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

- 비행기가 참 빨리 가기도 한다.

[Ⅲ] 「보조 형용사」

「1」 (('이다'의 어간이나 형용사 뒤에서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나 하다’

29) 이러한 구성에 대해 임흥빈(2002)은 ‘문법적 언어’, 박진호(2003)은 ‘문법적 관용표현’, 한명주(2014)에서는 ‘구성’이라고 했다. ‘-기도 하다’는 ‘도’가 감탄, 강조의 의미를 지니므로 의미상 불투명성을 지니는 표현은 아니지만 문법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관용 표현의 특성을 보이는 구성이기 때문에 박진호(2003: 374)의 ‘문법적 관용표현’으로 논의할 수 있다.

30) 신희성(2019)은 동사와 결합하는 ‘-기도 하-’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다. 신희성(2019)에 따르면 ‘-기도 하다’는 보조사 ‘도’의 의미에 따라 {빈도}나 {강조}를 의미할 수 있는데 {빈도}는 주로 동사에 연결되고 {강조}는 주로 형용사에 연결된다고 하였다.

따위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

- 생선이 참 싱싱하기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제시된 문법 설명처럼 ‘하다’는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나 하다’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중 감탄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형용사 뒤에 쓰이는 ‘-기도 하-’ 뿐이다. 선행 어간으로 형용사를 취하는 ‘-기도 하-’에서 ‘하-’는 보조 형용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34)

가. 길기도 해라.

(미디어펜, 광화문 방호벽 설치, 교황 방문에 ‘혹시나’ 키높이 ‘철저’, 2014년 8월 13일)

나. 아이구 많기도 해라, 이걸 또 뭐야?

(박정란, 노란 손수건 79회, KBS1, 2003)

(34)의 ‘길다’, ‘많다’는 본고의 조사 자료에서 ‘길어라’, ‘많아라’로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어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형용사이다. 그러나 (34)의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34)에서 ‘해라’는 ‘-기도’에 선행하는 어간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대용한 것으로 반복된 어간을 복원하면 (34)와 동일하다.

(34)

가. 길기도 길어라.

나. 많기도 많아라.

본고는 (34)와 같이 대동사(代動詞) ‘하-’를 취하지 않고 선행 어간을 반복하는 ‘Adj-기도 Adj’도 ‘-기도 하-’ 구성으로 보았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기도 하-’를 취하는 경우 사람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사람 명사가 아닌 명사가 올 수도 있다. 사람 명사가 오는 경우 1인칭과 어울릴 수 없다.

(35) 아이고, {*나는, 너는, 그는} 착하기도 해라.

(국민일보, 빛나는 공복의 섬김... 더 빛나는 사랑 실천, 2023년 5월 24일)

(35)는 ‘-기도 해라’가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를 취하는 경우 1인칭과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구(句)에는 관용구와 ‘-고 싶-’, 형용사와 결합하는 ‘-기도 하-’가 있다. ‘-어라’가 관용구와 결합하는 것은 관용구도 어휘와 동일한 자격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별개의 어휘소이기 때문이다. 일반 형용사구와

관용구의 중간 범주에 속하는 형용사구도 ‘-어라’와 결합하여 감탄형을 만든다. 예를 들어 ‘마음이 넓다’는 ‘오지랖이 넓다’처럼 제3의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방이 넓다’와는 그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어라’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이다. ‘-어라’가 관용구와 결합하는 경우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지 못한다. ‘-고 싶-’는 심리 형용사와 동일한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공유한다. ‘-고 싶-’의 ‘싶-’는 보조 형용사이기 때문에 선행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도 감탄형 ‘-어라’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주어 자리에는 1인칭만 온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기도 하-’의 ‘하-’도 보조 형용사로 언제나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기도 하-’의 주어 자리에 사람 명사가 오면 1인칭은 오지 못한다.

3.1.2. 선어말 어미 결합 제약

감탄형 ‘-어라’는 선어말 어미 중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시-’와만 결합한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기술되어 있으나 관련 예문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세 한국어 사전』은 ‘-어라’가 ‘-었-’ 뒤에 쓰이기도 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예문으로 ‘제비꽃은 쓰러져 죽으면서 여전히 기쁨에 찻어라’를 든다. 그러나 이는 문학 장르의 예이기 때문에 구어에서도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단정짓기 어렵다.³¹⁾

(36)

가. 에이 귀여우셔라.

(이선미 외, 트리플 3회, MBC, 2009)

나. 에이 *귀여웠어라.

다. 에이 *귀엽겠어라.

‘-었-’과 ‘-겠-’은 ‘-어라’와 결합하지 못하므로 (36나, 다)는 비문이다.³²⁾ (36가)가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해서 감탄형 ‘-어라’가 언제나 ‘-시-’와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37) *싫으셔라.

(37)의 ‘싫으셔라’도 ‘싫-’에 ‘-시-’와 ‘-어라’가 결합했지만 비문이다. (36가)과 (37)의 차이는 선행어간에 있다. (36가)의 ‘귀엽다’는 심리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상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형용사이지만 (37)의 ‘싫다’는 심리 형용사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이다. 선어말 어미 ‘-시-’는 선행어간에 정상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다.³³⁾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면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할 수

31) 시나 노래 가사와 같은 문학 장르에서는 ‘-어라’의 선행어간 제약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1.1.에서 상술한다.

32) 감탄형 ‘-어라’의 중세국어형은 ‘-애/에라’는 대체로 선어말 어미들과 통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이승희 1996: 36-37, 42).

33) 이러한 사실은 조용준(2017: 119-120)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을 높여 대접할 때 쓰이는 ‘-시-’가 1인칭 주어에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는 ‘-시-’를 결합할 수 없다.

(38)는 ‘-시-’와 ‘-어라’가 결합한 용례이다.

(38)

가. A: 여기서 더 나가면 오빠 화낸다

B: 어머 무서우셔라.

(박현주, 황금신부 9회, SBS, 2007-2008)

나. A: (앉으며) 두 모자가 무슨 일이야?

B: (깜짝 놀라며) 어메메 용하셔라. 모잔줄 어떻게 아세요?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44회, MBC, 2006-2007)

다. A: 준하야 나 문자 칠 줄 안다.

B: 어이구 장하셔라~ 우리 어머님 문자도 칠 줄 아시고~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15회, MBC, 2006-2007)

<표 6>에 따르면 ‘무섭다, 용하다, 장하다’는 심리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성상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형용사이다. 이 형용사들은 (38)에서 성상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 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노대규(1997: 171)는 (39)를 모두 비문으로 보았다.

(39)

가. (나는) (*아버님이) 아이구, 무서우셔라!

나. (나는) (*형님이) 아이구, 무서우셔라!

다. (나는) (*자네가) 아이구, 무서우셔라!

라. (나는) (*네가) 아이구, 무서우셔라!

노대규(1997)는 ‘-어라’가 ‘비존대’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어라’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간의 문제를 어미의 문제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39)에서 ‘무서우셔라’가 비문이라면 이는 선행 어간인 ‘무섭다’가 심리 형용사이기 때문으로 ‘-어라’의 의미 자질과는 관련이 없다. ‘-어라’의 선행 어간이 성상 형용사로서의 ‘무섭다’라면 (38가)처럼 ‘-시-’가 결합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또한 본고는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고마우셔라’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40)

가. A: 미숙씨가 나, 김치해줬어, 엄마.

B: 어머, 어떡해, 고마우셔라!

(김정수, 그대 그리고 나 38회, MBC, 1997-1998)

나. A: 수고들 하시는데 밥이라도 살까해서 왔습니다.

B: 어머니 세상에 고마우셔라. 역시 스타는 다르세요!

(구선경, 오! 마이 레이디 8회, SBS, 2010)

유현경(2000: 256), 김정남(2005: 268)에 따르면 ‘고맙다’는 ‘심리 형용사’이다. 심리 형용사는 평서문에서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기 때문에 (40)의 ‘고마우셔라’는 비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40)에서 ‘고마우셔라’는 모두 자연스럽다. (40)에서 생략된 주어는 화자가 아닌 것이다. 예로 (40가)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 보자.

(41) 엄마가 미숙씨에게 고마우시다고 했다.

(41)의 주어는 ‘엄마가’로 (40가)에서 생략된 주어는 화자가 아닌 ‘엄마’임을 알 수 있다.

(42) 어쩜 하늘두 고마우셔라.

(정유경, 눈물이 보일까봐 1-16회, MBC, 1999)

‘-어라’의 선행 어간으로 ‘고맙다’가 올 때 (42)처럼 주어가 사람이 아닌 예문도 확인할 수 있었다. (42)는 존대를 받는 주어인 ‘하늘’을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의인화하여 사용된 특수한 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익섭·채완 2014: 337). 이처럼 ‘고맙다’와 관련한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고맙다’에는 심리 형용사뿐만 아니라 정상 형용사로의 용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관용구와 형용사구, ‘-기도 하-’도 2, 3인칭 주어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선어말 어미 ‘-시-’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43)

가. 예의도 바르셔라.

(헤럴드POP, [세덕서비스트] 스킷(1) Up in the Air, 2014년 9월 26일)

나. 어머~ 말씀도 험악하셔라. 형수님한테 개뿔이 뭐예요. 개뿔이!

(진수완, 형수님은 열아홉 1-19회, SBS, 2004)

다. 착각도 지나치셔라. 그딴 일에 피같은 내 돈을 왜써.

(진수완, 경성 스캔들 3회, KBS2, 2007)

라. 허허 참. 바랄 걸 바래야지. 꿈도 야무지셔라.

(김인영, 메리대구 공방전 10회, MBC, 2007)

(44)

가. 아이구 고맙기도 하셔라.

(김인영, 맛있는 청혼 1회, MBC, 2001)

나. 의사 선생님이 정말 씩씩하기도 하셔라!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49회, KBS2, 2009)

(43)은 관용구와 일반 형용사구의 중간 범주에 있는 형용사구의 ‘-시-’ 결합을, (44)는 ‘-기도 하-’의 ‘-시-’ 결합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탄형 ‘-어라’는 선어말 어미 ‘-시-’, ‘-었-’, ‘-겠-’ 중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시-’와만 결합한다. ‘-시-’는 선행 어간이 성상 형용사인 경우에만 결합한다.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는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기 때문에 ‘-시-’와 결합할 수 없다. 그 외에 주어 자리에 2, 3인칭이 가능한 관용구와 ‘-기도 하-’도 ‘-시-’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3.1.3. 감탄형 형용사와 의지 형용사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라’는 선행 어간의 품사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진다.

(45)

가. 천천히 먹어라.

나. 아이, 딱하고 가연어라.

(『표준국어대사전』)

(45)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라’의 용례로 선행 어간이 동사인 경우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형용사인 경우 감탄의 뜻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행동 작용을 의미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명령문의 서술어로 형용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46) 그 말 하러 왔어. 행복해라. 꼭 행복해야 돼.

(진수완, 원더풀 라이프 5회, MBC, 2005)

(46)에서 ‘행복해라’는 ‘행복하다’에 명령형 ‘-어라’가 결합한 명령형이다. 한국어에서 ‘행복하다’처럼 동사 활용형을 가질 수 있는 일부 형용사를 ‘의지 형용사’라고 한다. 한국어의 의지 형용사에 대해서는 기타노 유카(2012)가 조사한 바 있다. <표 13>은 기타노 유카(2012)가 제시한 현대 한국어의 의지 형용사 목록이다.

<표 13> 기타노 유카(2012)의 의지 형용사 목록

단어			개수
가능하다	건강하다	겸손하다	63개
겸허하다	고독하다	고분고분하다	
과격하다	그려하다	급급하다	
깨끗하다	꾸준하다	날씬하다	
냉정하다	단순하다	담대하다	
대담하다	둔감하다	똑똑하다	
마땅하다	만족하다	무관하다	
무리하다	성실하다	소탕하다	
소홀하다	솔직하다	시원하다	
신중하다	심각하다	안녕하다	
애통하다	엄격하다	영원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용감하다	
용의주도하다	원활하다	의젓하다	
인색하다	잔인하다	적합하다	
정확하다	조용하다	철저하다	
청렴하다	초조하다	충만하다	
충실하다	친절하다	친하다	
침착하다	쾌활하다	태연하다	
투철하다	편리하다	편안하다	
편하다	피곤하다	필요하다	
한결같다	행복하다	화려하다	

<표 13>에서 본고의 감탄형 형용사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날씬하다, 똑똑하다, 솔직하다, 시원하다, 용감하다, 편하다, 행복하다’이다. (47)은 기타노 유카(2012: 66, 67, 69, 70, 75, 77)의 부록에 실린 예문이다.

(47)

가. 나도 저렇게 날씬하고 싶다.

나. 조상은 훌륭했으니 거기에 상당히 똑똑하라는 것이다.

다. 솔직해라. 신문사에 걸고 싶다구.

라. 속이 시원하라고 그랬는데 속은 비린내나는 국물을 마신 것처럼 더럽게 멀미만 낫는다.

마. 용감하라. 발로 뛰어라. 배 고프은 참아라.

바. 잡숫기 편하시라구 닭을 국물 따루 살코기 따루 담았습지요.

사. 행복해라, 선희!

(47)에서 ‘-어라’ 명령문의 예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7다, 사)뿐이었다. (47마)에서 ‘용감하다’는 ‘-(으)라’와 결합한 예이고 (47나, 라, 바)는 ‘똑똑하다, 시원하다, 편하다’가 내포문에서 사용된 예이다. 본고는 (47나, 라, 바)가 형용사가 내포문에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상위문에서 명령형 ‘-어라’와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보다 분명한 자료 제시를 위해 감탄형 ‘-어라’ 어간 목록 중 명령형 ‘-어라’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형용사를 다시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47)의 ‘솔직하다, 행복하다’ 외에도 명령형과 감탄형의 형태가 같은 6개의 형용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³⁴⁾

(48)

가. 당신 주제에 나 같은 총각 만난 거 하늘에 감사해라.

(노희경, 화려한 시절 11-20회, SBS, 2002)

나. 이렇게 더 날씬해라.

(YTN, 박진영 교복광고 논란, 학생에게 코르셋 재킷을?, 2015년 10월 15일)

다. 그만 뽀뽀해라.

(일요신문, 조민 ‘입학 취소 정당’ 판결… 김용태 “본인들 잘못부터 반성하는 게 도리”, 2023년 4월 6일)

라. 우선 당원과 국민들께서 한 가지는 좀 야무져라.

(SBS, 서영교 “김건희 특검 사유 차곡차곡 쌓인다”, 2022년 9월 6일)

마. 용감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하라.

(매일경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혼돈의 시대 등불같은 혜안, 2013년 1월 15일)

바. 제발 좀 찬찬해라!

(전북일보, [수상] 제발 좀 찬찬해라!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00년 5월 2일)

이 중 ‘감사하다’는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존재하는 용언이다. 따라서 (48가)의 ‘감사해라’는 동사 ‘감사하다’에 감탄형 ‘-어라’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 가능하므로 의지 형용사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48나, 다, 라, 마, 바)의 ‘날씬하다, 뽀뽀하다, 야무지다, 용감하다,

34) 감탄형 형용사 ‘맛있다’가 명령형으로 사용된 예문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맛있다’의 주어는 사람 명사가 아니므로 예문의 적격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찬찬하다’는 ‘-어라’와 결합하여 명령문을 만들 수 있는 의지 형용사이다.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형용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건희(2005, 2010), 이승희(2006), 유현경(2008), 고성환(2012)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³⁵⁾ 김건희(2005)는 평가 형용사로 전환되는 성질 형용사가, 이승희(2006: 559-560)는 사람의 성격 혹은 태도를 평가하는 형용사가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2005), 이승희(2006)에 따르면 ‘뻔뻔하다, 솔직하다, 야무지다, 용감하다, 찬찬하다’는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는 형용사로 분류된다.

김건희(2010: 154)는 (49)의 예를 들며 형용사에 ‘-어라’가 결합되면 명령형도 가능하고 감탄형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9)

가. (끝까지 정리하다니) 영수는 참 성실해라.

나. (너도 귀감이 되려면) 맡은 일에 성실해라.

김건희(2010)에 따르면 화자가 주관적인 평가 근거를 바탕으로 화자 자신이나 혹은 청자에게 자신의 느낌 즉 평가를 나타낸 것이 감탄형이라면 화자가 요구 근거를 바탕으로 청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거나 기대한 것이 명령형이다. 다시 말해 형용사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에 따라 화자 중심의 명령형과 감탄형은 형용사의 특정한 의미 자질에 상관없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라’는 선행 어간이 동사이면 명령형을 만들고 선행 어간이 형용사이면 감탄형을 만드는 종결 어미이다. 그런데 (50)의 ‘솔직하다’와 같이 명령형과 감탄형을 모두 만들 수 있는 형용사가 일부 존재한다.

(50)

가.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짓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 속이려 하지 말고, 솔직해라.

(머니투데이, 진중권, 오늘 검찰 출석하는 임종석에 “속이려 하지 마라”, 2020년 1월 30일)

나. 하하하 솔직도 하셔라.

(미디어오늘, “어떻게 매번 본질은 외면하고 겉가지만 치나”, 2014년 12월 2일)

(50가)에서 ‘솔직해라’는 명령형 ‘-어라’가 결합한 것이다. (50나)에서 ‘솔직도 하셔라’는 감탄형 ‘-어라’가 결합한 것이다. 본고가 찾은 예로는 ‘날씬하다, 뻔뻔하다, 솔직하다, 야무지다, 용감하다, 찬찬하다, 행복하다’가 있다.³⁶⁾ ‘야무지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다’ 용언이며 ‘행복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외모를 평가하는 용언이라는 특징을 가진다.³⁷⁾

35)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형용사 목록 김건희(2010: 137)에 잘 정리되어 있다.

36)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는 예를 찾을 수 없었지만 ‘냉정하다, 성실하다, 의젓하다, 조용하다, 친절하다’도 명령형과 감탄형이 모두 가능한 형용사로 판단된다. 이들 형용사 역시 주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37) ‘행복하다’는 인사말이었던 해요체 ‘행복하세요’가 자리 잡으며 해라체 ‘행복해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령형과 감탄형의 형태가 같을 때 선어말 어미 ‘-시-’ 결합으로 두 형태를 구별할 수 있다. (5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령형 ‘-어라’는 ‘-시-’와 결합하지 않지만 감탄형 ‘-어라’는 ‘-시-’와 결합 가능하다. 그러나 명령형과 감탄형을 만드는 형용사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는 예외로 둔다.

3.1.4. 문형

감탄형 ‘-어라’가 관여하는 문장의 문형(sentence pattern)은 크게 네 가지로 대표된다.

(51)

가. 착해라.

(한재림, 영화 ‘연애의 목적’, 2005)

나. 아이고 착해라.

(노희경, 바보같은 사랑 14회, KBS2, 2000)

다. 착해라 우리 하루.

(강은경, 안녕하세요 하느님 3-6회, KBS2, 2006)

라. 어이구 착해라 우리딸!

(은주영, 좋은 사람 4회, MBC, 2016)

(51가)는 ‘-어라’의 기본 문형이다. ‘-어라’는 서술어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51나)는 ‘-어라’의 가장 일반적인 문형이다. 감탄사가 함께 나타난다. (51다)는 ‘-어라’와 명사구가 함께 나타난다. 이때 명사구는 명사 단독형으로 호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다. (51라)는 ‘-어라’가 관여하는 가장 복잡한 문형이다. 감탄사와 명사구가 함께 나타난다.

(52) 이쁘구 기특해라.

(강은경, 달자의 봄 10회, KBS2, 2007)

‘-어라’의 기본 문형은 (52)처럼 어미 ‘-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52')

가. 기쁘고 즐거워라.

(송지나, 카이스트 19회, SBS, 1999-2000)

나. 분하고 원통해라.

(문영남, 장밋빛 인생 5회, KBS2, 2005)

(52), (52')처럼 복합문을 이루는 경우 그 구성은 반드시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지고 구성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는 비슷한 의미를 공유하는 형용사이어야 한다.

'-어라'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련이 없는 독립어만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53)

가. 아이고 귀여워라.

(박정란, 노란 손수건 45회, KBS1, 2003)

나. 아유 귀여워라.

(이선미 외, 커피프린스 1호점 16회, MBC, 2007)

(53)에서 '아이고'와 '아유'는 화자가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로 이 말은 '귀여워라'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다. '아이고', '아유'와 같은 말을 감탄사라고 한다. 감탄사는 독립어이다. 독립어는 일반적으로 문장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과 끝에 위치할 수도 있다.

(54)

가. 아이고 피곤하다.

(구선경, 오! 마이 레이디 9회, SBS, 2010)

나. 모양이며 색이며 아이고 이거 아까워 어디 먹겠어?

(최완규 외, 식객 1회, SBS, 2008)

다. 어어어어 하나야. 인사도 못하고 아이고.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18회, KBS2, 2009)

그런데 '-어라'가 감탄사와 함께 나타나는 문형의 경우 (54)처럼 감탄사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라'는 '감정 감탄사'와만 나타난다.³⁸⁾

(55) 어이구 우리 남편 귀여워라.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31회, KBS2, 2009)

'-어라'는 감탄사 외에 명사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55)에서 명사구 '우리 남편'은 호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은 호격어이다. 호격어도 감탄사와 함께 독립어로 분류된다. 한국어의 호격 조사는 주로 성을 제외한 이름 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55)에서 '남편'은 호격 조사 '-아/야'를 취하지 않고 호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56) 아유 가엾어라 우리 수경이.

(김정수, 그대 그리고 나 51회, MBC, 1997-1998)

38) 정선주(2007: 120)는 국어의 감탄 표현에서 감정 감탄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 문장 전체에 감탄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후행하는 문장의 성격을 감탄으로 규정짓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56)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을 제외한 이름인 ‘수경이’ 뒤에서도 호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57)

가. *어이구 우리 남편아 귀여워라.

나. ?아유 가엾어라 우리 수경아.

(57)은 호격 조사를 복원한 것으로 필자에게는 모두 자연스럽게 읽힌다. 따라서 ‘-어라’와 함께 명사구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명사구는 주로 호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난다.³⁹⁾ 감탄사는 반드시 문장 맨 앞에 위치하였지만 호격 명사구는 (55)와 같이 ‘-어라’에 선행하기도 하고 (56)과 같이 ‘-어라’에 후행하기도 한다.

(58)

가. 아이구 우리 신랑 기특해라.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1-80회, KBS2, 2006)

나. 어이구 가엾어라 내 사위.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147회, KBS1, 2010-2011)

호격어가 생략된 단독 명사항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또는 ‘내’가 선행한다. 호격어에 선행하는 ‘우리’는 복수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 (이익섭·채완 2000: 148-149, 유필재 2019: 149). ‘나의’의 줄임말인 ‘내’ 또한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

남기심·고영근(2015: 356)은 (59)를 비문으로 본다.

(59) 아이고! 철수가 무서워라.

그 근거로 (59)의 주어가 제3인칭인 ‘철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든다. 그러나 (59)가 자연스럽게 읽힌 것은 주어의 문제가 아닌 문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60)

가. 아이고, 무서워라.

나. 아이고, 우리 철수 무서워라.

(60)은 (59)를 ‘-어라’가 관여하는 기본 문형에 적용한 것이다. 사용이 훨씬 자연스러움

39) ‘엄마야 뜨거워라(보고 또 보고 201-210회)’에서 명사구 ‘엄마야’는 감탄사의 역할을 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을 확인할 수 있다.

김건희(2010: 150, 154)는 (61)을 올바른 문장으로 본다.

(61)

가. 주인이 없으니까 더 친절하셔라!

나. 영수는 참 성실해라.

그러나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는 (61)과 같은 문형을 가지는 ‘-어라’의 용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형용사구, ‘-고 싶-’, ‘-기도 하-’가 ‘-어라’와 결합하는 경우 ‘-어라’의 기본 문형에서 벗어난 문형을 보일 수 있다.

(62)

가. 역시 우리 복남씨 생각도 깊으셔라.

(구현숙, 열아홉 순정 80-167회, KBS1, 2006-2007)

나. 아~ 키스 당하고 싶어라. 현대 이 자식은 제대 하려면 1년하구두 2개월 남았잖아.

(김순덕, 불꽃놀이 5회, MBC, 2006)

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짜짜하기도 하셔라!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49회, KBS2, 2009)

(62가)는 형용사구, (62나)는 보조 용언구 ‘-고 싶-’, (62다)는 ‘-기도 하-’의 예이다. 이들은 각 구성이 가지는 문법적 특징에서 기인하여 ‘-어라’가 가지는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문형 제약의 해소도 각 구성이 가지는 문법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탄형 ‘-어라’는 일반적으로 서술어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어와 나타난다. 한국어의 독립어 중 ‘-어라’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감정 감탄사와 호격 명사구이다. 감정 감탄사는 주로 ‘-어라’에 선행한다. 호격 명사구는 호격 조사가 언제나 생략되어 명사 단독형으로 나타나며 ‘-어라’에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다. 호격 명사구에는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 또는 ‘내’가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우리’는 복수의 의미가 아니며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 감정 감탄사와 호격 명사구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3.2. 의미적 특징

<표 14>는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어라’의 의미이다.

<표 14>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 나타난 ‘-어라’의 의미

	의미	출처
사전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어떤 사실을 감탄하여 나타내는 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시나 노래 가사와 같은 글말에 쓰이어) 감탄의 뜻을 나타냄.	연세한국어사전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문법서	화자 자신의 느낌을 감동적으로 표시할 때 쓴다.	남기심·고영근 (2015: 356)
선행 연구	1. 문장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한다. 2. 들을이가 모르는 내용을 제시한다. 3. 문장의 내용은 새로 알게 된 것이다. 4. 문장의 내용은 말할이 자신의 감각이나 감정이다. 5. 문장의 내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6. 문장 내용의 사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창운 (1995: 626)
	구어적이고 쓰임이 한정되어 있는 감탄형 어미	이승희 (1996: 41)
	명제 내용 사실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 정서적 표현으로 전달 의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⁴⁰⁾	노대규 (1997: 247)
	명제 내용이 곧 자신의 느낌, 명제 내용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기준적인 정도 이상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윤석민 (2000: 137-138)
	순수하게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박재연 (2004: 49)
	지각 감탄 표현 ⁴¹⁾ 적 특성을 가지는 어미로 무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정선주 (2007: 118)

40) ‘-구나’의 의미적 특징도 이와 동일하다. 노대규의 기술로는 ‘-어라’와 ‘-구나’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즉각적, 즉자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어미	박진호 (2011: 13)
감탄문 어미	임동훈 (2011: 337)
청자에 대한 의사소통 기능이 없고 오직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만을 담당함. '-어라'가 표현하는 것은 화자의 앎이 아닌 화자의 느낌이다.	박재연 (2013: 88-89)
누군가에게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껴지는 감각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무의식적 감탄을 표현할 수 있음.	이미지 (2014: 246-247)
지각한 내용이 화자의 지식 체계에 내면화되지 않고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 자체를 즉각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어미 ⁴²⁾	하지희·조용준 (2016: 219)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또한 감탄문이라는 기본적 속성에서 파생한 정도성, 현저성, 직접 증거성 등을 가진다.	조용준 (2017: 131-140)
다른 양태 의미 없이 감탄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화자 자신의 느낌을 감동적으로 표시할 때 쓴다.	이소흔 (2019: 44)

<표 14>를 보면 '-어라'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감탄'은 마음 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어라'가 나타내는 감탄은 '감탄'의 사전적 정의와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⁴³⁾ 선행 연구에서 말하는 '감탄'이란 화자의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41) '지각 감탄 표현'은 화자가 사태에 대해서 감각 기관에 의해 느낀 것으로 이때의 느낌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지 작용이 아주 짧아 거의 무의적으로 발화되는 반사적 감탄 표현이며 사태에 대해 명제화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화자의 순수한 감정만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감탄 표현이다(정선주 2007: 117-118).

42) '-네'의 의미적 특징도 이와 동일하다. 이미지의 기술로는 '-어라'와 '-네'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43) 의외성에서 '의외'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현혹되면 안된다는 점이 지적된 것과 같다. 의외성에 대해서는 4.2.를 참고할 수 있다.

(63)

가. 아유, 놀래라.

(여지나, 결혼 못하는 남자 14회, KBS2, 2009)

나. 아이고 부러워라.

(백동훈, 영화 '식객: 김치전쟁', 2010)

다. 어머 신기해라! 금방이네!

(배유미, 내 마음을 뺏어봐 5회, SBS, 1998)

(63)에서 화자는 '-어라'를 통해 놀람, 부러움, 신기함 등의 감정을 표현한다. 따라서 '아유, 아이고, 어머'와 같은 감정 감탄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감탄사들은 놀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아프거나, 힘들거나, 반갑거나, 좋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라'로 표현되는 감정은 그 내용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감정의 속성 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된다(박재연 2004: 50).⁴⁴⁾

(64)

가. A: 아저씨, 신고했어요.

B: 아이구 똑똑해라. 집 주소도 가르쳐 줬지?

(박경수 외, 내 인생의 스페셜 2회, MBC, 2006)

나. A: 경찰씨 인생도 생각하셔야죠.

B: 아이고 똑똑해라. 뉘 집 딸년이 이렇게 똑똑하시나. 지금 날 가르쳐?

(하청옥, 여자를 울려 3회, MBC, 2015)

(64가)에서 '똑똑해라'는 아이를 칭찬하는 말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64나)에서 '똑똑해라'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따라서 '-어라'는 감정 양태라는 문법 범주를 가지지 못한다(박재연 2004: 50).⁴⁵⁾

한편 <표 14>에서 정선주(2007), 박진호(2011), 이미지(2014), 하지희·조용준(2016), 조용준(2017)은 '감탄' 외에 '즉각성'의 의미를 제시한다.⁴⁶⁾

44) 박재연(2004: 50)에서 제시한 예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 예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실지 않았다.

가. 어머니 예빠라!

나. 아이고 뜨거워라!

45) '-구나', '-네'도 동일하다.

46) 정선주(2007)는 이렇듯 사태에 대해 명제화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화자의 순수한 감정만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감탄 표현이 가장 전형적인 감탄표현이라고 했다.

(65) (어설피게 국 뜨다가) 엄마야 뜨거워라.

(임성한, 보고 또 보고 201-210회, MBC, 1998-1999)

실제로 (65)에서 화자가 ‘뜨겁다’의 명제를 인식한 시점과 ‘뜨거워라’를 발화한 시점은 시간 차이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라’로 표현되는 화자의 감정은 즉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어라’가 가지는 ‘즉각성’은 (65)처럼 선행 어간이 감각 형용사일 때 더 확실히 드러난다.

정선주(2007: 109-118)는 ‘-어라’의 기능을 인식 이전의 무의식의 단계에서 발화되는 원초적인 감정의 표출로 보았다. 이러한 표현은 순간적이고 간결한 느낌의 문장이 많으므로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 더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준(2017: 212)도 ‘-어라’가 간결성, 단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든다. 본고에서도 3.1.4.에서 ‘-어라’는 서술어만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독립어와만 함께 나타나는 문형을 가짐을 확인한 바 있다.

박진호(2011: 13)는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맛보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에서는 ‘앗 뜨거워라’가 자연스럽고 ‘-어라’는 과거시제인 ‘-었어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어라’로 표현되는 상황이 즉자적인 반응임을 지적하였다. 조용준·하지희(2016: 219)는 박진호(2011: 13)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며 ‘-어라’가 정서적 행위를 표현하므로 여성이 선호하는 어미라는 점을 덧붙인다.

이미지(2014: 243, 246, 249)는 ‘-어라’가 현장에서 감각 기관으로부터 바로 얻어진 느낌에 대해 순간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정선주(2007)의 의견과 동일하게 ‘-어라’가 무의식적인 감탄을 표현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66)

가. *뜨거웠어라.

나. *뜨겁겠어라.

‘-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추측 선어말 어미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조용준(2017: 121)은 ‘-어라’가 표현하는 것이 화자가 즉각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이나 느낌이 때문에 과거나 미래 사건과의 연관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으로 이러한 문법적 제약을 설명한다. 즉각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고를 필요치 않으므로 간결하게 서술어만 표현된다는 것이다. 박진호(2011: 13)도 ‘-어라’가 즉자적 반응이라는 근거로 ‘-었-, -겠-’과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언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화행 중 표현 행위는 청자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 2018: 92). ‘-어라’가 나타내는 감탄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발화가 이루어진다(노대규 1997: 167-169, 전후민 2015).

47) 화자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어미에는 ‘-어라’ 뿐만 아니라 ‘-어’도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67) (개 고양이들 욕조에 넣어 놓고 씻기면서) 때 봐 때, 아구 드러라.

(이선미 외, 트리플 3회, MBC, 2009)

(68)

A: 아이구 독해라. 아이구 독해라.

B: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예! 그나저나 언제 나갈 거예요?

(문희정, 그대, 웃어요 29회, SBS, 2009-2010)

(67, 68)에서 화자는 청자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화자의 느낌을 표현한다. (68)에서 B는 A의 발화에 대해 반응하고 있지만 이것은 A가 의도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⁴⁸⁾ 이처럼 ‘-어라’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발화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이미지 2014: 249).

‘-어라’로 표현되는 명제는 화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이다.

(69)

가. A: (B에게 꽃 내밀며) 생일 축하드려요.

B: 어머니 예빠라. 뭐 이런 걸 다.

(임현경, 공주가 돌아왔다 10회, KBS2, 2009)

나. A: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싱겁냐? (양념을 국에 우르르 들이 붓는다)

B: 엄마, 그거 설탕이잖아!

A: 설탕이야? (호호 웃고) 어쩐지 달더라. (다시 맛을 보며) 아유, 달아라.

(정유경,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회, MBC, 2006)

다. A: 이게 뭐니?

B: 제 선물이예요. 쉬세요. (올라가고)

A: 보다가 뚜껑 열면 스카프 나온다) 어머니, 보드라워라.

(이홍구, 김가이가 6회, MBC, 1993-1994)

화자는 (69가)에서는 시각, (69나)에서는 미각, (69다)에서는 촉각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였다.⁴⁹⁾ 전술했듯이 입수된 정보는 화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지식을 획득했음을 스스로

48) 노대규(1997: 169)는 ‘-어라’가 독백 감탄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관 동사나 지각 동사를 서술어로 하면 들을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너’가 심층 구조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라’는 전달 감탄문의 종결 접미형태로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아래 예를 제시했다. 아래 예에서 사용된 선행 어간은 모두 성상 형용사라는 특징을 가진다.

가. (나는) (네가) 아이, 착해라!

나. (나는) (네가) 아이, 귀여워라!

다. (나는) (네가) 아이구, 무서워라!

라. (나는) (네가) 아이구, 불쌍해라.

49) 청각이나 후각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대한 예문은 찾을 수 없었으나 적절한 상황이 상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⁵⁰⁾

‘-어라’는 전언(hearsay)이나 추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는 표현하지 못한다.

(70)

A: 그 집 증손녀 애가 아주 참하고 좋더라.

B:

C: 그래? 몇 살인데?

(정지우, 가문의 영광 13회, SBS, 2009)

(70)에서 B는 A가 전하는 말을 통해 ‘그 집 증손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집 증손녀’에 대해서 B가 직접 경험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B는 ‘좋아라’로 발화할 수 없다.

(71)

(약간 추워하는 B)

A: 영주 춥구나?

(최윤정, 초대 1-18회, KBS2, 1999)

(71)에서 A는 추워하는 B의 모습을 보고 B가 춥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추워라’로 발화할 수 없다. ‘-어라’는 ‘춥다’라는 명제를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논의된 ‘-어라’의 의미적 특징을 정리하면 (72)와 같다.

(72)

가. 의미, 화행: 감탄

나. 정보의 입수 경로: 직접 지각

다. 화자의 사유 정도: 즉각적

‘-어라’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용준(2017)을 참고할 수 있다. 조용준(2017: 126-128)은 ‘-어라’는 정도성을 지닌 표현과 결합하여 평가성(evaluativity), 현저성(salience)이 있는 경우에 결합이 가능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73)

가. *평범해라, *당연해라, *잠잠해라

나. [전혀 온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따뜻해라.

50) 이러한 현상을 조용준(2017)은 ‘즉각성, 현장성’이라 불렀고 박나리(2000)는 ‘즉각적인 반사작용’이라고 불렀다.

(73)은 조용준(2017: 126-128)에서 제시한 현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화자가 '-어라'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발화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중립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 용언의 정도가 높으며 화자의 관점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거나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저성이 떨어지면 '-어라'와의 결합이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라'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감탄이란 화자의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라'는 청자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혼자말로 사용된다. '-어라'는 '감탄' 외에 '즉각성'의 의미를 가진다. '즉각성'은 명제를 인식한 시점과 '-어라'가 발화되는 시점은 시간 차이를 거의 가지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선행 어간이 감각 형용사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라'로 표현되는 명제는 화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이다.

4.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네’와의 비교

4.1. 문법적 특징 비교

4.1.1. 선행 어간 및 주어 제약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중 특정 형용사 어간에만 결합하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는 어간 제약 없이 모든 용언에 결합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동사, 형용사, ‘있-, 없-’, ‘-이-, 아니-’로 어간 부류를 나누어 각 어미가 가지는 선행 어간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1)은 동사와 ‘-어라’, ‘-구나’, ‘-네’의 결합형이다.

(1)

가. *살아라.

나. 강한 놈만이 할 말 다하구 사는구나.

(송지나, 모래시계 15회, SBS, 1995)

다. 우리 성당에 거지들이 사네.

(홍정은 외, 미남이시네요 1회, SBS, 2009)

감탄형 ‘-어라’는 동사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1가)의 ‘살아라’는 자연스럽지 않다.⁵¹⁾ 반면 ‘-구나, -네’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구나’는 동사 뒤에서 (1나)과 같이 ‘-는구나’로 형태가 변한다.⁵²⁾ ‘-네’는 동사 뒤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살펴 볼 어간 부류는 형용사이다. 3.1.1.1.에서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가 감탄형 ‘-어라’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형용사는 하위 부류를 나누어 각각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는 심리 형용사와 ‘-어라’, ‘-구나’, ‘-네’의 결합형이다. (2)의 ‘부러워라’, ‘부럽구나’, ‘부럽네’는 모두 자연스럽다.

(2)

가. 부러워라. 그러구 살면 얼마나 좋아?

(문영남, 수상한 삼형제 3회, KBS2, 2009-2010)

51) 감탄형 ‘-어라’는 예외적으로 소수의 자동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자동사 목록은 3.1.1.1.을 참고할 수 있다.

52) 일부 화자들이 동사 어간 뒤에서도 ‘-구나’를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이는 잘못 활용한 예이다. 잘못 활용한 예 중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손님 *계시구나(→ 계시는구나).

(현고운, 1%의 어떤 것 1화, 드라마엑스, 2016)

나. 제 팬클럽 생긴 거 아직 *모르시구나(→ 모르시는구나).

(이덕재, 별난여자 별난남자 49화, KBS1, 2005-2006)

나. 여자들은 그런 게 부럽구나.

(김인영, 태양의 여자 11회, KBS2, 2008)

다. 난 논술대회에서 상 타 온 딸 있는 게 더 부럽네.

(김사경, 내사랑 내곁에 1회, SBS, 2011)

(3)은 감각 형용사와 ‘-어라, -구나, -네’의 결합형이다. (3)의 ‘아파라’, ‘아프구나’, ‘아프네’도 모두 자연스럽다.

(3)

가. (맞은 데 문지르며) 아따, 저 여자 증말. 승질 머리하곤. 아우, 아파라.

(노희경, 화려한 시절 21-30회, SBS, 2002)

나. 너 정말 심각하게 아프구나.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1-80회, KBS2, 2006)

다.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네.

(김석윤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223회, KBS2, 2004-2005)

(4)는 성상 형용사와 ‘-어라, -구나, -네’의 결합형이다. (4)의 ‘예빠라’, ‘예쁘구나’, ‘예쁘네’ 역시 모두 자연스럽다.

(4)

가. 아우, 예빠라.

(박경수 외, 내 인생의 스페셜 6회, MBC, 2006)

나. 아이고, 예쁘구나.

(홍정은 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2회, SBS, 2010)

다. 이름이 예쁘네.

(박정란, 행복한 여자 14회, KBS2, 2007)

(5)와 (6)은 심리 형용사, 성상 형용사, 감각 형용사가 아닌 형용사인데 (5가), (6가)는 자연스럽지 않다.

(5)

가. *달라라.

나.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시라 넌 역시 다르구나.

(김규완, 사랑한다 말해줘 2회, MBC, 2004)

다. 맛이 예전에 먹어본 거랑 다르네.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112회, KBS1, 2005-2006)

(6)

가. *알맞아라.

나. 지금 딱 알맞구나.

(MBC, 소비자 지갑 열어라... 저가 의류 '스파 브랜드' 대대적 할인, 2014년 7월 1일)

다. 딱 알맞네.

(임성한, 보고 또 보고 251-260회, MBC, 1998-1999)

유현경(1998)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다르다'는 대칭 형용사이고 '알맞다'는 기준 형용사이다. '-어라'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정상 형용사와만 결합하므로 다른 부류의 형용사로 감탄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5나, 다), (6나, 다)와 같이 '-구나'나 '-네'를 사용해야 한다. '-구나', '-네'는 어간 제약을 가지지 않으므로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정상 형용사가 아닌 다른 형용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7), (8)은 '있-', '없-'과 '-어라', '-구나', '-네'의 결합형이다.

(7)

가. *있어라.

나. 니가 보는 눈은 좀 있구나.

(구현숙, 열아홉 순정 80-167회, KBS1, 2006-2007)

다. 자식이 보는 눈은 있네~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71회, MBC, 2006-2007)

(8)

가. *없어라.

나. 넌 어린것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1-80회, KBS2, 2006)

다. 민용이가 집에 없네. 핸드폰도 안되고 애가 어딜 갔지?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83회, MBC, 2006-2007)

감탄형 '-어라'는 '있-', '없-'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7가)의 '있어라'와 (8가)의 '없어라'는 자연스럽게 않다. '-구나, -네'는 '있-', '없-'과 결합할 수 있고 그 사용은 (7나, 7다), (8나, 8다)와 같다.⁵³⁾

53)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있는구나'의 용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있-'의 의미에 따라 '-구나', '-는구나'가 모두 가능하다.

(9)

가. 아유, 맛있어라.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1-80회, KBS2, 2006)

나. 난 자는 게 재밌다. 아 재밌어라.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1-80회, KBS2, 2006)

다. 금새 또 무관심한 쪽이 되어버렸네. 재미없어라.

(은주영 외, 좋은 사람 7회, MBC, 2016)

다만, ‘있-, 없-’ 복합어 중 ‘맛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어라’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10), (11)는 ‘-이-, 아니-’와 ‘-어라, -구나, -네’의 결합형이다.

(10)

가. *딸이어라.

나. 오. 니가 기동이 딸이구나!

(고은님, 장난스런 KISS 1-16회, MBC, 2010)

다. 미소, 참 착한 딸이네!

(이유진, 못된 사랑 4회, KBS2, 2007-2008)

(11)

가. *사람이 아니어라.

나. 너두 사람이 아니구나.

(홍정은 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3회, SBS, 2010)

다. 그러고 보니 준수씨 좋은 사람 아니네.

(정하연, 달콤한 인생 9회, MBC, 2008)

‘-어라’는 ‘-이-, 아니-’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10가)와 (11가)는 자연스럽게 않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는 감탄형 ‘-어라’가 ‘-이-’와 결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는 ‘-이-’에 ‘-어라’가 결합하여 구어에서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었다. ‘-구나, -네’는 ‘-이-, 아니-’와 결합할 수 있다.

가. 네 동생은 암전히 있는구나.

나. 증거가 있구나.

(12)

가. 그 칼로 제 발등을 찌고 말았으니 역시 그 애비의 그 아들이로구나.

(나연숙, 에덴의 동쪽 25회, MBC, 2008-2009)

나. 너 아주 보통내기가 아니로구나.

(문영남, 수상한 삼형제 44회, KBS2, 2009-2010)

‘-구나’는 ‘-이-, 아니-’ 뒤에서 ‘-로구나’로 형태를 교체할 수 있다.⁵⁴⁾ 이러한 교체는 현재 시제일 때만 가능하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었구나’나 추측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된 ‘-겠구나’는 ‘-로구나’로 교체하지 못한다.

이처럼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지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는 동사, 형용사, ‘있-, 없-’, ‘-이-, 아니-’ 등 모든 용언과 제약 없이 결합한다. 다만, 노대규(1997: 90-91), 윤석민(2000: 138), 박재연(2013: 89), 조용준(2017: 128-129), 이소훈(2019: 4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라’는 문학 장르에서 선행 어간 제약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래는 노대규(1997: 90-91)에서 가져온 예문이다.

(13)

가.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변영로, ‘論介’)

나.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다.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덴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이상화, ‘나의 寢室’)

라. 나의 온 몸은 그러한 황야 그러한 어둠 그러한 목마름이어라.

(김현승, ‘健康體’)

마.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양주동, ‘어머니의 마음’)

(13)에서 ‘-어라’는 동사는 물론 ‘없-’, ‘-이-’와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용준(2017: 130)은 (13)을 통해 ‘-어라’가 의외성의 표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어라’의 쓰임이 현재보다 광범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소훈(2019: 49)은 (13)을 중세국어의 양상이 시적 표현에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어라’는 선행 어간에 따라 주어 제약이 달라진다. 선행 어간에 심리, 감각 형용사가 오면 1인칭 주어와 어울리고 성상 형용사가 오면 2, 3인칭 주어와 어울린다.

54) 『표준국어대사전』에 ‘-로구나’는 ‘-구나’보다 더 예스럽고 더 분명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14)

가. A: 아이고 무안해라.

(박연선, 얼렁뚱땅 흥신소 2회, KBS2, 2007)

나. B: 아이고, 어지러워라!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17회, KBS2, 2004)

그런데 '-어라'는 문형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서술어와 관계를 맺는 다른 문장 성분과 나타나지 않는다. (14)에서도 '무안해라'와 '어지러워라'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14)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생략된 주어가 나타난다. (15)는 (14)를 간접 인용한 문장이다.

(15)

가. A는 무안하다고 했다.

나. B는 어지럽다고 했다.

(15가)에서 주어는 'A', (15나)에서 주어는 'B'이다. 따라서 (14)에서 나타나지 않은 주어는 1인칭, 바로 화자 자신이다.

(16)

A: 아이구 불쌍해라.

B: 엄마 지금 유정이가 불쌍하다는 소리예요?

(최윤정, 황금마차 102회, MBC, 2002-2003)

(16)에서 A가 발화한 '불쌍해라'는 성상 형용사 '불쌍하다'에 '-어라'가 결합한 문장이다. B는 A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다시 말하고 있는데 '불쌍해라'에서 생략된 주어가 화자 A, 청자 B가 아닌 제3의 인물 '유정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나', '-네'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상황이 설정되면 '-구나', '-네'도 1인칭 주어와 어울릴 수 있다(장경희 1985: 82, 95, 윤석민 2000: 132, 박재연 2013: 91, 강현화 외 2019: 284, 291, 정순화 2021: 38). 아래 예는 정순화(2021: 38)에서 가져온 것이다.

(17)

가. 내가 이 중에서 노래를 제일 못 부르네/부르는구나.

나.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엄마 옷을 입고 왔네/왔구나.

정순화(2021: 38)는 기존 통합된 지식과의 위상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발견이라고 설명한다.

(18)

가. 니가 좀 아는구나.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17회, KBS2, 2004)

나. 역시 우리 성호가 똑똑하구나~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17회, SBS, 2007)

다. 니가 아주 눈에 보이는게 없구나.

(문영남, 수상한 삼형제 50회, KBS2, 2009-2010)

라. 너가 다칠까봐 걱정이구나.

(박종원,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

(19)

가. 아가씨가 한우 맛을 아네.

(홍정은 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5회, SBS, 2010)

나. 처제가 똑똑하네.

(김도우, 눈사람 4회, MBC, 2003)

다. 오늘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네.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12회, SBS, 2007)

라. 그나저나 니가 걱정이네.

(이재순, 궁 17회, MBC, 2007)

(18가, 19가)는 동사 '알다', (18나, 19나)는 형용사 '똑똑하다', (18다, 19다)는 '없다', (18다, 19다)는 '-이-'의 예로 문장의 주어는 모두 2인칭 또는 3인칭이다. 그런데 '-구나', '-네'의 선행 어간에 심리, 감각 형용사가 오면 1인칭 주어와 어울릴 수 있다.

(20)

가. 오늘 너무 즐겁구나.

(연합뉴스, "오늘 너무 즐겁구나", 2009년 5월 15일)

나. 난 네가 날 너무 많이 닮은 게 마음이 아프구나.

(정지우, 가문의 영광 11회, SBS, 2009)

(21)

가. 나는 우리 마누라랑 있는 것이 즐겁네.

(전북일보, [다큐공감] 남자의 일생: 찬란하고도 서글픈 남자 여든의 인생 보고서,)

나. 간만에 술 마셨더니 나두 머리가 아프네.

(정유경, *넌 어느 별에서 왔니* 7회, MBC, 2006)

(20가, 21가)는 심리 형용사 ‘즐겁다’, (20나, 21나)는 감각 형용사 ‘아프다’의 ‘-구나’, ‘-네’ 결합형으로 주어는 모두 1인칭이다.⁵⁵⁾ (20, 21)에서 ‘-구나’, ‘-네’가 1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알게 되어 주어 제약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 심리, 감각 형용사는 주어가 경험주이기 때문에 ‘즐겁다’, ‘아프다’의 느낌은 화자 자신이 가장 먼저 알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어 제약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네’는 2, 3인칭 주어와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기도 하다(정순화 2021: 39). 그런데 ‘-구나’는 선행 어간에 심리, 감각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도 2, 3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22)

가. 아, 애는 오늘 좀 즐겁구나.

(노컷뉴스, 문용린 “국제중, 검찰 수사 후 인가 취소할 수도”, 2013년 5월 28일)

나. 너 아프구나. 어찌다가.

(김지우 외, *학교 2* 29회, KBS2, 1999-2000)

(22)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구나’의 의미적 특징과 연관이 있다. 심리, 감각 형용사는 1인칭 주어와 어울려야 하지만 추측의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2, 3인칭 주어와 어울리는 것이 가능하다(유현경 1998: 76-77). ‘-구나’는 직접 경험한 정보뿐만 아니라 추론으로 알게 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데(장경희 1985: 103, 박재연 2004: 168) 이러한 ‘-구나’의 특징이 심리, 감각 형용사의 주어 제약을 해소한다.⁵⁶⁾

반면 ‘-네’는 일반적으로 현재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장경

55) 박재연(2014: 226-229)은 ‘-구나’가 심리, 감각 형용사와 결합할 때 1인칭 주어와 어울리는 것이 실제 언어 자료에 출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설의 대화, 드라마 대사어나 나을 법하고 실제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아래는 박재연(2014: 227)이 근거로 제시한 예를 가져온 것이다.

가. ?나는 지금 어깨가 아프구나.

나. ?나는 요즘 많이 외롭구나.

필자도 박재연(2014: 227)의 예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본고가 본문에서 근거로 제시한 예는 일상적 대화에서의 사용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찾은 ‘외롭다’ 또한 필자의 직관에는 1인칭 주어와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아, 외롭구나.

(박용집, 영화 ‘용의주도 미스신’, 2007)

이러한 결과는 박재연(2014: 226-229)의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차이를 가진다.

56) 정순화(2021: 39-40)은 ‘-구나’가 심리, 감각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 2, 3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의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용적 의미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희 1985: 103, 박재연 2004: 165, 송재목 2015: 128, 박지은·최선지 2021: 286) 1인칭 주어와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네’가 심리 형용사 ‘즐겁다’와 감각 형용사인 ‘아프다’를 선행 어간으로 가지는 경우 2, 3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⁵⁷⁾

(23)

가. 너희는 즐겁네.

(뉴스엔, 김제동 우울한 일상 “밥은 1일1식... 멍때리며 하루 보내”, 2014년 11월 15일)

나. 단아가 지금 많이 아프네요.

(정지우, 가문의 영광 29회, SBS, 2009)

(23나)는 학자에 따라 문장의 적격성이 다르게 해석된다. 장경희(1985: 103)는 ‘아프다’ 등의 심리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에 대해서는 화자가 남의 마음의 상태나 감각의 상태를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네’는 1인칭 주어 문장에서만 문법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서 (23나)는 비문이다. 박재연(2014: 227, 232) 역시 ‘-네’가 감각 형용사나 심리 형용사와 사용되면 2, 3인칭 주어를 취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장경희(1985)와 맥을 같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을 지각했을 때 이를 지각에 의한 정보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23나)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박재연(2014)의 논의를 바탕으로 (23)을 본다면, (23)에서 주관 형용사의 주어 제약이 해소된 것은 ‘너희는 즐겁다’, ‘단아가 아프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독 ‘즐겁다’, ‘아프다’에서 주관 형용사의 주어 제약이 해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즐겁다’, ‘아프다’가 다른 심리 형용사나 감각 형용사에 비해 화자가 상대의 상태를 지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화자가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 준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네’는 사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박재연 2014: 232). 심리, 감각 형용사는 (22)과 (23)에서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22), (23)의 해소 양상은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 -구나, -네’ 중 ‘-어라’는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진다. ‘-구나’, ‘-네’는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어라’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와 결합한다. ‘-어라’에 결합하는 서술어가 심리, 감각 형용사이면 주어는 1인칭이고 성상 형용사이면 주어는 1인칭이 아니다. ‘-구나’, ‘-네’는 결합하는 서술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구나’, ‘-네’에 결합하는 서술어가 심리, 감각 형용사이면 1인칭 주어도 허용한다. 이는 심리, 감각 형용사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구나’의 경우 선행 어간이 심리, 감각 형용사인 경우에도 2, 3인칭 주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는 ‘-구나’가 나타내는 ‘추론’이라는 의미적 특징과 연관이 있다.

57) 장경희(1985: 103)은 ‘애가 또 어디 아프구나’는 자연스러운 반면 ‘애가 또 어디 아프네’는 비문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로 ‘아프다’는 화자가 직접 지각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임을 든다.

4.1.2. 선어말 어미 결합 제약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중 ‘-어라’와 ‘-네’는 선어말 어미 결합에 제약이 존재한다. ‘-구나’는 선어말 어미 결합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시-’, ‘-었-’, ‘-겠-’, ‘-더-’로 나누어 각 어미가 가지는 선어말 어미 결합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24)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와 ‘-어라’의 결합형이다.

(24) 아이구 답답하셔라. 밥이 없다 그럼 쌀을 씻어서 지어 먹어야죠.

(송지나, 카이스트 38회, SBS, 1999-2000)

‘답답하다’는 심리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상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25)

가. 가슴이 답답하다.

나. 그는 너무 답답해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

(25가)에서 ‘답답하다’는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를 뜻하는 심리 형용사이고 (25나)에서 ‘답답하다’는 ‘융통성이 없이 고지식하다’를 뜻하는 정상 형용사이다. (24)의 ‘답답하다’는 (25나)의 의미를 나타낸다.

(26) (일어나 앉으며) 아이구 답답해라.

(정지우, 별을 따다줘 8회, SBS, 2010)

(26)은 심리 형용사인 (25가)의 ‘답답하다’로 ‘-시-’와 결합할 수 없다. 이처럼 ‘-어라’는 선행 어간에 심리, 감각 형용사가 오면 ‘-시-’와 결합할 수 없고 정상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만 ‘-시-’와 결합한다.

반면 ‘-구나’, ‘-네’는 선어말 어미 ‘-시-’ 결합에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27)

가. 아줌마가 날 잘 모르시는구나.

(박지은, 내조의 여왕 17회, MBC, 2009)

나. 그래서 마음도 고우시구나.

(김태용, 영화 ‘가족의 탄생’, 2006)

다. 그 분이 안목이 있으시구나.

(정유경, 넌 어느 별에서 왔니 2회, MBC, 2006)

라. 이 분이 그분이시구나.

(여지나, 결혼 못하는 남자 1회, KBS2, 2009)

(28)

가. 똑똑한 양반이 뭘 모르시네.

(이희명, 수호천사 1-16회, SBS, 2001)

나. 할머니 고우시네요.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27회, KBS1, 2005-2006)

다. 이과장님께서 인복이 있으시네요.

(이기원, 하얀거탑 4회, MBC, 2007)

라. 여기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네.

(홍영희, TV소설 인생화보 51회, KBS1, 2002-2003)

(27), (28)에서처럼 ‘-구나, -네’는 선행 어간이 동사, 형용사, ‘있-, 없-’, ‘-이-, 아니-’ 모두에 ‘-시-’가 결합할 수 있다. 다만 ‘-구나’, ‘-네’의 선행 어간에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가 오면 이들 형용사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여 ‘-시-’를 결합할 수 없어야 한다.

(29)

가. A: 저 그냥 여기서 택시 타고 갈까요?

B: 세 시간 고생한 거 수포로 돌리랴구요?

A: 아까우세요? 아, 아까우시구나. 뭇분들이 그러시드라구요. 실장님 집요하시다구.

(정지우,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4회, SBS, 2007)

나. (문득 은이가 깡다. 껌연쩍게 웃는다.)

A: (들어서며) 피곤하시구나.

B: (화들짝) 아네요, 괜찮아요.

(임상수, 영화 ‘하녀’, 2010)

심리 형용사와 감각 형용사의 주어 자리에는 1인칭만 올 수 있기 때문에 (29)에서 ‘아까우시구나’, ‘피곤하시구나’는 비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29)에서 ‘아깝다’, ‘피곤하다’는 주어로 2인칭을 취하고 ‘-시-’ 결합도 자연스럽다. 이는 ‘-구나’가 추론을 통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4.1.1에서 전술하였듯이 ‘-구나’는 추론으로 알게 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심리, 감각 형용사의 주어 제약이 해소된 것이다.

(29)

가. 아까우세요? 아, ?아까우시네. 윗분들이 그러시드라구요. 실장님 집요하시다구.

나. (문득 은이가 깐다. 겸연쩍게 웃는다.)

A: (들어서며) ?피곤하시네.

B: (화들짝) 아네요, 괜찮아요.

(29')는 (29)에서 사용된 종결 어미 '-구나'를 '-네'로 바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29')는 (29)보다 덜 자연스러운 것으로 처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네'가 추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논의되었기 때문이다(장경희 1985: 103, 박나리 2000: 342, 박재연 1999, 박재연 2004, 정인아 2010).⁵⁸⁾ 이러한 점은 '-구나'와 '-네'가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논의되기도 한다.⁵⁹⁾

'-어라', '-구나', '-네' 중 '-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30)

가. *재미없었어라/재미있었어라!

나. 재미없었구나, 개랑?

(인정옥, 네 멋대로 해라 1-20회, MBC, 2002)

다. 그래도 잠깐 재미있었네.

(김석운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72회, KBS2, 2004-2005)

(30)에서 '-어라', '-구나', '-네'의 선행 어간은 '재미있다, 재미없다'이다. (28가)는 자연스럽지 않다. (30나, 다)는 자연스럽다.

완료 지속을 표시하는 '-었-'은 (31)의 용례를 통해 확인된다.

(31)

가. 진짜 봄이 왔구나.

(KBS,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객 북적...파란 하늘서 축하 비행 '슝', SBS, 2024년 3월 31일)

나. 또 지긋지긋한 봄이 왔네.

(국제신문, [정미래의 한방 이야기] 봄 불청객 알레르기, 면역을 점검하라, 2024년 4월 15일)

(31)과 같이 완료를 표시하는 '-었-'은 특정한 경우에 나타나는 부차적인 기능이다(이익섭·채완 1999: 277-278).

'-구나, -네'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의 결합에 대해 박진호(2011: 13-14)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독특한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뒤늦은 깨달음은

58) 증거성, 직접 지식, 간접 지식에 대한 정의는 송재목(2009: 33)을 재인용하였다.

59) (29')를 적격성이 의심스러운 문장으로 처리하였지만 발화 사실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을 지각하였다면 '-네'를 사용한 문장도 적합할 수 있다.

‘-었구나, -었네’에서만 나타나는 의미도 아니고 ‘-었구나, -었네’의 모든 용례에서 나타나는 의미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뉘앙스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박재연(2013: 97-98)도 이와 비슷한 논의를 하며 ‘흔적 지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흔적 지각’이란 과거의 사태가 남긴 흔적을 지각하고 과거의 사태를 추론한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나타냄을 뜻한다.

‘-어라, -구나, -네’ 중 ‘-어라’는 추측 선어말 어미 ‘-겠-’ 결합에 제약을 가진다.

(32)

가. *아프겠어라!

나. 그런 말 들으면서 미옥씨가 참 맘 아프겠구나.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6회, KBS2, 2004)

다. 정말 아프겠네.

(정지우, 가문의 영광 47회, SBS, 2008-2009)

따라서 (32가)는 자연스럽게지 않지만 ‘-구나, -네’는 ‘-겠-’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므로 (32나, 32다)는 자연스럽게다. 박재연(2005: 109-110)은 ‘-구나, -네’가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면 평서문보다 의문문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⁶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겠-’은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33)

-겠-

「어미」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나는 시인이 되겠다.

(『표준국어대사전』)

(34)

가. 나는 시인이 되겠구나.

나. 나는 시인이 되겠네.

(32)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냄에 달려 있는 예문의 종결 어미를 ‘-구나’, ‘-네’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34)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고보다 추측을 나타내는 ‘-겠-’으로 해석된다. 이는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구나’, ‘-네’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60) ‘-구나, -네’의 의문문적 용법은 4.1.3.을 참고할 수 있다.

대해서는 손현선(199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구나’와 ‘-네’는 발화자가 명제 내용의 근거가 자신의 지식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어미인데, 의지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체계 안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라, -구나, -네’ 중 ‘-어라, -네’는 양태 선어말 어미 ‘-더-’ 결합에 제약을 가진다.

(35)

가. 나도 좀 당황스럽더라.

(김의찬 외, 그저 바라보다가 13회, KBS2, 2009)

나. *당황스럽더네.

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구나.

(임성한, 보고 또 보고 31-40회, MBC, 1998-1999)

(35)에서 ‘-어라, -구나, -네’는 선행 어간으로 감탄 형용사 ‘당황스럽다’를 취한다. 그러나 (35가)의 ‘-더라’는 어미 ‘-더-’와 어미 ‘-라’가 결합한 말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35나)의 ‘-네’는 선어말 어미 ‘-더-’와 결합하지 않는다.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어라’와 ‘-네’는 현재 인식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더-’와 결합하지 않는다.⁶¹⁾ ‘-구나’는 ‘-더-’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더구나’가 하나의 표제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36)

-더구나

「어미」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표준국어대사전』)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 ‘-어라’는 어간이 성상 형용사인 경우에만 주체 존재 선어말 어미 ‘-시-’와 결합한다. ‘-구나’는 선어말 어미 결합에 제약을 가지지 않으므로 ‘-시-, -었-, -겠-, -더-’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네’는 ‘-시-, -었-, -겠-’과 결합하지만 ‘-더-’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네’와 ‘-더-’가 결합하지 않는 것은 각 어미가 가지는 양태 의미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61) 특히 ‘-네-’와 ‘-더-’의 관계는 ‘현재의 감각적 관찰’과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장경희 1985, 박재연 2004, 송재목 2007). ‘-어라’가 ‘-더-’와 사용될 수 없는 현상도 ‘-어라’가 ‘현재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3. 문장 기능

‘-어라, -구나, -네’는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상관적 장면은 화자와 청자가 참여하는 전형적인 대화를 말하고 단독적 장면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을 말한다(남기삼·고영근 2015: 350). 상관적 장면은 청자를 고려하여 말하고 단독적 장면은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

(37)

가. (A, 벌떡 일어나면 꿈이고)

A: 어이구 망측해라.

(김현희, 워킹맘 6회, SBS, 2008)

나. (행주로 냉장고를 닦고 또 닦는 A)

A: (혼잣말로) 냉장고가 들어오니깐 부엌이 번쩍번쩍하는구나!

(구현숙, 열아홉 순정 1-30, 32-79회, KBS1, 2006-2007)

다. (중학교 운동장. A, 걸어 들어온다. 넓은 운동장. 어쩐지 좋아보이고)

A: 너무 좋네. 이래서 강남, 강남 하는구나~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3회, SBS, 2007)

(37)의 발화 상황에는 화자만 존재한다. 화자가 청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된 예로 간주할 수 있다.⁶²⁾⁶³⁾

(38)

가. A: 동해가 뭐예요? 사위를

B: 그럼 뭐라고 해요? 성도 없는데. 동해라고 동서방이라고 해요 그럼?

A: 그러네. 김서방도 아니고 조서방도 아니고. (한숨) 이휴. 오늘 우리 사위 속이 오죽할까. 아버지 찾아서 한국 와 그 고생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보란 듯이 결혼식도 다 못 마치고 할아버지마저 쓰러지고. 어이구 가엾어라 내 사위 쫓쫓.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147회, KBS1, 2010-2011)

나. A: 개인이 친구라고 하면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B: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박개인씨하고 저도 이젠 친구 사인 걸요.

A: (혼잣말로) 친구 옆는데 맛 들였구나, 박개인.

B: 네?

A: 아, 아니예요.

(이새인 외, 개인의 취향 10회, MBC, 2010)

62) 그러나 이익섭·채완(2000: 258)에서 지적된 것처럼 현실에서 정말로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 말을 마음 속으로 할 뿐이지 소리 내서 말하는 상황은 드물다.

63) 구현정(1996: 13)은 ‘-구나’가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관적 장면(대화문)에서만 사용된다고 했지만 실제 언어 자료에서는 단독적 장면에서도 ‘-구나’를 사용하는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 A: 어우!(하며, 몸을 뒹굴며, 아파하고)

B: 오호호호.(하며, 발을 구르며 좋아하는)

C: (웃고)

D: (그런 세 사람을 보며 심드렁하게 혼잣말하는) 재미나게들도 노시네.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26회, KBS2, 2004)

(38)는 발화 상황에 화자 외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38가)와 (38나)에서 ‘우리 사위’와 ‘박개인’이라는 인물은 발화 상황에 없는 인물인데 화자는 그 인물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38다)에서 D는 A, B, C를 신경쓰지 않고 말하고 있다.

(39)

가. (더운 날씨에 제자가 선생님 댁을 방문한 상황)

제자: 어휴, 더워라.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 줄까?

(전후민 2015: 20)

나. (싸구려 홈웨어 같은 거 구경하는 A와 B …중략…)

A: 시장 물건이 싸고 좋구나.

B: 사.

(박정란, 노란 손수건 27회, KBS1, 2003)

다. A: 아씨, 여기도 춥네?

B: (시동 걸어 히터부터 틀며) 잠시만... 히터를 켜면 좀 나아질 거야.

(조명주, 내 인생의 콩깍지 13회, MBC, 2003)

(39)도 (38)과 같이 발화 상황에 화자 외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화에 가깝다. 그러나 (39)의 청자는 화자의 말을 듣고 화자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38)과 다르다. (39)에서 ‘-어라, -구나, -네’ 구문은 명령의 간접 화행을 수행한다. 화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발화가 간접 화행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혼잣말로만 끝나고 말 것이다(이익섭·채완 1999: 257).

이렇듯 ‘-어라, -구나, -네’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혼잣말로 사용할 수 있다.⁶⁴⁾ ‘-어라, -구나, -네’ 중 혼잣말의 성격을 가장 많이 띠는 종결 어미는 ‘-어라’이다.

(40)

가. A: 어때요, 형~

B: 그래, 좋구나. 연말 기분도 나고.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58회, KBS1, 2010-2011)

64) 임동훈(2011: 334)은 ‘-구나, -네’가 전달보다 내적 인식이 우선인 어미이기 때문에 혼잣말로 자주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어라’가 혼잣말에 사용되는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나. A: (상가 거울 보고 빗질하는 상우에게) 이거 어때?

B: (건성으로 보며) 좋네.

(문영남, 애정의 조건 31-39, 41-60회, KBS2, 2004)

(40)은 상관적 장면으로 쓰인 대화문이다. (40)에서 ‘-구나’, ‘-네’ 구문은 A의 물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어라’는 ‘-구나’, ‘-네’와 달리 선행 발화에 대한 대응적 반응을 나타내는 성질이 약하다.

(40')

가. A: 어때요, 형~

B: 그래, *좋아라. 연말 기분도 나고.

나. A: (상가 거울 보고 빗질하는 상우에게) 이거 어때?

B: (건성으로 보며) *좋아라.

(40')는 (40)의 ‘-구나’, ‘-네’를 ‘-어라’로 바꾼 것이다. (40')에서 ‘좋아라’는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⁶⁵⁾ ‘-어라’는 화자와 청자가 설정된 상황에서 단순한 진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나’, ‘-네’의 정의에는 이들 어미가 혼잣말로 쓰인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으나 ‘-어라’의 정의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⁶⁶⁾

상관적 장면에서 종결 어미 ‘-네’를 사용할 때 청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라면 높임의 보조사인 ‘-요’를 붙여 말할 수 있다.

(41)

A: 영원히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B: 지금 상황으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문영남, 애정의 조건 31-39, 41-60회, KBS2, 2004)

‘-요’는 ‘-어라, -구나, -네’ 중 ‘-네’에만 붙는다. ‘-요’는 해체 어미와 결합되어 사용되는데 ‘-어라, -구나, -네’ 중 ‘-네’만 해체 어미이기 때문이다.

(42) 집에 잘 들어 갔군요.

(최윤정, 황금마차 108회, MBC, 2002-2003)

65) ‘좋아라’로 대답이 자연스럽다면 그것은 상대의 발화에 대한 대응적 반응이라기 보다는 화자의 감정 표현에 가깝다.

66) 전후민(2015)은 한국어에서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 어미 목록과 이러한 종결 어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전후민(2015)의 목록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어라’와 비교 대상인 ‘-구나, -네’가 모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나’는 보조사 ‘-요’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사 ‘-요’와 결합할 수 있는 해체 어미 ‘-군’으로 형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⁶⁷⁾

‘-구나’와 ‘-네’가 대화문에서 사용될 때 (43)과 같이 의문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43)

가. A: 마음 쓰이는 사람이 있구나?

B: 아니.

(여지나, 9회말 2아웃 14회, MBC, 2007)

나. A: 요새 호주 출장이 참 자주 있네?

B: (당황) 응.

(정유경, 넌 어느 별에서 왔니 2회, MBC, 2006)

(43)에서 B는 A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응/아니’로 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한다. (43가)에서 A는 B에게 마음 쓰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응/아니’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 (43나)에서 A는 B에게 출장이 자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응/아니’의 대답을 요구한다. 이처럼 화자가 가지거나 추측하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하고자 할 때 ‘-구나’와 ‘-네’가 의문문으로 사용된다. 이때 말끝의 억양은 올라간다.

(44)

가. *철수는 언제 가네?

나. *철수는 가네, 안 가네?

(박재연 2005:107)

(45)

가. *청소를 언제 다 해 봤구나?

나. *청소를 다 해 봤구나, 안 해 봤구나?

(박재연 2005:109)

박재연(2005)은 ‘-구나, -네’가 의문문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설명 의문문이나 선정 의문문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유사 의문문’ 용법으로 정의하였다. ‘-구나, -네’의 유사 의문문 용법은 윤석민(2000), 신선경(2001), 문창학(2014)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윤석민(1996)은 감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문법의 형식이 널리 이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화자가 정보를 이미 지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문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신선경(2001: 71-72) 역시 ‘-군(요)’와 ‘-네(요)’가 가지는 ‘지각’이라는 양태 의미로 인해 판정 의문문으로만 실현될 수 있고 설명 의문문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판정 의문

67)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군’은 ‘-구나’의 준말이다. 준말과 본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군’과 ‘-구나’는 의미적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의 경우도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화자가 지각한 내용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덧붙인다. 문창학(2014:95)도 ‘-네(요)’와 ‘-군(요)’의 의문문을 ‘동의·확인 요구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앞선 세 논의들이 ‘-구나, -네’가 의문문으로 사용된 경우 이를 진정한 의문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재연(2005)의 ‘유사 의문문’ 용법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박재연은 ‘-구나, -네’가 유사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 선어말 어미 ‘-겠-’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어라, -구나, -네’가 ‘하다’와 함께 사용되는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어라’는 ‘-어라 하-’로 사용된다.⁶⁸⁾

(46)

가. 그렇다고 나몰라라 하면 돼? 결혼한 이상 자기 할 도린 해야지 최소한
(임성한, 보고 또 보고 231-240회, MBC, 1998-1999)

나. 더군다나 옥자씨가 저렇게 좋아라 하니 더 기운이 팔팔 납니다.
(강은경, 오! 필승 봉순영 12회, KBS2, 2004)

다. 동네 슈퍼 노총각이 아정을 알아보고 좋아라 한다.
(김예리, 내게 거짓말을 해봐 1회, SBS, 2011)

‘-어라 하-’는 (46)의 ‘나몰라라 하-’, ‘좋아라 하-’가 압도적인 고빈도를 차지한다. ‘-어라 하-’는 형용사와 결합하지만 (46가)에서처럼 동사 ‘모르다’와 결합하는 용례도 있었다. ‘나 몰라라’에 결합한 ‘-어라’는 명령의 ‘-어라’가 아니다.⁶⁹⁾ ‘나 몰라라 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어떤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도 간섭하지도 아니함’을 의미하는 관용구로 등재되어 있다. (47나, 다)에서 ‘좋아라 하-’는 옥자씨, 노총각이 좋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소훈(2019)에 따르면 ‘-어라 하-’ 구성은 20세기 전반기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예이다. (47)은 이소훈(2019: 51)에서 가져온 예이다.

(47)

가. 이상스러워라 흥던 촌에 차집에 나가보겠다는 말에 <구의산上> 46)

나. 좋아라고 손에 든 술을 흘리고 앉았다. (<흙2 226> 1993)

다. 꼬마랑 여럿은 좋아라고 웃어대고 (<도야지 25> 1948)

이소훈(2019)은 이제 현대국어에서 (47나, 다)를 표현해야 한다면 ‘좋다고’로 실현된다고 하지만 ‘좋아라고’는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사용된다.

68) 동사와 결합하는 ‘-어라 (하고)’ 구성에 대한 논의로는 이후인(2019)이 있다. 이후인(2019)은 동사와 결합하는 ‘-어라 (하고)’는 명령형에서 왔으며 ‘행위의 강도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심함’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동사와 결합하는 ‘-어라 하-’ 구성은 본 논의에서 다루지 않는다.

69) ‘모르다’는 명령문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고성환(2003: 93)은 ‘모르다’의 경우 아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자발성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8)

가. 이자 받아 쳐먹을 때는 좋아라고 꼬릴 흔들더니!

(정성희, 국희 1-20회, MBC, 1999)

나. 철수는 좋아라고 꼬마들과 장난을 치지만, 용기는 죽을 맛이다.

(오기환, 영화 '선물', 2001)

더불어 '-어라'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심리 용언과 결합하여 감탄문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현재 '좋아라 하-', '몰라라 하-' 구성으로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구나', '-네'도 '-구나 하-', '-네 하-'로 사용된다.⁷⁰⁾

(49)

가. 내가 아차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했는 줄 아니?

(박대연, 영화 '연풍연가', 1999)

나. 죽었구나 하고 책상에 얼굴 문듯이 집중한다.

(이희명, 수호 천사 1-16회, SBS, 2001)

다. (한 대 맞으면 죽겠구나 하는 표정)

(허인무, 영화 '신부 수업', 2004)

(50)

가. 나 죽네 하며 끄끙 앓는 소리 내며 누워 있다.

(이경희, 꼭지 1-24회, KBS2, 2000)

나. 뭐든 시키면 나 죽었네 하고 할게.

(노희경, 그들이 사는 세상 2회, KBS2, 2008)

다. 기집애, 귀여워 죽겠네 하는 표정 짓다가 표정이 확 일그러진다.

(이경희, 꼭지 1-24회, KBS2, 2000)

(49)는 '-구나 하-', (50)은 '-네 하-'이다. '나 몰라라 하-', '좋아라 하-'가 압도적인 고빈도를 보였던 '-어라 하-'와 달리 '-구나 하-', '-네 하-'는 압도적인 고빈도로 나타나는 어간은 따로 없었다. (49나, 다), (50나, 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 '-었-', '-겠-'과도 자유롭게 결합이 가능하였다. 후행 명사는 '느낌, 생각, 심정, 얼굴, 표정' 등이 많았으며 주로

70) 김유정(2008: 253)은 '-네 하-'의 예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구나'와 '-네'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는 '-네 하-'의 예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군 하-'는 '-구나 하-'보다 그 빈도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군'과 '-구나'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인물의 표정이나 심리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어라 하-, -구나 하-, -네 하-’는 (46가, 나), (49가), (50나)와 같이 구어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46다), (49나, 다), (50가, 다)와 같이 지문, 시놉시스 등의 문어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라’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단독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결 어미이다. ‘-구나, -네’는 청자를 고려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청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어라, -구나, -네’ 중 ‘-어라’는 단순한 진술, 선행 발화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혼잣말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가지는 어미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될 때 청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면 높임의 보조사 ‘-요’를 붙여서 말할 수 있다. ‘-구나’는 준말 ‘-군’에 ‘요’가 결합한다. ‘-구나, -네’가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될 때 화자가 가지거나 추측하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하는 유사 의문문적 용법을 가지기도 한다. ‘-어라’는 유사 의문문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유사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으로만 사용되고 문장의 끝에서 억양이 올라간다. ‘-어라, -구나, -네’는 ‘하-’와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어라 하-’는 ‘나물라라 하-, 좋아라 하-’가 압도적인 고빈도를 보이는데 반해 ‘-구나 하-, -네 하-’는 두루두루 사용되었으며 선어말 어미 ‘-었-, -겠-’과도 결합할 수 있었다. ‘-어라 하-, -구나 하-, -네 하-’에는 명사 ‘느낌, 생각, 심정, 얼굴’ 등이 후행하여 주로 인물의 표정이나 심리를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어라 하-, -구나 하-, -네 하-’는 문어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구어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4.1.4. 감탄사 결합

한국어에서 감탄사는 문장의 어느 한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으며 어미나 조사를 취하지 않는다.⁷¹⁾ 남기심·고영근(2015: 177-180),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8: 192-193)에 따르면 감탄사는 일반적으로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와 결합되며 ‘입버릇 및 더듬거림’을 추가할 수 있다.

(51)

가. 기쁨(허, 하 등), 슬픔(아이고, 어이 등), 한숨(후, 후유 등), 놀라움(아, 애고 등)...

나. 여보세요, 자, 애, 그래, 글썸, 천만에...

다. 머, 뭐, 말이지, 저, 음, 에hem...

(남기심·고영근 2015: 177-180)

(51가)는 감정 감탄사, (51나)는 의지 감탄사, (51다)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감정 감탄사는 기쁨, 슬픔, 한숨 등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71) 일반적으로 감탄사는 독립된 품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김문기(2012)는 감탄사 중 일부는 뒤에 오는 종결 어미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문장의 의미와 어미에 제약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감탄사가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감탄사를 독립된 품사로 보지 않고 부사의 하위 부류로 분류한다.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 의지 감탄사는 상대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의 이야기에 긍정, 부정 등을 표현한다. 입버릇 및 더듬거림은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보다 특별한 뜻 없이 입버릇으로 내는 소리이거나 화자가 다음 발화를 이어갈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한다(남기심·고영근 2015, 이현희 2015). 그러나 입버릇 및 더듬거림 중에는 감정 감탄사와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많고 사전적 정의에도 분명하게 그 뜻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본고는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 결합에 한해서 논의할 것이다.

‘-어라, -구나, -네’ 중 ‘-어라’만이 감탄사 결합에 제약을 가진다. ‘-어라’는 감정 감탄사와만 결합하며 의지 감탄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52)

가. 아유 맛있어라.

(임성한, 온달 왕자들 43회, MBC, 2000-2001)

나. 망측해라 세상에.

(김인영, 비밀남녀 19회, MBC, 2005)

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라야. 우리 석현이 손이 제법 여물다?

(이흥구, 김가이가 18회, MBC, 1993-1994)

(52가)의 ‘아유’, (52나)의 ‘세상에’, (52다)의 ‘아이고’는 모두 감정 감탄사이다. ‘-어라’와 결합하는 감탄사 중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감탄사도 있었다.

(53)

가. 어라, 싫어라.

(오수연, 러브레터 1-10회, MBC, 2003)

나. 엄마야 뜨거워라.

(임성한, 보고 또 보고 201-210회, MBC, 1998-1999)

(53가)의 ‘어라’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는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다, (53나)의 ‘엄마야’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놀랐을 때 내는 소리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⁷²⁾ 감정 감탄사와만 결합하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는 감탄사 결합에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72) 함병호(2021: 134)는 감정 감탄사는 구체적인 청자가 없이 화자의 혼잣말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대답의 의지 감탄사는 구체적인 청자가 존재하고 질문의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 감탄사가 의지 감탄사보다 더 큰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는 ‘-어라, -구나, -네’ 중 ‘-어라’가 혼잣말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가진다는 사실과 자립성이 강한 성분만이 ‘-어라’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54)

가. 아이구 재밋구나~

(TV리포트, [T포토] 박정자 “아이구 재밋구나~”(해롤드&모드), 2015년 1월 15일)

나. 그래, 고맙구나.

(오수연, 러브레터 1-10회, MBC, 2003)

(55)

가. 하하하 재밋네.

(동아일보, 오늘은 지구의 날.. ‘유쾌한 경각심’ 장착하고 행동하려면, 2022년 4월 22일)

나. 그래 고맙네.

(정지우, 가문의 영광 8회, SBS, 2009)

(54가, 55가)는 감정 감탄사, (54나, 55나)는 의지 감탄사의 결합을 보여주는 예이다.

(54')

가. 아이구 재밋어라~

나. 그래, *고마워라.

(55')

가. 하하하 재밋어라.

나. 그래 *고마워라.

(54', 55')는 (54, 55)의 '-구나, -네'를 '-어라'로 바꾼 것이다. 서술어가 단독으로 사용되어 감정 감탄사와 나타나는 경우에만 '-어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⁷³⁾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탄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탄형 종결 어미는 감탄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감탄사는 크게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로 나뉜다. '-어라, -구나, -네' 중 '-어라'만이 감탄사 결합 제약을 가진다. '-어라'는 감정 감탄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감정 감탄사는 청자를 상징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의 쓰임이 자유로운 반면 의지 감탄사는 상관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73) 감탄형 종결 어미가 감탄사와 공기할 때 나타나는 음성적 정보에 대한 연구는 박지은·최선지(2021)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네'는 표현하는 의미에 따라 공기하는 감탄사의 억양이 달라진다. '-네'가 화자가 놀람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이라면 '어↗'와 같은 감탄사가 선호되고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추리한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는 상황이라면 '어↘'와 같은 감탄사가 선호된다는 점을 든다. 이는 '-구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4.2. 의미적 특징 비교

이 절에서는 ‘-어라’와 ‘-구나’, ‘-네’의 의미적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표 15, 16>은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구나’, ‘-네’의 의미이다.

<표 15>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구나’의 의미

	의미	출처
사전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1.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탄하거나 주목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하려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한 감탄을 할 때 쓴다. 2. 단순히 어퍼함을 나타낸다. 3.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 확인하려고 물을 때 쓴다. 4. 새로 깨달은 사실에 대해 탄식하여 말할 때 쓴다.	연세한국어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영탄적으로 진술할 때 쓴다.	남기심·고영근 (2015: 356)
문법서	추론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한다. 어떤 특별한 추론 없이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어교육문법 자료편 (2016)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쓴다. 추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말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2017)
	1.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쓴다. 2. 감탄하며 혼자 말할 때도 쓴다.	한국어 교사를 위한 문형 예문집(2019)
	처음 앎	장경희 (1985: 93)
선행 연구	1. 문장의 내용에 대한 수행의지 표시가 없다. 2. 문장의 내용은 말하는 때에 새로 알게 된 것이다. 3. 문장 내용을 사실로 인식할 때에도 그 사실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고창운 (1995: 626)
	현재지각한 사실이나 간접적이고 복잡한 인지 과정인 직관을 통해 알게된 사실을 정감적으로 표현	박나리 (2000: 330)
	화자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나 이미 알고 있던 것이라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명제 내용에 대하여 주관적인 정서를 담아 표현하는 경우에 쓴다.	윤석민 (2000: 131)
	정보의 획득 방법: 지각·추론 정보의 내면화 정도: 새로 앎	박재연 (2004: 168)

<표 16> 사전과 문법서, 선행 연구에 나타난 ‘-네’의 의미

	의미	출처
사전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데 쓰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드러난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1.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탄하여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듣는 이에게 동의를 구하며 물어 보는 뜻을 나타내는 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듣는 이에게 반말로 확인 서술함을 나타내는 말 2. 말하는 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반말로 서술함을 나타냄. 3. 명제 내용에 대한 말하는 이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듣는 이에게 반말로 동의를 구하는 물음을 나타냄. 4. 시 같은 글에 쓰이는 말	연세한국어사전
	1.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감탄하여 말할 때 쓴다. 2. 화자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때 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새로 지각하여 알게 된 사실을 놀라움이나 감탄의 감정을 더하여 말할 때 쓴다.	이익섭·채완 (2000: 258-259)
문법서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부드럽게 말할 때 사용한다. 새로운 정보를 처음 맞닥뜨리자마자 놀라듯이 말할 때 사용한다.	한국어교육문법 자료편(2016)
	새로운 깨달음의 내용을 말할 때 사용된다. 새로운 정보를 추론의 과정이 수반되면 자연스럽다.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2017)
	1.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냄. 2.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거나 짐작한 내용에 대해 듣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여 물어볼 때 쓴다.	한국어 교사를 위한 문형 예문집(2019)
	현재 지각, 감각적 경험에 의한 앞	장경희 (1985: 80)
선행 연구	현재지각한 사실을 정감적으로 표현	박나리 (2000: 330)
	화자의 놀람이나 감탄같은 강한 정감적 태도를 나타낼 때 쓴다. ⁷⁴⁾	윤석민 (2000: 112)
	정보의 획득 방법: (현재) 지각 정보의 내면화 정도: 새로 앞	박재연 (2004: 165)
	명제가 표시하는 사건,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화자가 현재 직접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송재목 (2007, 2015)

	1. 새로운 또는 예상치 못한 그래서 화자의 기존 지식에 아직 동화되지 않은 정보를 나타냄. 2. 1번 의미와 동시에 화자의 객관화 의미가 추가되어야 됨.	정경숙 (2012)
	1. 청자에 대한 고려 없이 직접 지각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깊은 사유를 거치지 않고 놀람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 (전형적 용법) 2. 화자가 본인의 추리가 직접 지각한 정보만큼 강한 증거를 가진 것임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함. (비전형적 용법)	박지은·최선지 (2021)

우리는 앞서 <표 14>에서 선행 연구들이 ‘-어라’를 감탄을 표현하는 종결 어미로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나’, ‘-네’가 감탄을 표현하는 어미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구나’, ‘-네’가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가 아님은 장경희(1985)에서 먼저 지적되었고 박재연(2004)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 논의들은 ‘-구나’, ‘-네’를 인식 양태 표지로 파악하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이라는 의미 기능에 집중한다.⁷⁵⁾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언어 유형론에서 ‘의외성’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구나’, ‘-네’를 감탄을 나타내지 않는 종결 어미로 보는 연구들도 ‘의외성’과 ‘감탄’이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감탄 등과 같은 화자의 감정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구나’, ‘-네’를 감탄을 표현할 수 있는 어미로 본다.

‘-어라’를 통해 발화되는 화자의 감정이나 느낌은 화자가 직접 지각을 통해 느낀 사실이다. ‘-구나’와 ‘-네’ 역시 화자가 직접 지각을 통해 느낀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

(56)

가. 어머니 예빠라~ 뭐 이런 걸 다.

(임현경, 공주가 돌아왔다 10회, KBS2, 2009)

나. 그리고 보니 지현이 너 눈이 참 예쁘구나.

(조명주, 포도밭 그 사나이 8회, KBS2, 2006)

다. 아. 오순정 씨.. 이름이 예쁘네요.

(은주영, 좋은 사람 5회, MBC, 2016)

(56)은 모두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한다. 그런데 (56나, 다)는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는 점이 (56가)와 다르다. ‘-어

74) 윤석민(2000)은 감탄법을 실현하는 ‘-네’가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감탄법을 실현하는 문장종결형에서는 ‘-네’를 언급하지 않는다.

75) 장경희, 박재연은 ‘-구나’와 ‘-네’를 인식 양태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다. ‘-구나’, ‘-네’를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면 감정과 관련된 감정 양태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구나, -네’는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양태로 다루는 것이 의미가 없다.

라'가 '-구나', '-네'처럼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미라면 선행 어간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어라'는 화자의 지식에 관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박재연(2013: 89)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직접 지각을 통해 알게 된 사실만을 표현하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로 발화되는 상황은 어떠한 증거에 대해 자신의 추론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박재연 2004: 52). (57)은 박지은·최선지(2021: 276)에서 제시한 예를 가져와 종결 어미를 '-구나'로 바꾼 것이다.

(57) (철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철수는 지금 운동을 하는구나.

(57)의 화자는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사실로 추론하여 얻게 된 정보를 말하고 있다. (57)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로 해석되는데⁷⁶⁾ '-어라, -구나, -네' 중 '-구나'만이 간접 증거로 입수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57)의 상황은 '운동을 하네'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네'가 직접 지각 외의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58) (철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철수는 지금 운동을 하네.

직접 증거의 내용이 확실해서 직접 증거 내용과 추론 관계가 일상적이고 긴밀하다면 (58)에서 '운동을 하네'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경숙(2012), 문창학(2014), 박지은·최선지(2021)의 주장이다.

(59)
가. (마당에 쌓인 눈을 보고) 밤새 눈이 왔네.

(정경숙 2012: 1002)

나. (철이가 어제 맥주 한 박스를 샀으니) 밤새도록 술을 마셨겠네.

(정경숙 2012: 1004)

(59)도 '-네'가 추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예문이다. 이를 박지은, 최선지(2021)에서는 이를 직접 증거의 확장된 용법으로 해석하였다. 직접 증거가 '추론'이라는 확장된 용법으로 해석되는 경우 '-네'만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선어말 어미 '-었-', '-겠-'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라'로 표현되는 정보는 즉각적이다. '-구나'는 즉각적인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긴 사유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다. '-네'는 즉각적이거나 짧은 사유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

76) 추론과 추리는 다르다. 추론과 추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진호(2011)를 참고할 수 있다.

한다. ‘-구나’가 ‘-어라’나 ‘-네’보다 긴 사유 과정을 표현한다는 점은 간접 증거로 획득한 정보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구나’, ‘-네’의 사유 과정에 대해서는 박재연(2014), 문창학(2014)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위 논의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어라’, ‘-구나’, ‘-네’의 의미적 특징

	-어라	-구나	-네
의미	감탄	새로 알게 된 사실 감탄	
화행	감탄	감탄, 진술	
정보 입수	직접 지각	제약 없음	주로 직접 지각
사유 과정	즉각	긴 사유	즉각 짧은 사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라’는 화자의 느낌, 감정을 나타낸다. ‘-구나, -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나, -네’가 감탄을 동반할 수 있는 어미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어라’를 통해 발화되는 화자의 감정이나 느낌은 화자가 직접 지각을 통해 느낀 사실이다. ‘-구나’, ‘-네’도 직접 지각을 통해 느낀 사실을 발화할 수 있으나 감정 표현보다 새로 알게 된 사실 표현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라’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구나’, ‘-네’처럼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직접 지각을 통한 사실만을 발화하는 ‘-어라’와 달리 ‘-구나’에는 정보 입수에 제약이 없다. ‘-네’도 ‘-어라’와 같이 직접 지각을 통해 느낀 사실을 표현하지만 정보와 추리 간의 관계가 일반적이고 밀접한 경우에는 추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었-, -겠-’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네’가 간접 증거를 표현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네’의 직접 증거성의 확장된 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인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감탄형’은 감탄의 화행을 담당하는 종결형으로 종래에는 감탄문 종결 어미로 여겨졌던 어미이다. 한국어에서 감탄문은 간접 화행에서 상대 경어법이 평서문으로 중화되기 때문에 본고는 감탄문이라는 문장 유형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평서문의 하위 부류인 감탄형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감탄형 종결 어미에는 ‘-어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감탄’이 기술되어 있는 어미 중 ‘-어라’와 비슷한 상대 경어법을 가지고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어미에는 ‘-구나’와 ‘-네’도 있다. ‘-구나’, ‘-네’는 선행 연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비교하여 연구된 바가 있으므로 ‘-구나’, ‘-네’ 비교 연구에 ‘-어라’를 포함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어라’는 선행 어간이 동사이면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선행 어간이 형용사이면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그러나 모든 동사가 명령형을 만들 수 없듯이 모든 형용사가 ‘-어라’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고는 본고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 부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고가 제시한 형용사 목록은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의 총 목록이 아니다. 감탄형 ‘-어라’와의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가능성이 높은 형용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감탄형 ‘-어라’와 실제 분명하게 결합되는 형용사를 서술의 편의상 임의로 ‘감탄형 형용사’로 명명한다.

감탄형 형용사의 하위 부류로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가 있다. 선행 어간에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가 오면 주어 자리에는 1인칭만 온다. 이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선행 어간에 성상 형용사가 오면 주어 자리에는 1인칭이 오지 못한다. 성상 형용사는 주어 제약을 가지지 않는 형용사인데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지 못하는 것은 ‘-어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감탄형 ‘-어라’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 외에 구(句)와도 결합한다. 구(句)에는 관용구와 형용사구, ‘-고 싶-’, 형용사와 결합하는 ‘-기도 하-’가 속한다. 관용구와 형용사구는 명사와 형용사가 함께 나타나는 구성이다. 이때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인데 성상 형용사 단일 어간으로는 ‘-어라’와의 결합이 확인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형용사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명사와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명사와 결합하여 긴밀한 구성으로 기본 의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단일 어간과 동등한 자격으로 어휘소에 등재되기 때문에 ‘-어라’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관용구나 형용사구를 취하는 경우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지 못한다. 보조 형용사 ‘-고 싶-’은 심리 형용사와 동일한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공유한다.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고 싶-’을 취하는 경우 주어 자리에는 1인칭만 온다. ‘-기도 하-’는 동사와 결합하면 동사 활용을 하고 형용사와 결합하면 형용사 활용을 한다. 감탄형 ‘-어라’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기도 하다’와만 결합한다. 이때 ‘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어라’가 선행 어간으로 ‘-기도 하다’를 취하면 주어 자리에는 2, 3인칭이 온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는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자동사도 일부 존재한다.

감탄형 ‘-어라’는 선어말 어미 ‘-시-’, ‘-었-’, ‘-겠-’ 중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시-’와

만 결합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면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주어 자리에 2, 3인칭이 가능한 정상 형용사, 관용구, ‘-기도 하다’가 ‘-어라’의 선행 어간으로 오는 경우에만 ‘-시-’가 결합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명령형 ‘-어라’를 만드는 부류의 형용사를 ‘의지 형용사’라고 한다. 감탄형 형용사와 의지 형용사 모두로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는 주로 정상 형용사이며 ‘하다’ 용언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외모를 평가하는 형용사이다. 명령형과 감탄형의 형태가 같을 때는 선어말 어미 ‘-시-’로 두 형태를 구별할 수 있다. 명령형 ‘-어라’는 ‘-시-’와 결합하지 않지만 감탄형 ‘-어라’는 ‘-시-’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탄형 ‘-어라’가 관여하는 문장의 문형은 크게 네 가지로 서술어 단독으로 실현되는 기본형, 감탄사가 함께 나타나는 일반형, 호격 조사가 생략된 명사구가 단독으로 함께 나타나는 문형, 감탄사와 호격 조사가 생략된 명사구가 모두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형이 있다. ‘-어라’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련이 없는 감탄사와 호격 조사가 생략된 명사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어라’는 감정 감탄사만이 결합하는데 주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격 조사가 생략된 명사구는 문장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호격 조사가 생략된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우리’ 또는 ‘나의’를 선행한다. 이때 ‘우리’는 복수의 의미가 아니며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

‘-어라’는 발화 현장에서의 화자의 주관적 감정 또는 판단을 즉각적으로 표현한다. 청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화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만을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한 ‘-어라’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감탄형 종결 어미인 ‘-구나’, ‘-네’의 특징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제약을 가지는 ‘-어라’와 달리 ‘-구나’, ‘-네’는 선행 어간 제약을 가지지 않고 주어 제약도 가지지 않는다. ‘-어라’는 선행 어간으로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를 취하면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오고 정상 형용사를 취하면 2, 3인칭이 온다. ‘-구나’, ‘-네’는 주로 2, 3인칭과 어울린다. 다만, 선행 어간으로 심리, 감각 형용사를 취하는 경우 1인칭 주어와 어울릴 수 있다. 이는 주어로 경험주를 취하는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구나’는 선행 어간으로 심리, 감각 형용사를 취하는 경우에도 2, 3인칭 주어와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구나’가 나타내는 ‘추론’이라는 의미적 특징과 연관이 있다.

‘-어라’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와만 결합한다. 이때 선행 어간은 반드시 정상 형용사이어야 한다. 반면 ‘-구나’, ‘-네’는 선어말 어미 ‘-시-’ 뿐만 아니라 ‘-었-’, ‘-겠-’ 과도 결합할 수 있다. ‘-구나’는 과거 지각의 ‘-더-’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어라’는 단독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미이다. ‘-구나’, ‘-네’는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구나’, ‘-네’가 비대화문에서 혼잣말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지만 ‘-어라’가 혼잣말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어라’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발화가 이루어지므로 화자가 가지거나 추측하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하는 유사 의문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구나’, ‘-네’는 유사 의문문 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청자가 높여야 할 대상일 때 ‘-어라’는 ‘-요’를 붙여서 말할 수 없다. ‘-구나’는 준말인 ‘-군’에 ‘-요’를 붙여 말하고 ‘-네’는 ‘-요’를 붙여 말할 수 있다. ‘-어라, -구나, -네’는 ‘-어라 하-, -구나 하-, -네 하-’로 사용될 수 있다. 선행 어간에 제약없이 ‘-었-, -겠-’도 자유롭게 결합가능한 ‘-구나 하-,

-네 하-'와 달리 '-어라 하-'는 '나몰라라 하-, 좋아라 하-'의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후행 명사는 '느낌, 생각, 심정, 얼굴, 표정' 등이 많았으며 어미가 결합하기도 한다. 이 표현들은 구어와 문어에서 인물의 표정이나 심리, 말을 자세하게 표현할 때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라'는 감정 감탄사와만 결합한다. '-구나', '-네'는 감탄사 결합에 제약이 가지지 않는다.

'-어라'는 직접 지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한다. '-구나'는 직접 지각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 '-네'는 주로 직접 지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하지만 직접 지각한 내용이 확실한 증거라고 판단되면 추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었-, -겠-'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라'로 표현되는 정보는 즉각적이다. '-구나'는 긴 사유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네'는 즉각적이거나 짧은 사유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본고에서 다룬 감탄형 종결 어미가 감탄형 종결 어미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 문법에서 연구가 저조했던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기능을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했으며 기존 연구들이 '-어라'의 선행 어간에 대해서 의미 부류만을 논의하거나 작례를 사용한 것과 달리 본고는 실제 언어 생활과 비슷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확인하고 분명한 목록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던 '-구나'와 '-네'에 '-어라'를 새로이 넣어 세 어미를 비교하며 '-어라'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 국내논문

- 강현화 외(2019),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 한글파크.
- 강현화 외(2021),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한글파크.
- 고성환(2003), 『국어 명령문에 대한 연구』, 역락.
- 고성환(2012), 「명령문 서술어의 제약」, 『통합인문학연구』 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pp.87-110.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창운(1995), 「『사실성 보장』 표시 서술씨끝의 의미 분석 연구(1) : “-구나, -으니, -을라, -어라”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19-20,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pp.623-636.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8),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8), 『한국어 문법 총론 II』, 집문당.
- 구현정(1996), 「반영적 경청에 쓰이는 ‘-구나’의 담화기능」, 『어문학연구』 4, 상명대학교어문학연구소, pp.49-72.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익수(2013), 「한국어 종결 어미 ‘-네’의 의미 재고찰: 정경숙(2012)에 대한 다른 생각」, 『언어』 38, 한국언어학회, pp.53-66.
- 권익수(2015), 「한국어 종결 어미 ‘-네’에 대한 여전히 다른 생각 = 정경숙(2014)에 대한 답변」, 『언어』 40-3, 한국언어학회, pp.287-305.
- 김건희(2005), 「한국어 형용사의 논항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건희(2010), 「명령형 어미 ‘-어라’의 형용사 결합에 대하여: 감탄형 어미 ‘-어라’와의 통합적 설명을 중심으로」, 『어문학』 110, 한국어학회, pp.137-161.
- 김문기(2012), 「감탄사와 부사의 문법 범주적 관련성 연구」, 『한글』 296, 한글, pp.123-150.
- 김선영(2011), 「형용사·동사 양용 용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세중(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 의미 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정(2008), 「담화 분석을 통해 본 ‘-구나’ 용법 연구(1): 담화 분석 범주 설정과 담화 맥락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pp.229-256.
- 김은영(2004), 「국어 성격 형용사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31, 언어과학회, pp.57-80.
- 김정남(2001), 「국어 형용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pp.171-199.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 김창섭(1985),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冠嶽語文研究』 1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pp.149-176.
- 김흥수(1983), 「'싶다'의 통사·의미 특성」,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57-190.
- 남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223-233.
- 남기심·고영근(2015), 『표준 국어문법론 <제4판>』, 박이정.
- 남길임(2004), 「활용 양용 용언 연구 -말뭉치 용례를 중심으로-」, 『형태론』 6-2, pp.221-236.
- 남지순(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심리 형용사 구문 1」, 『語學研究』 29-1, pp.75-105.
- 노대규(1997), 『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 문창학(2014), 「현대 한국어 종결 어미 -네(요)와 -군(요)」, 『언어와 언어학』 64,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83-110.
- 박나리(2000), 「국어 평서문 종결 어미의 서법의미에 대하여: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pp.321-346.
- 박나리(2004), 「한국어 교육문법에서의 종결 어미 기술에 대한 한 제안 - '-어', '-네', '-지', '-다', '-구나', '-단다'의 담화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6, 이중언어학회, pp.91-116.
- 박재남(2015), 「한국어 성격형용사의 분류와 교육방안」, 『한국어와 문화』 1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pp.131-157.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pp.199-225.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語學研究』 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101-118.
- 박재연(2013),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66, 국어학회, pp.79-107.
- 박재연(2014), 「한국어 종결 어미 '-구나'의 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pp.219-245.
- 박지은·최선지(2021), 「국어문법의 관점에서 본 종결 어미 '-네' 연구」, 『국어학』 100, 국어학회, pp.275-307.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pp.361-379.
- 박진호(2011), 「한국어(韓國語)에서 증거성(證據性)이나 의외성(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1-25.
- 서상규 외(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 손현선(1996), 「이른바 반말 종결형태의 양태적 의미 연구: '-어', '-지', '-군', '-네', '-는가', '-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숙 외(2019), 『한국어 교사를 위한 문형 예문집』, 도서출판 박이정.
- 송재목(2007), 「증거성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형태론』 9-1, 형태론, pp.1-23.
- 송재목(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pp.24-53.
- 송재목(2014), 「한국어 ‘증거성’ 종결 어미 ‘-네’: 정경숙(2007, 2012)에 대한 대답」, 『언어』 39-4, 한국언어학회, pp.819-850.
- 송재목(2015), 「증거성과 의외성」,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5-1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pp.47-57.
- 신선경(2001), 「‘-군(요)’와 ‘-네(요)’의 쓰임에 대한 연구: 서술 시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형태론』 3-1, 도서출판 박이정, pp.69-84.
- 신희성(2019), 「‘-기도 하다’의 양태 의미 연구」, 『우리말 글』 82, 우리말글학회, pp.29-58.
- 유필재(2019), 「서울방언의 대명사(代名詞) -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대상으로 -」, 『국어학』 90, 국어학회, pp.139-172.
- 유필재(미간행), 『한국어의 구어』.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유현경(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국어학회, pp.221-258.
- 유현경(2008), 「한국어 형용사의 시간구조 연구」,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pp.211-238.
-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 이미지(2014), 「한국어 감탄 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2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7-258.
- 이민(2012),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흔(2019), 「20세기 전반기 종결 어미의 감탄법 실현 양상」, 『語文論集』 79, 중앙어문학회, pp.29-78.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06), 「形容詞 命令文에 대한 考察」, 『이병근 선생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pp.553-565.
- 이윤복(2019), 「한국어에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섭(2021), 「‘-고 싶-’ 구문의 성격에 대한 재고」, 『어문학』 151, 한국어문학회, pp.3-36.
- 이익섭(1978), 「피동사 형용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6, 국어학회, pp.65-84.
- 이익섭·이상역·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익섭·채완(2000),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 이지영(2004), 「‘못’과 결합하는 형용사의 의미 특성」,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pp.163-192.
- 이현희(2015), 「구어의 특성을 고려한 감탄사의 범주 전형성 연구」, 『우리말연구』 40, 우리말학회, pp.33-63.
- 이후인(2019), 「[정도]의 ‘-어라 (하고)’ 구성의 문법과 의미」, 『한국어학』 83, 한국어학회, pp.183-213.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pp.323-359.

- 임흥빈(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 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국어학회, pp.279-314.
- 임채훈(2008), 「‘감각적 증거’ 양태성과 한국어 어미 교육-‘-네’, ‘-더라’, ‘-더니’, ‘-길래’ 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 이중언어학회, pp.199-234.
- 장경희(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研究』, 탑출판사.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 어미 연구』, 태학사.
- 전후민(2015), 「혼잣말 종결 어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pp.5-34.
- 정경숙(2012), 「한국어 종결 어미 ‘-네’의 의미: 증거성 및 의외성과 관련해서」, 『언어』 37-4, 한국언어학회, pp.995-1016.
- 정경숙(2014), 「한국어 종결 어미 ‘-네’와 단언화행」, 『언어』 39-3, 한국언어학회, pp.617-640.
- 정경숙(2016), 「지식의 출처 관점에서의 ‘-네’와 ‘-구나’」, 『담화와 인지』 23-3, 담화·인지언어학회, pp.45-72.
- 정선주(2007), 「인지 작용 양상에 따른 한국어 감탄 표현 연구」, 『언어와 언어학』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105-123.
- 정순화(2021), 「한국어 종결 어미 ‘-네’와 ‘-구나’ 비교 연구」, 『한국어 의미학』 71, 한국어의미학회, pp.25-46.
-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영(2001), 「국어 감탄문의 변화 -감탄법 종결 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pp.293-325.
- 조용준(2017), 「감탄 어미 ‘-어라’의 특성과 문장 유형」, 『우리말 글』 74, 우리말글학회, pp.115-145.
- 조용준·하지희(2016), 「한국어 의외성 표지 ‘-구나’, ‘-네’, ‘-다’의 사회언어적 변이 연구」, 『사회언어학』 24-1, 한국사회언어학회, pp.241-269.
- 최현배(1978), 『우리말본』, 정음사.
- 키타노 유카(2012), 「현대 한국어 의지형용사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지희·조용준(2016), 「맥락 요인에 따른 감탄문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42, 한말연구학회, pp.197-228.
- 한명주(2014), 「연결어미+하다 구성의 문법적 특징」, 『언어와 정보 사회』 2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189-224.
-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 한승규(2020), 「한국어 구어 대화의 종결 어미 사용 양상 연구」, 『인문사회 21』 11-4, 인문사회 21, pp.2315-2328.
- 함병호(2011), 「한국어 양태 보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병호(2021), 「한국어 소형문 연구」, 『한말연구』 2021, 한말연구학회, pp.113-144.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Crystal, David(2003), *A Dictionary of Linguistics & Phonetics*, 5th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Ltd.

2. 사전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https://dic.daum.net/index.do?dic=kor>>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한국어 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부록>

일러두기

1. 본문에 실지 못한 예문을 제시한다.
2. 확인된 예문이 유일예인 경우 본문에 실린 페이지를 기재한다.
3. 부록에 제시된 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 목록	93
(㉡)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자동사 목록	108
(㉢)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관용구 목록	110
(㉣)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구 목록	111

(ㄱ)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 목록

단어			개수
가엎다(가엎다)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108개
개운하다	고맙다	고소하다	
곱다	공손하다	궁금하다	
귀엽다	기막히다	기특하다	
깜찍하다	끔찍하다	+날씬하다	
남사스럽다	놀랍다	다정하다	
달다	답답하다	당황스럽다	
대견하다	더럽다	덥다	
독하다	따뜻하다	딱하다	
똑똑하다	뜨겁다	맛나다	
맛있다	망측하다	+맵다	
멋지다	무섭다	무안하다	
미련스럽다	미안하다	민망하다	
반갑다	보드럽다	부끄럽다	
부럽다	분하다	불쌍하다	
+뻥뻥하다	사납다	사랑스럽다	
상쾌하다	서럽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솔직하다	순진하다	
시원하다	신기하다	싫다	
심란하다	싱싱하다	쑥스럽다	
쓸쓸하다	아깝다	아름답다	
아프다	안쓰럽다	알뜰하다	
야하다	알밉다	어지럽다	
억울하다	영큼하다	+야무지다	
예쁘다(이쁘다)	용감하다	용하다	
+우습다	웃기다	원통하다	
위험하다	이상하다	자상하다	
장하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밌다	졸리다	좋다	
죄송하다	즐겁다	지겹다	
+짓궂다	차갑다	착하다	
찬찬하다	창피하다	촌스럽다	
춥다	치사하다	친절하다	
편하다	피곤하다	+행복하다	
황송하다	후끈하다	흉측하다	
흥미진진하다	+희한하다	힘들다	

[범례]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않아 네이버 기사문, 사전에서 예문을 추출한 단어는 단어 앞에 ‘+’를 표기한다.

가엾다

- 가엾어라. 어쩔 좋아. 그 축망받는 직업까지 그만두구.
(임성한, 보고 또 보고 141-150회, MBC, 1998-1999)

감격스럽다

- 어이구, 감격스러워라. 겨우 재판기에서 커피 한잔 뽑아다주고 저러면 나중엔..
(정지우, 내사랑 못난이 1-20회, SBS, 2006)

감사하다

- 아이구 감사해라. 늙은 할미가 먹으면 어떻게 굶으면 어떻게.
(최윤정,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18회, KBS2, 2002)

개운하다

- 아이고 개운해라!
(연합뉴스, <빅마마쿠키> 추석마다 맛본 외할머니의 닭강정, 2009년 9월 19일)

고맙다

- 아, 우리 고모 고마워라.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42회, KBS1, 2005-2006)
- 아유 고마워라.
(송지나 외, 달팽이 1회, SBS, 1997)
- 아이구 아이구, 고마워라 고마워라.
(최윤정, 황금마차 56회, MBC, 2002-2003)
- 아이구 고마우셔라.
(수원일보, [김우영 광고칼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한지 2주가 지났다, 2021년 9월 7일)

고소하다

- 지태 자식 말야. 지금쯤 황당해 하고 있겠지? 아유 고소해라.
(신동익 외, 메디컬센터 36회, SBS, 2000)
- 비난과 비판은 해도 거짓말로 현혹하는 건 엄연한 범죄지~ 아 꼬소해라~
(고발뉴스, [고발뉴스 브리핑] 7.2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2020년 7월 20일)

곱다

- 어머니, 고와라. 아랑이는 당장 수예점 차려도 되겠다?
(홍영희, TV소설 인생화보 81회, KBS1, 2002-2003)

- 아유 고와라. (향 맡는다) 꽃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이네.
(유현미, 즐거운 나의 집 2회, MBC, 2010)

- 아이고, 고와라.
(노희경, 화려한 시절 41-50회, SBS, 2002)

공손하다

- 세상에, 늬댁 자손인지 공손도 하셔라.
(최윤정, 웨딩드레스 14회, KBS2, 1997-1998)

궁금하다

- 아 궁금해라. 분명히 지금쯤 열심히 싸우고들 있을텐데.
(송지나, 카이스트 53회, SBS, 1999-2000)

귀엽다

- 세상에, 귀여워라.
(정성주, 변호사들 11회, MBC, 2005)

- 어머머 당황하는 것 좀 봐, 귀여워라.
(구현숙, 열아홉 순정 1-30, 32-79회, KBS1, 2006-2007)

- 어머. 귀여우셔라.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71회, MBC, 2006-2007)

기막히다

- 아유 기막혀라.
(임성한, 보고 또 보고 201-210회, MBC, 1998-1999)

- 아가씨 정말 큰일 저지르겠어 기막혀라.
(김수현, 불꽃 1-10회, SBS, 2000)

- 아이구 기막혀라. 그깟 여자에 하나때문에 동생을 때려?
(홍영희, TV소설 인생화보 1회, KBS1, 2002-2003)

기특하다

- 기특해라, 요즘도 맨날 1등이죠?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1회, SBS, 2007)

- 재는 고대로 보이네? 기특해라, 저기 혼자 빛나는 것 좀 보세요.
(정유경, 너 어느 별에서 왔니 3회, MBC, 2006)

깜찍하다

- 깜찍해라.

(진유리, 피도 눈물도 없이 26회, KBS2, 2024)

끔찍하다

- 어머, 끔찍해라. 민수썬 어땀어요?

(조명주, 안녕 내사랑 4회, MBC, 1999)

- 어머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도 그렇지, 어머 끔찍해라.

(김도우, 여우야 뭐하니 5회, MBC, 2006)

날씬하다

- 날씬해라~ 몸매 비결 궁금

(세계일보, 엄현경, 침대 위에 앉아 내추럴한 느낌 연출 '시선강탈', 2016년 4월 1일)

남사스럽다

- 남사스러워라. 남자랑 여자랑 뭐하는 거야.

(TV리포트, 신봉선, 내돈내산 럭셔리 호캉스 “뽕 뽑고 가겠다”, 2023년 6월 9일)

놀랍다

- 어? 올 엄마가 석현이 주는 거 아까워할 때두 있으시네. 놀라워라.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98회, KBS1, 2005-2006)

- 어떡하든 베짱이 같이 일안하구 놀구 버틸려는 것두 그렇구. 놀라워라.

(소현경, 얼마나 좋길래 16회, MBC, 2006)

다정하다

- 아이구 다정도 해라.

(최윤정, 황금마차 184회, MBC, 2002-2003)

달다

- 본문 p.53.

답답하다

- 어이구, 답답해라.

(이홍구, 김가이가 10회, MBC, 1993-1994)

당황스럽다

- 어머, 당황스러워라.

(김은숙, 온에어 11회, SBS, 2008)

대견하다

- 대견해라.

(TV리포트 “준우야 사랑스러워” 정시아 이웃이 남긴 글 ‘이유는?’, 2022년 7월 26일)

더럽다

- 아이구 더러워라.

(박진숙, 마당 깊은 집 3회, MBC, 1990)

- 에이 더러워라.

(홍영희 외, 순수 2회, KBS2, 1998)

- 아이 드러라. 오빠, 그 대신!! 탄 데서 커피 시키면 안돼!

(김지훈, 영화 ‘목포는 항구다’, 2004)

덥다

- 아휴 더워라. 벗지도 못하고,,

(홍정은 외, 미남이시네요 1회, SBS, 2009)

- 아우, 더워라!

(김정수, 민들레 가족 13회, MBC, 2010)

독하다

- 본문 p.30., p.53.

따뜻하다

- 따뜻해라.

(유현미 외, 그린로즈 1회, SBS, 2005)

딱하다

- 저런. 딱해라.

(인정옥, 메디컬센터 15회, SBS, 2000-2001)

- 그랬어, 어유 딱해라.

(박지현, 사랑해 당신을 5회, MBC, 1999)

똑똑하다

- 어유 똑똑해라!

(허프포스트코리아, 어느새 다가온 반력견의 노화, 2018년 11월 12일)

뜨겁다

- 아호 뜨거라.

(이홍구, 김가이가 22회, MBC, 1993-1994)

- 후 뜨거라. 아 왜 나만 이게 안돼.

(김석운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37회, KBS2, 2004-2005)

맛나다

- 아이고, 맛나라.

(이경희, 꼭지 1-24회, KBS2, 2000)

맛있다

- 아이고 맛있어라. 한입만 드셔봐~

(조선일보, 외다리 떡장수가 이룬 꿈, 2024년 3월 30일)

망측하다

- 엄머머, 망측해라!

(박영숙, 헬로! 애기씨 16회, 2007)

맵다

- 어후 맵라.

(해럴드POP, '홍현희♥' 제이쓴, 라면 먹고 호되게 혼났네..“다시는 안 먹어”, 2022년 4월 13일)

- 아이쿠, 맵라.

(에이블뉴스, 봄의 미각 '파김치', 2012년 4월 26일)

멋지다

- 오머 멋져라.

(임성한, 온달 왕자들 22회, MBC, 2000-2001)

무섭다

- 오~ 무서워라.

(김인숙, 외인구단 6회, MBC, 2009)

- 아우, 무서워라, 무서워. 형님, 좀 나가봐요.

(노희경, 화려한 시절 3회, SBS, 2002)

- 어이구 무서라.

(김도우, 여우야 뭐하니 5회, MBC, 2006)

무안하다

- 어머 무안해라. 그래도 대답은 잘 해주시네요?
(김석운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36회, KBS2, 2004-2005)

미련스럽다

- 아이구. 미련스러워라. 나는 어찌든 이렇게 바보 같구 미련스러울까.
(최윤정, 황금마차 147회, MBC, 2002-2003)

미안하다

- 아이구, 미안해라. 고장 나서 어찌나? 뭐, 재벌 3센데 하나 더 사겠지!
(박영숙, 헬로! 애기씨 14회, KBS2, 2007)
- 아, 안다쳤어? 괜찮지? 아이 미안해라.
(윤은경, 밤이면 밤마다 17회, MBC, 2008)

민망하다

- 아, 민망해라.
(이선미 외, 커피프린스 1호점 15회, MBC, 2007)
- 아우, 민망해라.
(노지설, 닥터챔프 16회, SBS, 2010)
- 아유 민망해라. 옷 입고 나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김도우, 여우야 뭐하니 7회, MBC, 2006)
- 아이구, 민망해라. 가요, 가.
(노희경, 화려한 시절 21-30회, SBS, 2002)

반갑다

- 어이구, 반가워라!
(조명주, 내 인생의 콩깍지 9회, MBC, 2003)
- 아유, 반가워라~ 우리 서방님 간만에 타이밍 맞춰 잘나오셨네~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133회, KBS1, 2010-2011)

보드랍다

- 본문 p.53.

부끄럽다

- 어머? 그래요. 아이 부끄러워라.

(인은아, 연애결혼 1회, KBS2, 2008)

- 집안두 훌륭하구, 배우기두 많이 배우구, 그랬을텐데, 아이구 부끄러워라.

(최윤정, 황금마차 4회, MBC, 2002-2003)

부럽다

- 어머니 부러워라.

(김은숙, 온에어 14회, SBS, 2008)

- 그러시구나. 부러워라.

(김인영, 태양의 여자 6회, KBS2, 2008)

분하다

- 아이고 분해라. 어떻게 눈하나 깜짝않고 온식구한테 사기를 쳐?

(문영남, 수상한 삼형제 33회, KBS2, 2009-2010)

- 아이구 분해라! 아이구 분해라!!!

(최윤정, 황금마차 151회, MBC, 2002-2003)

불쌍하다

- 아유. 불쌍해라. 많이 먹어~

(김석윤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204회, KBS2, 2004-2005)

- 예고 불쌍해라. 배가 많이 고팠나보다. 많이 먹어라.

(정유경, 인순이는 예쁘다 5회, KBS2, 2007)

뻘뻘하다

- 뻘뻘해라. 영채씨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서 현태오빠 잡겠다고?

(뉴스인사이드, [내일TV] '내 사위의 여자' 구실장 괴롭힌 사채업자 잡혔다, 2016년 6월 9일)

사납다

- 아이고, 사나워라, 사나워라.

(노희경, 기적 3회, MBC, 2006)

사랑스럽다

- 사랑스러워라.

(임성한, 보고 또 보고 81-90회, MBC, 1998-1999)

상쾌하다

- 아아. 상쾌해라. 아. 진짜 좋네.

(김은희 외, 눈의 여왕 10회, KBS2, 2006)

서럽다

- 아 서러워라.

(한겨레, 기껏해야 한달... 에어컨, 달까? 말까? 2018년 7월 29일)

서운하다

- 서운해라. 살떨리게 잘해줘 놓고 잘해준 게 없다네.

(유현미 외, 그린로즈 10-18회, SBS, 2005)

속상하다

- 놓쳤어요?! 아 속상해라.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68회, KBS1, 2005-2006)

- 어머, 우리 할머니 손 다 트셨네. 속상해라.

(김은숙, 시티홀 2회, SBS, 2009)

솔직하다

- 어머. 솔직도 하셔라.

(김인영, 비밀남녀 6회, MBC, 2005)

순진하다

- 모든 게 신문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진해라.

(박연선, 열령똥땅 흥신소 5회, KBS2, 2007)

시원하다

- 아이 시원해라.

(배유미, 내 마음을 뺏어봐 9회, SBS, 1998)

신기하다

- 어머! 신기해라. 주차선 안에 딱 들어갔네.

(이덕재, 별난남자 별난여자 120회, KBS1, 2005-2006)

싫다

- 으 미친 놈. 어으 싫어라. 우웁!

(이선미 외, 트리플 3회, MBC, 2009)

심란하다

- 아이구 심란해라.

(문영남, 소문난 칠공주 1-80회, KBS2, 2006)

싱싱하다

- 어머, 싱싱해라.

(김은숙, 시티홀 2회, SBS, 2009)

쑥스럽다

- 하 쑥스러워라.

(김석운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204회, KBS2, 2004-2005)

쓸쓸하다

- 쓸쓸해라~

(오수연, 웨딩 7회, KBS2, 2005)

아깝다

- 아이고. 아까워라, 아가씨, 멀쩡한 음식 버리면 죄 받아요.

(이유진, 불새 5회, SBS, 2020)

- 아까워라 4천원만 날렸네.

(김인영, 비밀남녀 2회, MBC, 2005)

- 아, 아까워라. 나라도 무지 화나겠다..

(이선미 외, 트리플 2회, MBC, 2009)

아름답다

- 아유 아름다워라.

(임성한, 온달 왕자들 107회, MBC, 2000-2001)

아프다

- 내가 정상이라니까, 아이구 아파라..

(현고운, 1%의 어떤 것 21회, 드라맥스, 2016)

- 아효~ 아파라. 되게 아프네.

(조명주, 내 인생의 콩깍지 1회, MBC, 2003)

- 아우 아파라..음..내 이름이 들린것도 같은데..?

(지수현, 백설공주 1-10회, KBS2, 2004)

안쓰럽다

- 아이구. 안스러워라.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47회, KBS2, 2009)

알뜰하다

- 얼씨구 알뜰해라. 재벌되겠다.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31회, MBC, 2006-2007)

야하다

- 어이구 야해라!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49회, KBS2, 2009)

얄밧다

- 으이구 얄미워라~ 저 인간~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4회, SBS, 2007)

어지럽다

- 아이고, 어지러라, 아이고, 어지러!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17회, KBS2, 2004)

억울하다

- 아이고호 억울해라. 억울해라.

(최윤정, 황금마차 151회, MBC, 2002-2003)

영큼하다

- 어? 비디오다! 영큼해라~

(조진국, 소울메이트 4회, MBC, 2006)

야무지다

- 힘도 왜 이렇게 좋아. 세상에. 야무져라. 엄마보다 잘하네.

(헤럴드POP, 정준호♥이하정 딸, 고사리 손으로 콩 까기 “세상 야무져.. 엄마보다 잘해”, 2021년 9월 7일)

예쁘다(이쁘다)

- 어머! 예뻐라.

(김은희 외, 낭랑 18세 14회, KBS2, 2004)

- 아우 우리 딸 이뻐라.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37회, KBS2, 2009)

용감하다

- 아유~ 용감도 하셔라~

(김석운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121회, KBS2, 2004-2005)

용하다

- 10분만 있어도 서서히 마비 증세가 온다는데 진짜네, 용해라.

(박지은, 눈물의 여왕 8회, tvN, 2024)

우습다

- 아이, 우스워라.

(천지일보, [세계 신화 여행(뉴질랜드 마오리족)] 하늘을 들어 올린 마우이, 2023년 3월 29일)

웃기다

- 하하하하! 아이고, 웃겨라!

(박민정 외, 몽땅 내사랑 8회, MBC, 2010)

- 아이고, 웃겨라, 웃겨. 진짜 재밌네.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8회, KBS2, 2004)

월통하다

- 본문 p.45.

위험하다

- 아우 위험해라. 추운데 고생이네..

(박민정 외, 몽땅 내사랑 52회, MBC, 2011)

이상하다

- 이상해라. 한재수 선생님은 한씨구 이수아썸 이썸데 어떻게 남매예요?

(김규완, 피아노 10회, SBS, 2001)

자상하다

- 본문 p.34.

장하다

- 으이구, 장해라. 우리 아들.

(임현경, 공주가 돌아왔다 11회, KBS2, 2009)

- 어이구 장해라. 장군감이네, 어?

(박정란, 노란 손수건 123회, KBS1, 2003)

재미없다

- 본문 p.59.

재미있다

- 아 재미있어라.

(SBS, 천안서 또 '여중생 폭행'... 가해싸 2명 긴급체포, 2017년 9월 18일)

재밌다

- 아우, 재밌어라. 깔깔깔.

(진수완, 라이벌 7회, SBS, 2002)

- 아이구 재밌어라~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80회, MBC, 2006-2007)

놀리다

- 아구 놀려라~ 눈이 막 저절로 감기네.

(김균태, 코끼리 106회, MBC, 2008)

좋다

- 아이고 좋아라.

(박정란, 행복한 여자 25회, KBS2, 2007)

죄송하다

- 어머, 죄송해라. 제가 애만 보면 없던 혈압이 생겨서요.

(조윤영, 신데렐라맨 16회, MBC, 2009)

- 아우 죄송해라. 피곤하실텐데. 멀리 까지 와서 드시지도 못하고.

(인은아, 연애결혼 4회, KBS2, 2008)

즐겁다

- 즐거워라.

(대구신문, 새롭고 다양해진 선비축제 “즐거워라”, 2015년 5월 21일)

지겹다

- 아우 지겨워라. 떠나자!

(임성한, 온달 왕자들 97회, MBC, 2000-2001)

짓궂다

- 짓궂어라.

(TV리포트, '카트쇼' 이수근, 홍석천에 “형 군대 갔다 왔어?” 짓궂어라, 2018년 7월 12일)

차갑다

- 아이구, 차가워라. 추우신데 세상에, 옷두 이렇게 얇게 입구 나와 서 계셨어요?
(최윤정, 웨딩드레스 17회, KBS2, 1997-1998)

착하다

- 아 착해라.
(박정란, 행복한 여자 13회, KBS2, 2007)

찬찬하다

- 하이고, 총각이 찬찬도 해라.
(강은경, 안녕하세요 하느님 3-6회, KBS2, 2006)

창피하다

- 아이고 창피해라.
(한국경제, [유구무언 시즌 2] 제10회 뱀새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다 5, 2018년 10월 16일)
- 챙피해라.
(임성한, 보고 또 보고 201-210회, MBC, 1998-1999)

촌스럽다

- 치 촌스러워라.
(오수연, 러브레터 1-10회, MBC, 2003)

춡다

- 아이구 추워라.
(김군태, 코끼리 17회, MBC, 2008)

치사하다

- 아이구 치사해라!
(최윤정, 황금마차 156회, MBC, 2002-2003)

친절하다

- 아이고 친절도 하셔라.
(윤은경 외, 겨울연가 11-20회, KBS2, 2002)

편하다

- 아 편해라!
(강은경, 달자의 봄 14회, KBS2, 2007)

피곤하다

- 정말? 다행이다. 아, 피곤해라. 빨리가자. ?
(고은님, 장난스런 KISS 1-16회, MBC, 2010)

행복하다

- 아~ 행복해라.

(톱스타 뉴스, '신애라♥' 차인표, 입양 딸 향한 애정, 2022년 7월 7일)

- 맛있는 저녁 잘 먹을게요. 아 행복해라.

(티브이데일리, 팬의 도시락 선물 받은 김형준, "아~ 행복해라!", 2010년 11월 20일)

황송하다

- 아이고, 황송해라.

(황성연, 구미호 외전 13회, KBS2, 2004)

- 아이구우우 황송해라. 맛있게 먹으께요.

(김수현, 불꽃 1-10회, SBS, 2000)

후끈하다

- 어이구 후끈해라.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41회, KBS1, 2010-2011)

흥측하다

- 아이고 흥측해라.

(매일경제, [영화] 블랙뤼미에르의 영화 뒤집기 '찌라시'... 세상에 아름다운 찌라시는 없다, 2014년 3월 5일)

흥미진진하다

- 아~ 흥미진진해라. 재미있어 죽겠다.

(김규완, 사랑한다 말해줘 6회, MBC, 2004)

희한하다

- 희한해라.

(늘, 너무 싱숭생숭한 2024 스타뜨, <<https://blog.naver.com/ciellove929/223324551976>>, 2024. 4. 20.)

힘들다

- 아이고 힘들어라. 주말엔 집에 있거다.

(한국경제TV, 가방으로 짹짹... '이범수♥'이윤진, 명품가득 드레스룸 공개, 2022년 4월 4일)

(L)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자동사 목록

단어			개수
겁나다	김새다	놀라다	9개
+땀나다	떨리다	+붐비다	
설레다	신나다	+헛갈리다(헛갈리다)	

[범례]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예문이 추출되지 않아 네이버 기사문, 사전에서 예문을 추출한 단어는 단어 앞에 ‘+’를 표기한다.

겁나다

- 아이고 겁나라. 아들은 이제 겨우 열 살 시퍼런 사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한겨레, 엄마의 스승으로 온 큰 아들, 2012년 5월 15일)
- 예고 겁나라. 어서 가자.
(오마이뉴스, 에델바이스 군락지, 나는 더 걸을 수가 없었다, 2017년 4월 10일)

김새다

- 에이 김새라.
(김현희, 강남엄마 따라잡기 18회, SBS, 2007)

놀라다

- 하.. 놀라라. 맞아.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아.
(김석윤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220회, KBS2, 2004-2005)
- 아우, 놀래라!
(노희경, 꽃보다 아름다워 2회, KBS2, 2004)
- 놀래라~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조윤영, 신데렐라맨 7회, MBC, 2009)

땀나다

- 세정 현장 체험 나선 박해미, ‘아휴 땀나라’
(뉴시스, 세정 현장 체험 나선 박해미, ‘아휴 땀나라’, 2008년 3월 4일)

떨리다

- 학생들은 “아, 떨려라.”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면서도, 준비한 손팻말을 다시 확인하며 웃음을 주고 받았다.
(오마이뉴스 소중환, “2015년 한국, 이런 잔인한 일이”, 2015년 11월 16일)

- 어후 무섭고 떨러라.

(KBS, [뉴스 따라잡기] 폭발 사고 한 달.. 보상·복구 ‘막막’, 2013년 10월 29일)

붐비다

- 아이고 붐벼라. 주말이라 그런지 백화점에 사람이 참 많네.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설레다

- 아유 설레라.

(브레이크 뉴스, 나들이하기 좋은 봄꽃길..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 해볼까?”, 2014년 3월 27일)

- 아 설레라. 몇 년만이지? 같이 파티 가는 게?

(문희정,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47회, MBC, 2008)

신나다

- 아이구 신나라. 대한민국 대표 미남 장동건이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신나 죽겠네.

(송재정 외, 거침없이 하이킥 79회, MBC, 2006-2007)

- 아이 신나라~

(베이비뉴스, [웹툰] 아이가 없었을 때는 빨간 날이 참 좋았다, 2023년 6월 7일)

헛갈리다(헛갈리다)

- 헛갈려라.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조용히 이대로...

(고은경, 이브의 사랑 19회, MBC, 2015)

- 한국 가나전, ‘등번호 또 바꾼다’ 벨기에 요원 “헛갈려라”

(미디어펜, 2014년 6월 9일)

(ㄷ)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관용구 목록

	관용구	의미
1	오지랴(이) 넓다	「1」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 「2」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
2	눈치(가) 빠르다	남의 마음을 남다르게 빨리 알아채다.
3	꿈도 야무지다	희망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비꼬아 이르는 말.
4	간(이) 크다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

오지랴(이) 넓다

- 본문 p.31.

눈치(가) 빠르다

- 눈치도 빠르셔라.

(김인영, 결혼하고 싶은 여자 13회, MBC, 2004)

꿈도 야무지다

- 본문 p.40.

간(이) 크다

- 헉! 간도 크셔라.

(아주경제, 김장훈 병원 음주 발각... “몰래 막걸리 먹다 강퇴 당할 뻔”, 2011년 10월 24일)

(㉔) 감탄형 ‘-어라’와 결합하는 형용사구 목록

	형용사	명사
1	길다	기력지
2	깊다	속
3	넓다	마음, 이해심
4	많다	복, 욕심, 의심
5	바르다	예의
6	예쁘다(이쁘다)	마음, 목소리, 손, 손인사
7	좋다	금슬, 마음씨, 배짱, 손재주, 재주, 체격, 힘
8	지나치다	농담, 착각
9	크다	꿈, 통
10	험악하다	말씀

길다

기력지

- 어휴 기력지도 길어라. 마루가 모자라서 미안하네.

(김인영, 메리대구 공방전 9회, MBC, 2007)

깊다

속

- 어머 그래요? 속도 깊어라. 근데 안 추워요? 어서 들어와요.

(김도우, 여우야 뭐하니 11회, MBC, 2006)

넓다

마음

- 마음도 넓어라. 엄친아가 따로 없네.

(뉴스엔, ‘명탐정→키다리아저씨’ 엄친아 지훈 매력에 ‘여심 솔렁~’, 2009년 10월 8일)

이해심

- 이해심도 넓으셔라.

(최희라, 산부인과 3회, SBS, 2010)

많다

복

- 참 복도 많으셔라. 이런 훌륭한 후원자를 다 두시고.

(권음미, 로열패밀리 6회, MBC, 2011)

욕심

- 욕심도 많으셔라. 분양가도 한 번 정리했었죠.
(한국경제, [집코노미TV] 사전청약, 이 조건 안 되면 포기하자 ㄱㄱ, 2020년 9월 12일)

의심

- 의심도 많으셔라. 확인시켜드리지요.
(네이버뉴스, [박문성의 축구 읽어주는 남자] 대표팀 감독 또 바꾸십니까?, 2013년 6월 18일)

바르다

예의

- 아이구, 예의두 바르셔라.
(최윤정, 웨딩드레스 14회, KBS2, 1997-1998)

예쁘다(이쁘다)

마음

- 마음도 예뻐라.
(충청일보, 아이린, 예쁜 글씨체로 ‘여자친구’ 같은 팬들 응원멘트 눈길, 2015년 9월 15일)
- 맘도 이쁘셔라.
(톱스타뉴스, 송가인 ‘나보다 더 사랑해요’ 하트 곡... ‘후배 사랑도 tap이어라’, 2020년 4월 28일)

목소리

- 목소리도 예뻐라.
(뉴스엔, EXID 헤린, 목소리도 예뻐라 [포토엔HD], 2023년 4월 20일)

손

- 손도 예뻐라~
(MK스포츠, 워너원 강다니엘, 손도 예뻐라~ [MK포토], 2018년 9월 5일)

손인사

- 손인사도 예뻐라~
(뉴스엔, 손연재, 체조요정 손인사도 예뻐라~ [포토엔 HD], 2021년 12월 19일)
- 손인사도 이뻐라~
(뉴스엔, 오현경 ‘손인사도 이뻐라~’ [포토엔 HD], 2021년 9월 24일)

좋다

금슬

- 금슬도 좋으셔라~
(홍진아 외, 베토벤 바이러스 16회, MBC, 2008)

마음씨

- 우리 사장님 마음씨도 좋으셔라~

(SBS. [문전성시의 경제학] ‘가격이 최고의 경쟁력’, 2008년 12월 8일)

배짱

- 어머, 배짱도 좋아라.

(이선미 외, 커피프린스 1호점 6회, MBC, 2007)

손재주

- 손재주도 좋으셔라.

(한국경제, 가방 · 액세서리 · 쿠키 · 빵... 손재주도 좋으셔라 ‘없는데 없네’, 2005년 8월 10일)

재주

- 재주도 좋아라.

(텐아시아, 신화 김동완을 영원한 위트가이다, 2014년 11월 21일)

체격

- 어마 체격도 좋아라. 이 가슴 근육 좀 봐. 학생, 운동하나 봐.

(송지나, 모래시계 1회, SBS, 1995)

힘

- 아구구 힘도 좋으셔라~

(박혜련 외, 김치 치즈 스마일 11회, MBC, 2007)

지나치다

농담

- 농담도 지나치셔라.

(진수완, 경성스캔들 3회, KBS2, 2007)

착각

- 착각도 지나치셔라.

(진수완, 경성스캔들 3회, KBS2, 2007)

크다

꿈

- 꿈도 크셔라.

(오마이뉴스, “야, 나도 털실목도리 생겼다!”, 2003년 12월 26일)

통

- 통도 크셔라.

(조선비즈, 아이유 기부, 5년간 기부금액만도 ‘억소리 나네’, 2015년 5월 5일)

협약하다

말씀

- 본문 p.40.

<Abstract>

A Study on Exclamatory Ending '*-ara/-era*' in Contemporary Korean

Song, Yu-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rammat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n Contemporary Korean.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rarely addressed in existing Korean grammar studies. This is because, while *-ara/-era* is frequently used in everyday language, its usage is limited, making it challenging to gather examples. As a result, previous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created example sentence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grammat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ara/-era* by using the semi-spoken corpus as research data. Additionally, it attempts a new analysis by incorporating *-ara/-era* into the comparative study of *-kwuna* and *-ne*. The comparative study of *-kuna* and *-ne* is a topic that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various ways in previous research.

In Chapter 2, previous research on the exclamatory endings *-ara/-era*, *-kwuna*, and *-ne* was reviewed and issues that needed to be investigated focusing on *-ara/-era* were summarized.

In Chapter 3, the grammat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were examined using examples of *-ara/-era* extracted from the research data of this paper. The most central grammatical feature of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the restriction of the preceding stem, but the list of adjectives that form the exclamatory ending by combining *-ara/-era* has not been specifically presented or confirmed. Accordingly, this paper confirmed the list of adjectives combined with the exclamatory form *-ara/-era* in the research data of this paper. The adjectives in this list are arbitrarily shortened and named 'Exclamatory adjectives' for convenience of description. The exclamatory adjectives in this paper are those that are clearly used in practice in combination with the exclamatory form *-ara/-era*, and are adjectives that are frequently used and have a high possibility of use.

The Exclamatory adjectives in contemporary Korean encompass psychological adjectives, sensory adjectives, and state-property adjectives. When a psychological or sensory adjective is combined with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only the first person is used as the subject. This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and sensory adjectives. When a state-property adjective is combined with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the first person cannot be placed in the subject position. This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ra/-era*.

A subclass of state-property adjectives includes personality adjectives that evaluate the qualities of a person. It was confirmed that personality adjectives generally use *-ara/-era* with high frequency.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combines with phrases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adjectives, sensory adjectives, and state-property adjectives. Phrases that combine with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nclude idioms, *-ko siphta*, and *-kido hada*. However, *-kido hada* must be combined with an adjectives. The combination of *-ara/-era* and idioms proves the theoretical assumption that not only individual words are listed as lexemes in lexicon, but idioms are also recognized and registered. When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combined with an idiom, the second or third person takes the place of the subject. *shphta* is an auxiliary adjective. The only construction of *shphta* that can be combined with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ko shphta*. *-ko shphta* shares the same grammatical and semantic features as psychological adjectives. When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combined with *-ko shphta*, the first person takes the place of the subject. *-kido hada* is used as a verb when combined with an verb, and as an adjective when combined with an adjective.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only combines with *-kido hada* following an adjective. In this case, *hada* is an auxiliary adjective. When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combined with an *-kido hada*, the second or third person takes the place of the subject.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combined only with *-si-* among the prefinal endings *-si-*, *-ess-*, and *-keyss-*. As is well known, when the first person is placed in the subject position, the preverbal ending *-si-* cannot be combined. Therefore, *-si-* is combined only when state-property adjectives, an idiom, or *-kido hada*, which can be in the second or third person, appears as the preceding stem of *-ara/-era*.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which is the subject of study in this paper, has the same form as the imperative ending *-ara/-era*. It has been confirmed that among adjectives, those that evaluate a person's personality, attitude, or appearance can create exclamatory or imperative sentences. The exclamatory ending *-ara/-era* is based on a sentence pattern in which only the predicate appears. In the *-ara/-era* sentence pattern, only independent words that are not related to any component of the sentence can appear. Among these independent words, only exclamations and vocative words are included. exclamations can only be combined with emotional exclamations that convey the speaker's emotions. Emotional exclamations primarily appear at the beginning of the *-ara/-era* sentence pattern. Vocative words omit the vocative case particles and appear simply as a noun. In most cases, *wuli* and *nay* take

precedence, and their position is flexible. exclamations and vocative words do not necessarily have to appear. *-ara/-era* expresses the speaker's subjective feelings or judgment at the scene of speech. It has a stronger immediacy than any other exclamatory ending.

In Chapter 4, based on the discussion in Chapter 3, the grammat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ara/-era* and *-kwuna*, *-ne* were compared. Unlike *-ara/-era*, which has several restrictions, *-kwuna*, *-ne* has no preceding stem restrictions and no subject restrictions. However, when *-kwuna*, *-ne* is combined with a psychological or sensory adjectives, the first person can be used as the subje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adjectives. However, when *-kwuna* is combined with a psychological adjectives or a sensory adjectives, the second or third person can be used as the subject. This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wuna*. The subject restrictions of psychological and sensory adjectives are resolved when used with expressions expressing inferences. *-kwuna* can express information learned through inference. *-kwuna* does not have any restrictions on the prefinal ending. *-ne* freely combines with *-si-*, *-ess-*, *-keyss-*, but does not combine with *-te-*.

-ara/-era can be said without considering the listener. *-kwuna*, *-ne* may or may not take the listener into consideration. Since *-kwuna*, *-ne*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whether the listener is considered, the speaker can confirm information they have or are guessing to the listener. However, *-ara/-era* cannot be used in the usage explained previously. When it is necessary to elevate the listener, only *-ne* combines with the auxiliary *-yo*. *-ara/-era* cannot combine with *-yo*, and *-kwuna* can combine *-yo* with its abbreviation *-kwun*. *-ara/-era*, *-kwuna*, *-ne* can also be combined with *ha-* and used as *-ara/-era ha-*, *-kwuna ha-*, *-ne ha-*. *-ara/-era ha-* is mainly used as *na mollala ha-*, *joara ha-*. *-ara/-era ha-*, *-kwuna ha-*, *-ne ha-* can be followed by a human noun or a specific noun to express detailed aspects of a character's facial expression or psychology. It can be used in bo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 Unlike *-ara/-era*, which only combines with emotional exclamations, *-kwuna*, *-ne* can be combined with various types of exclamations.

-ara/-era expresses the speaker's feelings or emotions. The speaker's feelings or emotions expressed in *-kwuna* and *-ne* accompany new facts. *-ara/-era* expresses facts learned through direct perception. *-kwuna* can express facts learned through inference as well as direct perception. *-ne* mainly expresses facts learned through direct perception, but it can also express inference when what is directly perceived is judged to be solid evidence. At this time, it often appears in combination with *-ess-*, *-keyss-*. The information

expressed with *-ara/-era* is immediate. *-kwuna* is used to express a long process of thinking. *-ne* is used to express an immediate or brief thought process.

Finally, Chapter 5 concludes with a brief summary of what was discussed in the main text.